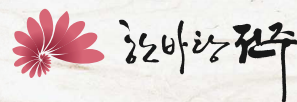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9, Jeonju



지역화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localization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10.16.(수) - 10.17.(목) 한국전통문화전당

Oct. 16 - 17. 2019,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Local Futures
국제생태문화협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9, Jeonju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localization

10.16.(수) - 10.17.(목) 한국전통문화전당

Oct. 16 - 17. 2019,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주 최



Local Futures
국제생태문화협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 관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목 차

■ 진행프로그램	6
■ 주요인사	8
■ 개최 취지문	16

CHAPTER 01 – 개막식

■ 개회사 : 오창환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	19
■ 환영사 : 김승수 전주시장	21
■ 축 사 :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23
■ 축 사 :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24

CHAPTER 02 – 해외연사 인사말

■ 엘렌 브라운 (Ellen Brown)	27
■ 아냐 링백 (Anja Lyngbaek)	28
■ 델라 던컨 (Della Duncan)	29

CHAPTER 03 – 기조연설

■ 한국경제, 기적의 부활 엘렌 브라운 (Ellen Brown)	33
---	----

CHAPTER 04 – 주제강연1

■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 아냐 링백 (Anja Lyngbaek)	47
■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62
델라 던컨 (Della Duncan)	

CHAPTER 05 – 워크숍 1세션 '공동체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 전략 | 이태희 74
- 도시재생과 공동체 자산화 | 전은호 98

CHAPTER 06 – 워크숍 2세션

'전주시 푸드플랜 [전주푸드2025] 방향과 과제'

- 전주시 푸드플랜 [전주푸드2025] 방향과 과제 | 강성욱 112

CHAPTER 07 – 워크숍 3세션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 반년의 실험, 전주형 지역화폐 '꽃전' 결과보고 | 황은주 118
-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 및 민간의 역할 | 이상진 159

CHAPTER 08 – 주제강연 2

- 공동체의 회복이 행복의 열쇠다 | 조현 191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 진행 프로그램

10.16(수)			
시간	프로그램		장소
09:00 ~ 09:30 (30')	등 록		한국전통 문화전당 2층 공연장
09:30 ~ 09:59 (29')	개 막 식		
09:59 ~ 10:00 (1')	기념촬영		
10:00 ~ 10:40 (40')	기조연설	· 한국경제,기적의 부활 / 엘렌 브라운 (40')	
10:40 ~ 11:50 (70')	주제강연1	·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 / 아냐 링백 (35') ·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델라 던컨 (35')	
12:40 ~ 13:40 (60')	점 심		
	제1세션 '공동체 자산화와 도시 재생의 지속성'	발 제 델라던컨, 이태희, 전은호 좌 장 김창환 패 널 소영식, 조선, 고우리, 정재진, 최태우, 허나겸	한국전통 문화전당 3층 세미나실
14:00 ~ 17:00 (180')	제2세션 '전주푸드플랜 (전주푸드2025) 방향과과제'	발 제 아냐 링백, 강성욱 좌 장 황영모 패 널 박수영, 조경호, 김희연, 김양우, 장순철	한국전통 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
	제3세션 '사회투자기금 활성화방안과민 간의역할'	발 제 엘렌브라운, 황은주, 이상진 좌 장 손현주 패 널 유유미, 이동근, 주세윤	한국전통 문화전당 4층 교육실

10.17(목)			
10:03 ~ 10:30 (30')	워크숍결과발표		한국전통 문화전당 2층 공연장
10:30 ~ 11:00 (30')	주제강연2	· 공동체의 회복이 행복의 열쇠다 / 조 현 (30')	
11:00 ~ 11:30(30')	폐 막 식	· 폐막공연 · 폐막선언, 기념 촬영 등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9, Jeonju

Sustainability of Localization

■ 주요인사



기조연설

엘렌 브라운
(Ellen Brown)

- (미국) 미국 PBI(Public Banking Institute) 대표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쿨 졸업
- 미국내 변호사 10년 재직
- 미국 캘리포니아 녹색당 당원
- 저서: 달러, 사악한 화폐의 탄생과 금융몰락의 진실('09)



주제연설

아냐 링백
(Anja Lyngbaek)

- (덴마크) Local futures 디렉터 및
International Alliance for Localization 코디네이터
- 멕시코 Veracruz지역 NGO인 "Microcuenca del Rio citlalapa" 공동
창립자, 프로그램 디렉터
- 1986년부터 영국지방식량계획 (British Local Food program)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 식량, 농업, 현지화 및 환경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



주제연설

델라 던컨
(Della Duncan)

- (영국) 슈마허대학 교수
- 경제학자, 교사, 방송기자로 대안적인 경제멘토와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새로운 경제학 강의 및 국민행복종합 마스터
트레이너로서의 과정도 이끌고 있음.

■ 국내주요인사



김 승 수
전주시장

민선 7기 전주시장으로 재임중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 문화, 생태에 주목하며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 번영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구도심 마을 재생과 전주푸드플랜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 클럽의 공동대표 외에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2018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다른 지방도시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 병 술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 현재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 제8대 전반기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시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전주 동남부권 문화벨트 조성, 농촌지역 도시기반 시설 확보,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발의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공동체문화 회복에도 힘쓰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정 원 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선 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성동구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로 나아가고자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과 기술을 모든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며 참여하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장을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이자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의 혁신, 스마트시티’가 있다.



조 현
한겨레 논설위원

건고 읽고 땀흘리고 어우러져 마시며 지내는 조현 한겨레 논설위원 기자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베스트셀러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와 주요 저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리스 인생학교’ 등이 있으며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우리시대 대표작가 300인인에 선정되었다.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휴심정 운영자,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이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재생사업단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 국내주요인사



1세션 발제
이태희 부연구위원

영국 Sheffield 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주거지 재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재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1세션 발제
전은호 센터장

도시공학과 도시행정학을 전공하고 국토연구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였고,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시민 자산화지원 센터장, 나눔과미래 시민자산화팀장을 거쳐 현재 목포시도시재생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공간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이들이 공유하는 사회, 일상의 삶터가 다가오는 세대에게 짐이 아닌 선물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커먼즈와 연대경제의 원리에 기반하여 도시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2세션 좌장
황영모 박사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등에 관한 여러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한국식품유통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3세션 발제
황은주 과장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으로 이웃을 돕고, 자신의 약함은 이웃의 도움으로 보충되어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복지생태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하며, 평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활동가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전주형 지역화폐 시범사업의 실무를 맡아 추진하며 거래소 운영과 공동체형 지역화폐 모형을 위한 주민조직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세션 발제
이상진 이사

투융자, 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을 선도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이다. AT kearney, KPMG 등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다수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에 대한 경영자문을 수행하고, 우리금융그룹에서 경영혁신을 담당하던 금융통이다. 2014년 140개 사회혁신기업과 자조기금인 '사회혁신기금' 조성 및 운영하면서 사회적금융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노협연합회, 서울시 민관협의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강원도 사회적금융 TF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세션 발제
이동근 회장

격월간 <녹색평론>에서 소개된 지역화폐운동을 접한 이후로, 현대 화폐시스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대안화폐/대안금융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작은 농촌지역인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협동체 도토리회>의 회장, 중간단체 <마을활력소>의 사무국장, 지역화폐운동단체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앞>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오 창 환
조직위원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허 문 경
기획운영위원장

전주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자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현장의 사례를 담론의 장(場)에 담아내고 다시 현장으로 환원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를 전주로 안내한 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정을 쏟아왔다.



고 은 하
위원

전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 풍족하게 사는 복지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연대로 지역사회에 노동 통합형 사회적 경제기업 복합체를 실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전북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강 소 영
위원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로 설립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운동,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등 생태교통운동, 에너지절약과 가정햇빛발전소 에너지운동, 원도심교육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 창 환
위원

공공작업소 심심, 사회적기업 이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 전통시장,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완주CB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배웠다. 현재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하고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 국제회의의 조직위원회



장우연
위원

전주시 정책연구소 도시분야 연구원으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다가 희망제작소라는 시민사회 민간 싱크탱크에서 시민참여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 연구와 활동을 하였다. 작년부터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에 와서 지역을 배우며 미래유산, 젠트리피케이션 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번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에서는 3세션 지역화폐 워크숍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손현주
위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미래학회 편집이사로 활동중이다. 미국 하와이대학 정치학과에서 미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의 대안미래와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연구하고 있다. 초연 결성에 기반한 데이터사회에서 인간, 가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운동(New Economy Movement)'에 관심이 있으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강성욱
위원

2010년 완주군에서 계약직공무원 근무를 시작으로 지자체 단위의 공동체지원 농업(CSA),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지역푸드플랜 현장 실행 조직에서 일을 해왔다. 2015년부터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 프로젝트 「전주푸드2025」 플랜을 실천하고 있다.



이재민
위원

경제학박사이면서 웅지세무대학교 부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이며, '더불어 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의 지배적 역할과 물물교환이나 교환의 원리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성, 재분배, 가정경제 등의 원리가 어떤 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 내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물교환의 원리 또한 다른 원리가 우세한 사회 내에서도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이타적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 하고 있다.



김진욱
위원

제 11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고 도시기반 확충사업과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문제 해결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보다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성장하여 명품녹색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1세션
소영식

도시, 농촌, 전통시장등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정책사업을 구상하고 주관하면서 공급되어지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생애현장에 어떻게 개입되고 영향주는지 아직도 고민중에 있다.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주민, 소비자로서 주민에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으로서 시민,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자로서 시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만 매달리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나이 인 것 같기도 하다. 도시와 건축을 좋아하고 업으로도 하고 있다, 다양한 업역(문화, 교육, 예술, 디자인, 비즈니스등)을 넘나들며 현장의 여러 문제들을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풀어내는데 집중하고 그러한 과정을 설계하며 실행하는 것 또한 좋아한다.



1세션
고우리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적경제리더과정 인턴쉽 과정 중 '전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원도심탐'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우던 곳을 실제적 현장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 후로 '주민공모사업' 에디터와 '차없는 사람의 거리 기획단'에서 활동하며 도시재생에 대해 더 배우는 중이다.

아무리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우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계속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 올바르게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



1세션
조 선

지역과 지역민을 중심에 두고 풀뿌리, 공익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기자활동을 해왔다. 기자라는 관찰자를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일과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돕고, 지역을 재생하고 싶어 공동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에 대해 공부했다. 특히 요즘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들로 사회적경제와의 접점, 시민자산화, 메이커시티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습하며 현장과의 연결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1세션
정재진

주민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지역에 남는 사람은 지역주민이기에 주민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발굴 및 현장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1세션
허나겸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사업지로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지역공동체 연구를 하던 중 현장에서 배움을 얻고자 도시재생 현장에 뛰어들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1세션
최태우

전주시 물왕벌공동체 간사이자, (주)청축동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물왕벌 CCBL(Community- Challenge Based Learning): 지역사회 속에서 교과를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역사회나 지구촌 속에서 동료, 교사, 전문가와 함께 좋은 질문을 찾고, 깊은 주제영역지식(Subject area knowledge)을 심화시키고, 과제를 해결하고 행동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협력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2세션
조경호

(사)지역농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에도 헌신하였으며, 농업정책 연구에 관심을 갖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지역농업조직화와 내발적발전론에 의한 농촌산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2세션
박수영

원주친환경농업연합회 총무이면서 (사)한알마을 상임이사로 활동중이고 원주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지역농업,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교육 등에 관심이 많고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이다.



2세션
김희연

현재 원예치료사, 도시 농업관리사, 먹거리 강사로 활동중에 있으며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원예과학과 졸업하고 원예치료를 해오다가 도시농업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삶의 근간이 되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와 내 가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세션
김양우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산자회 회장으로 전)사단법인 농업기술자협회 전북지부 부회장을 역임했다. 20살 청년시절부터 오랜 세월 농사만 짓고 살아왔으며, 현재 전주시 색장동에서 전주푸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2세션
장순철

지역 먹거리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전주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썹(HACCP)인증 육가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애플농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주급식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2세션
최민영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2018~19). 학부에서 산업·노동관계학, 석사에서 농촌사회학을 공부했다. 농업과 먹거리를 소재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에 관심이 있다.

■ 워크숍 참여자



3세션
유유미

경기도 의정부지역자활센터 총괄팀장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업무에 발을 들였으며, 현재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과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이사, 경기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자활사업 활성화 유공으로 의정부시장상 및 보건복지장관상, 경기도 도지사 상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조금융 공제연구에 참여하는등 사회적금융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3세션
주세윤

동작신협 사회적금융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며 금융을 통한 사회가치실현을 고민하고 있다. 생협평론 편집위원,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개최 취지문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취지문

전주시는 경제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Local Futures 로컬퓨처스 및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전주시에는 5번째이자 로컬퓨처스가 전 세계에서 펼치는 23번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입니다.

전주시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연례로 개최하는 것은 세계화에 맞서 지역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이는 전주시민과 행정이 지난 20년간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부제를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으로 정하고 전주시 행정과 시민사회 간에 보다 긴밀한 협치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엘렌 브라운 Ellen Brown, 아냐 링백 Anja Lyngbaek, 델라 던컨 Della Duncan 등 지역화 분야의 권위자들을 해외연사로 모시고 강연회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의 각 세션에서는 ‘공동체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전주푸드플랜〔전주푸드 2025〕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사회투자기금 활성화방안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토의를 통해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공공은행 설립자 엘렌 브라운은 에너지 소진 문제와 지역의 자금공급 해결책에 대해 기초강연하고 워크숍에서는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이를 지역에 적용하여 민간에 역할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냐 링백은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며 재생농업과 지역기반 경제모델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입니다. 델라 던컨은 세계적인 생태교육기관인 슈마허 컬리지 Schumacher college의 교수로서 샌프란시스코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사례와 지역리더가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상의 프로그램을 국제회의의 1일차로 진행하고, 2일차에는 각 세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발표하여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베스트셀러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인 조현 한겨레 논설위원을 모시고 전주의 마을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도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CHAPTER 1 개막식

OPENING SESSION

-
- (개회사) 오창환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
 -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 (축사)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 (축사)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개 회 사



오 창 환

조직위원회 위원장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5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오늘 내일 이틀간 함께 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지난 1회~4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의 많은 지방정부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행복실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열망을 담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2018년 10월 설립되어 현재 각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경제학의 도시인 전주의 시장님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 회장을 맡고 계시며 올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회의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함께 전주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올해 열리는 “2019년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 전 세계에 전파할 만한 좀 더 구체적인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음식을 기반으로 값싸게 많이 먹고,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안히 지역 밖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웃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가 경쟁력이 높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에 종속되고 지역의 미래가 없어지는 현상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즉 이러한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무한 경쟁과 이웃을 생각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는 모든 부를 경쟁력이 높은 일부 국내외 대기업으로 집중시키고 지역을 사회 경제적으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행복 추구를 통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다한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를 운동하지 않게 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화시설을 얻기 위해 우리 무한 경쟁 속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과다해지는 극한경쟁 속에서 승자는 승자대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패자는 경제적인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그 답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2019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전주에서 열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 전주시와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을 부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엘렌 브라운 대표, 아냐 링백 디렉터, 텔라 던컨 교수님을 모시고 전 세계의 지역화를 바탕으로 한 행복의 경제학의 기본 방향과 공동체 자산화를 통한 도시재생,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 그리고 사회투자 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강연을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지난 국제회의에서 진행하였던 주제에 대한 연속적인 논의와 함께 과거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전주에 적용된 사례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진행 될 것입니다. 예로 지난 2년 동안 로컬푸드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로컬푸드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년도에는 구체적인 정책 사례검토를 통해 전주시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초부터 전주에서 시행된 꽃전이라는 화폐의 성과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층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다른 지방정부의 행복의 경제학 추구에 기초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며 개막 축하 영상까지 보내주신 헬레나 호지 여사님과 로컬퓨처스 사무국 관련자 분들 그리고 전주시장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님과 관련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준비를 위해 10여차례의 회의를 주관한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단체 및 전주시민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우리 모두는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을 치뤘고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시간동안에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제발전과 양적 성장은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되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질수록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대간 갈등과 청년실업, 노후 불안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현대인들을 옥죄어 갔습니다. 양적 성장의 속도는 점점 증가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러한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사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호혜와 연대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지향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대기업 등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것, 사회적경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진 진정한 행복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냄새 나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하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는 대한민국 행복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에게 개최되는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

주」는 지역화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공감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해해 봅니다.

끝으로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전주를 방문해주시는 엘렌브라운 미국 공공은행 대표님, 아나 링백 로컬퓨처스 디렉터님, 텔라 던컨 영국 슈마허컬리지 교수님 그리고 국내 전문가 패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 사



박 병 술

전주시의회 의장

깊어가는 가을의 향기가 물씬 피어나는 이곳 전주에서,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멀리서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의 증진과 일치의 정신을 나누는 상호 교류의 장으로써 행복의 공동체, 도시재생의 지속성, 사회투자 기금 등 공존과 협력 그리고 치유의 경제를 위한 뜻깊은 국제회의에 올해도 함께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진보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자유로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불행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못할 때, 지역화의 힘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는 “행복의 경제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과 생태 그리고 문화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올해도 이러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행복의 경제학을 더욱 널리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지혜와 관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정 원 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성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협의회 45개 회원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당면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행복의 경제학” 원조이자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로컬 퓨처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 대표가 시작부터 함께 해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필요성을 전파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주민의 행복’은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을 기획하며,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협의회 또한 2013년 출범 이후부터 지방정부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컬 푸드와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의 미래를 논하는 이번 “2019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의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협의회도 그 노력에 함께 하며 ‘행복의 경제학’이 지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2

해외연사 인사말

-
- 엘렌 브라운 (Ellen Brown)
 - 델라 던컨 (Della Duncan)
 - 아냐 링백 (Anja Lyngbaek)

인사말



엘렌 브라운

Ellen Brown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도시 전주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삶의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는 속도도 매우 느리다 하여 “느림의 도시”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한편 장하준 경제학 교수가 “마치 아이티가 스위스가 되었다” 라고 묘사할 정도로 한국은 지난 반 세기동안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은 문화나 삶의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멈춰서 장미 꽃 향기를 맡고,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 각각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쫓을 수 있는 삶의 여유와 기술적 진보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버지니아 울프 작가의 “자기만의 방” 처럼 우리 모두가 숨쉬며, 창조하고, 최대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누릴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방법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인사말



델라 던컨

Della Duncan

주최자 여러분께,

저는 델라 던컨(Della Duncan)입니다.

대한민국 전주에서 열리는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칭 “괴짜 경제학자(Renegade Economist)”인 저는 더욱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교육, 코칭,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언론에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틀란틱 펠로우 프로그램(Atlantic Fellows program)”의 사회 경제 평등 부문 대서양 대표회원(Atlantic Fellow)으로 런던정치경제대학의 국제 불평등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스트림 팟캐스트 (Upstream Podcast)의 진행자이자 경제 대안을 알리는 라디오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제작자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진행했던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캠페인과 공동체 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및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생태경제학과 비영리 비즈니스모델 (Not-for-Profit Business Model)에 대한 제 강연과 자문활동이 이번 회의에서 저와 연사들이 공유할 공동의 지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제가 얻은 신선한 시각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의 목표를 맹목적인 경제성장에서 전인적인 지구인의 행복과 안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시대의 가장 숭고하고 절실한 경제시스템의 전환 방법입니다. 올가을 개최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행사입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열리는 이 중대한 회의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



아냐 링백

Anja Lyngbaek

먼저 전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분의 비전과 경험을 전세계에 알리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세계 주요 미디어가 기업화되어 글로벌 소비자 문화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언론에서 접하지 어렵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대체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주 스토리가 전세계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건강하고 강력한 지역 경제 구축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헌신해온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는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화 운동을 선도합니다. 이들 지역화 운동은 사람들의 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은 기본적 욕구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보다 지역 시장의 수요를 먼저 고려합니다. 공정 경제 구축에서 식품과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식량안보에서 중소 농민들의 중추적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경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식과 실제 경험, 지역 기반 지식과 기량을 무시하고 전문화에 집중하고 협소한 전문가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덕분에 정보가 풍부해지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더욱 현명해지거나 인류와 지구의 웰빙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업 중심의 파괴적 경제 모델은 물론 협소한 전문화에만 의존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요구와 조건, 지식 및 기량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전체론적 사고를 포용하고 일반 상식을 의사 결정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전주 회의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3

기조연설

-
- 한국경제, 기적의 부활 / 엘렌 브라운 (Ellen Brown)

한국 경제 기적의 부활

엘렌 호지슨 브라운
법학박사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대한민국, 2019년 10월 <http://EllenBrown.com>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행복지수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오늘날 노동인구에 합세한 젊은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만족이다. 2017년 발간된 요즘 아이들: 인간자본과 밀레니얼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말콤 해리스는 밀레니얼 세대 -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 는 왜 에너지가 소진되었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그의 답은 “경제” 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20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적인 불안감은 그들을 영구적인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해리스는 이들이 이들의 삶과 미래세대의 삶을 유의미하게 개선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을 뒤엎고 사회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 의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이와 비슷한 자본주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22세의 노동자 권리 운동가가 한국 공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시위하면서 분신한 후 1970년대 노동운동이 시작되었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의 워라벨은 이러한 오랜 운동에 대한 새로운 용어이다. 그의 죽음으로 한국은 기준노동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노동조합운동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시위한다. 2019년 4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 강력한 재벌에 도전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리비아 맥콜은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일에 대한 고충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이로써 이들은 직장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자이며 직원에 대한 갑질과 착취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자가 되었다- 라고 관측했다.

직장문화를 바꾸는 한국 밀레니얼 세대의 힘은 한국에서 가장 금욕주의적이면서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는 재벌에 등을 돌리는 모습에서 보여진다. “부” 와 “가문” 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재벌은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상당 수의 자회사를 한 가족이 소유하는 거대 기업이다. 가장 큰 재벌로는 삼성, LG, 현대와 롯데가 있다. 재벌은 가족이 경영하기에 전통적으로 창업가문의 구성원들이 보유하며 외부인들이 이에 포함될 기회는 적다. 로이터통신의 최근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야근으로 인해 점점 에너지가 소진되고 승진의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보다 느긋한 삶을 찾아 사무직을 떠나 지방의 농장으로 이직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가족, 친구와 개인의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소득, 승진과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불만과 더불어 최근 최고 경영자들이 휘말린 스캔들, 부패와 직장 내 갑질이 있다. 이들은 주로 대통령 사면이나 소액의 벌금만으로 징역형을 면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뇌물, 횡령 및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로 5년 징역형을 받은 것은 악명 높은 한 사건이다. 그의 징역형은 후에 5개월로 줄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와 그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뇌물사건은 박근혜의 수감과 문재인으로의 교체로 일단락되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폴 싱어의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외국 소주주들이 재벌의 힘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싱어와 그의 “벌처(vulture) 펀드”가 나라의 경제기둥들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벌처펀드모델은 부실기업들이나 국가들의 부채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이자 및 부채완불에 대한 지연되는 소송전쟁에 관여하여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싱어의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페루, 아르헨티나와 콩고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를 빼낸 것으로 악명 높다. 기업의 경우, “운동가” 헤지펀드는 소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인 후 수익의 더 큰 지분을 위해 위임장쟁탈전, 이사회교체, 자산처분 또는 회사의 완전매각 등을 야기시킨다.

2009년 미국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다른 두 곳의 벌처펀드는 당시 곤경에 처해 있던 GM의 자동차부품제조사인 델피사에게서 15억 달러를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북미 노동조합세력을 실질적으로 파괴시켰다고 한다. 2만여 명의 델피 퇴직자들은 그들 연금의 최대 70퍼센트까지를 잃었고 전국적으로 약 85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한국을 침범한 외국 “운동가” 헤지펀드는 연구개발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쓰여졌어야 할 수 천억 원의 돈을 재벌들로부터 뜯어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을 멈춘 한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 □ 증세와 최저임금인상 □ 은 기업들이 중국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필요한 자금공급에 있어 다른 대안이 있다. 이는 과거 한국에서 추구했던 것으로 여기서 다룰 내용이다.

재벌은 지난 반세기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끌었다. 이들의 문화적인 유산을 파괴하기보다는 그들의 최고의 특징점들을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단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정부가 장려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제시한다. 해결방안에 이르기 전에 한국의 경제역사, 재벌들이 어떻게 극적인 성장에 기여했는지와 한국의 경제기적을 가능하게 한 독특한 자금공급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50년의 경제 기적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3달러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의 하나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89년 5439달러, 2007년 2만 달러, 2010년 3만 달러로 급상승하면서 한국은 제1세계 부유한 선진국들 반열에 합류했다. 케임브리지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유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역사에서는, 이는 “아이티가 스위스로 바뀐 것과 같다” 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험난한 시작과정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이룬 성과는 더욱더 인상적이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확실한 반공산주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식 경제처방을 따랐다; 일제시대(1910-1945) 정부 소유였던 국유은행들은 민영화되었다. 경제는 고삐 풀린 물가상승, 높은 무역수지 적자와 대량실업에 시달렸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 중의 하나로 4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한국 산업의 절반을 파괴했다.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이승만 정권은 결국 1960년 학생운동에 의해 무너졌으며; 1961년 박정희소장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동경의 일본제국주의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만주의 일본제국군대에서 복무한 박정희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실험에 기반하여 일본경제가 1950년대에 급속히 성장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일본식 모델에 따라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맡겼고, 민간기업들을 고용하여 이를 실행해나갔다. 이 모델은 소유권과 관리를 국가의 손에 맡긴 공산주의제도의 결함들을 극복했다.

차머스 존슨 일본정책연구소장은 1989년 미국에서 본 일본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은 군사/산업단지였다고 썼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정하고 민간회사들을 고용하여 이를 실행했다. 미국의 군사/산업단지는 가장 수익성이 좋고 성공적인 산업을 만들어낸 정부가 지원하는 자본주의형태였다.

일본식 모델은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루어냈지만 전쟁이라는 구실은 필요치 않았다. 일본의 무인계급은 기업가들로 탈바꿈했고, 일본은 나라를 건설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평화적인 일로 초점을 옮기는데 성공했다. 일본의 오랜 봉건시대 통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되었다. 미쓰비시, 미츠이, 스미토모 등. 정부가 공익실행의 방식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주도했다. 일본은 반세기도 걸리지 않아 1인당 국내총생산이 1962년 610달러에서 2006년 38,500달러로 63배 뛰면서 새로운 국가 주도형 모델의 성공을 증명해 보였다.

일본의 놀라운 성장은 일본의 이전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재현되었다. 박정희가 1960년대에 정권을 잡은 후 은행의 국영화를 비롯한 일본식 국가 주도형 계획 및 발전 모델을 도입하였다. 한국은 일본식 모델을 복제하였고 경제계획, 평생직장, 수출지원, 일본의 재무부, 산업통상부와 일본개발은행과 같은 아주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일본에서 계열체제라고 불렸던 대기업들을 모방하여 한국에서는 이를 재벌이라고 불렀다. 국유 기업들(SOEs)이 광범위하게 쓰였고 정부는 외환통제 및 외국인 투자 통제를 비롯한 상당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했다. 일본모델의 한국식 버전은 1978년 1인당 국민

소득이 거의 20배 성장하는 빛나는 성공을 거뒀다.

기업의 협력적 그룹화와 내부 자금공급 메커니즘

이러한 극적인 전개를 보증했던 것은 서구식 “자유시장” 접근법과는 달랐던 독특한 자금공급모델이었다. 장하준 교수가 쓴

신자유주의 체제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의 기적의 기간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 개발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은 믿게 한다. 하지만, 실재는 아주 달랐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이 실제로 했던 것은 민간부문과의 협의 하에 관세보호, 보조금 및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을 통해 정부가 선발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들이 국제적인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정부는 모든 은행을 국영화했기에 기업에 대한 수혈-용자-을 지시할 수 있었다.

영국의 정책은 그들이 점령한 나라들의 중앙은행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1882년 일본은 독립적인 국영은행을 설립한 아시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은행은 사무라이귀족들에게 지불하는데 사용되었던 명목화폐를 발행했다. 그 당시 귀족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돈을 국영은행에 예치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사용하게 했다.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돈을 추가적으로 발행했다. 산업화 과정 중에 어떠한 지출도 아끼지 않았다. 연 세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화폐를 발행했다. 결국, 자금은 외국채권에 대한 부채보다는 정부의 신용대출에 기반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정부융자금뿐이었다.

고전적인 사회주의는 경제의 “전망 좋은 고지”를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강철, 석탄 등의 중요산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은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이들 산업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자본을 공급하는 금융부문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로버트 로크의 2004년 “일본, 신자유주의의 반증”이라는 보고서는, 정부가 1퍼센트만 제대로 통제한다면 99퍼센트 자본주의적인 경제를 조작하여 중앙계획경제로 만드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바른 1퍼센트는 자본, 특히 거대 자본의 배분이다. 일본재무부는 자본배분에 대한 목조르기를 이용하여, 은행들을 일본경제를 통제하는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종으로 만든다.

일본은 대형 은행들을 부유한 가문의 사적인 통제 아래 두지 않고 재무부의 최고위층에서 통제하게 했다. 은행들은 계열체제라고 불리는 회사들의 네트워크에 파고들었다.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재벌의 계승자들은 가족과 같은 헌신으로 그들끼리 거래했다. 이러한 각 계열체제의 정점에는 자본을 배분하는 그들의 은행이 있었다. 재무부는 이들 은행들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옛 소련식 중앙계획체제처럼 미세관리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의제를 정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은행들을 지휘했다.

로크는 계열체제의 협력적 그룹화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지역 경제, 심지어 국가 경제가 훼손되면서 공동체들을 서로 연결하는 상호 의존성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 분열과 고립으로 이어질뿐 아니라, 주변 지역이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없애 버립니다.

후계자(상속)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스스로를 소유하도록 설계된다. 비록 명목적 외부 소유주가 있다 해도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의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소득이나 회사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투자로 흐르도록 회사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근로자들과 회사 자체는 사실상 수혜자인 소유주가 된다.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자본은 은행이 소유하며 은행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아닌 같은 계열체제나 산업그룹 내의 다른 회사가 소유한다. 이들 회사는 누가 소유하나? 비록 외부 주주들이 있다 해도 과반수소유지배권은 계열체제의 은행과 그룹내의 다른 회사들이 가진다. 본질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순환식 사적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뒷자리로 밀려난 것이었다.

계열체제 내의 회사들은 그들이 협력적 관계로 소유한 은행으로 인해 싸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이들을 다른 서구식 자본주의의 경쟁자들보다 더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싸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개인은행들로부터 고리로 대출받아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 확실히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은행융자를 이용함에 있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융자금”을 뽑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시장점유율에 신경을 썼고 생산과 기술을 개선하고 고용을 유지했다. 그들은 분기수익에 주된 관심을 가지는 주주들이 아닌 그들이 소유한 은행에서 자금을 공급받았기에 장기적 관점을 취할 수 있었다.

재벌

한국식 버전의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와 이의 눈부신 성공은 신장섭, 장하준 경제학 교수가 2003년 발간한 저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에 자세히 나와있다. 모델은 국가, 은행과 재벌에 기초했다. 재벌은 아직 미숙한 산업들이 금융특혜대우와 보호를 정부로부터 받을 당시의 그룹화된 기업이었다. 그룹 내 계열회사들은 중앙의 조정하에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재정적, 사업적 또는 다른 자원들을 동원하고 공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었고, 학습과 신기술 창출에 오랜 잉태기간을 요구했던 장기 프로젝트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새로운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보장하는데 기존 회사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수익을 동원할 수 있었고, 계열회사들은 서로에게서 싸게 구매할 수 있었다. 전 계열사를 아울러 직접 보조금, 기업대출, 대출담보를 통해 금융자원을 공유하고 동원하였으며 이 자원들은 그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본시장의 기능에 아주 근접했다고 신교수와 장교수는 주장했다.

재벌은 그들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창업주의 가족 아래 보다 집중되어 있고 대체로 개인은행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계열체제와는 달랐다. 이는 신용 배분과 같은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벌은 여전히 그들 내부에서 자금을 동원하는데 성공했다. 신교수와 장교수는 기업의 그룹화는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통한 “의제” 자본을 창출하는 방법이었다고 했다. 계열회사들은 서로의 주식을 사고 서로의 대출에 대해 보증해주고 기존의 자금을 재순환시킬 수 있었다. 출자가 맞물릴수록 사유그룹화에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과정인 초기 납입 자산에 대한 자산 창출은 더 커졌다.

이러한 의제자본과 신용거래의 창출은 의문스러운 관행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늘날 은행들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은행들은 예금을 받고 그것을 다시 빌려주는 단순한 중개업자만은 아니다. 잉글랜드은행은 최근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60년대에, 은행은 대출해 줄 때 사실상 예금을 창출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은행은 대출자의 예금계좌에 단순히 대출금액을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은행이 송금이나 인출을 위한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그들의 예금주나 다른 은행들, 또는 그림자금유통시스템이나 중앙은행에서 싸게 돈을 빌리면 된다. 잉글랜드은행은 화폐공급의 97퍼센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오늘날 우리 돈의 대부분은 단지 은행용자금일 뿐이다.

미심쩍게 들리지만, 은행장부에 단순히 외상으로 기록하여 돈을 만들어내는 이 지배적인 관행은 사실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이는 자립경영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 생산성을 현재 쓸 수 있는 현금유동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한다. 이 시스템의 부패는 주로 불투명성, 사유화 및 단기투자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일어난다. 현재 사적인 बैं킹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투기적인 금융화된 경제가 아닌 국민과 생산적인 실질 경제에 기여하는 공익기업체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이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징을 보존하면서 시스템 내의 부패를 제거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곧 있을 것임.

월스트리트 투기꾼들의 공격

일본과 한국의 국가 주도형 시스템은 1997년과 1998년에 일어난 아시아위기에서 다른 아시아 경제와 함께 망가졌던 1990년대 후반까지는 멋지게 주효했다. 2004년 발간된 전쟁의 세기에서 윌리엄 앵달은 외국 투기꾼들에 의해 어떻게 위기가 야기되었는지와 위기가 해소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외국 투자자들과 은행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추적해 들어갔다. 일본의 국가 주도형 시장시스템은 너무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장려했던 부채기반화폐와 “자유시장”의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으로 여겨졌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전 세계에서 경제선진국 및 대출 강국으로 여겨졌다. 일본의 국가 주도형 모델 또한 한국과 다른 아시아의 호랑이 국가에서 아주 큰 성과를 증명해 보였다.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했을 때 일본은 그들의 모델을 이전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제안했고 이들은 일본과 한국의 모델을 미국의 자유시장체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혜택을 파괴하지 않고 공공복지에 기여했다고 앵달은 주장했다.

호랑이국가들은 IMF의 자유시장모델에게는 아주 당혹스러운 존재였다. 이들이 사기업들을 강력한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혼합함에 있어 큰 성공을 거둔 것은 IMF의 자유시장의제에는 위협이었다. 국가의 강력한 역할에 기반을 둔 모델로 이들 호랑이 국가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 이전 공산주의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은 극단적인 IMF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의 동아시아에서는 7-8퍼센트의 성장률, 사회보장제도의 증가, 보통교육 및 높은 노동자생산성은 시장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가의 지도와 계획-아시아형식의 자비로운 가부장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위협을 분산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 달러에 대한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 재평가는 일본의 엄청난데 넘쳐나는 자본잉여금(수입대비 수출 초과금)을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이 조치의 공언된 근거였다. 잉여금은 문제점이 아니라 냉전시대 이후 철도와 다른 경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한 세계에서 급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본재무부는 반박했다. 1987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2.5퍼센트까지 낮췄다. 그 결과 물밑 듯 쏟아지는 쌀 “화폐”가 상승한 도쿄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정부가 조심스럽게 금리를 높여 거품을 빼려고 하자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공매도를 통한 시장붕괴를 위한 그들의 신 “파생” 도구들을 이용해서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앵달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본이 투기열기를 식히려고 행동을 취하자마자 모건스탠리와 살로몬브로더스가 이끄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은 이국적 신판생금융기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개입은 도쿄시장의 질서정연한 하락을 거의 패닉에 가까운 매도로 이끌었고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이 과정에서 도쿄시장의 주식 공매로 떼돈을 벌었다. 수개월 내에 일본 주식시장은 거의 시가 5조 달러를 잃었다.

일본은 “선례” 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워싱턴의 관리들은 “일본식 모델”의 종말을 선포했고 일본을 따라 형성되고 있던 아시아의 나쁜 호랑이국가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호랑이 국가들 끌어내리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그 때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부채가 없었고 주로 국가의 장기적 목표실현의 일환으로서의 제조공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제외하고는 IMF 용어나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호랑이 국가들에게 그들의 국가통제를 받는 금융시장을 자유로운 자본흐름에 개방하라고 요구하기 전이었고 이는 개방은 외국투자자들의 투기에 대해 금융시장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기관투기꾼들은 시티그룹을 비롯한 국제은행들로부터 받은 비밀대출한도로 무장하여 공격에 나섰다. 차머스 존슨은 1999년 LA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이 자금들은 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쉽사리 강간했고 벌벌 떠는 생존자들을 피해자들을 IMF에 떠넘겼다. IMF의 일은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 피해국들에서 부실대출을 떠맡지는 서구권 은행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크 웨이스브로트는 의회에서 “이 경우 IMF는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추락시키는 정책을 처방했다”고 증언했다. IMF는 아주 높은 금리와 “긴축재정”을 주장하면서 자본통제를 제거할 것을 처방했다. 결과는 지역의 대규모 불황을 가져온 유동성 위기(구할 수 있는 자금의 부족현상)로 이어졌다. 1997년, 아시아의 경화보유고의 1000억 달러 이상이 몇 개월 만에 사금융권으로 옮겨갔다. 화폐재평가 이후,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실질소득과 고용률이 추락했다. 그 결과 이전에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던 나라들에서 대량 빈민자들이 속출했다. 1998-99년 겨울에 기고한 화폐 개혁이라는 기사에서 미셸 초수도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강력한 참가자들이 시장의 힘을 조작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 및 경제전쟁의 형태를 이룬다.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식민지화하거나 침략군을 보낼 필요는 없다. 20세기 후반, 생산적 자산, 노동력, 천연자원 및 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 노골적인 “국가 정복” 행위는 기업사회의실에서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재정적 부와 생산적 자본에 대한 지배권을 포획하고자 하는 궁극적이 목표를 위해 투기적인 기구들이 사용되어 왔다.

초수도프스키는 아시아의 위기는 국가의 경제적 자주권의 말살과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지켜주던 브레튼우즈체제의 해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는 자국의 통화 창출을 통제할 능력을 더 이상 갖지 못했고 그들의 돈은 외국 은행 사냥꾼들이 찬탈해갔다.

2003년 발간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에서 신교수와 장교수는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의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는 이전의 국가주의적인 모델을 뒤엎었다고 두 교수는 말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자본이 소유했다. 1997-98년의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경색을 피하기 위해 제일은행과 대우자동차와 같은 정부가 지배하는 자산은 특매가로 투자자들에게 팔렸다. 정부는 “시장 지향형” 정부라는 그들의 새로운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회사들을 국영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외국투자자들에게 나눠준 것이었다.

폴 싱어의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다른 “운동가” 펀드들은 기업들에게서 수익을 짜내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는 등 외국투자자들의 한국회사의 적대적 인수는 오늘날 위협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재벌의 최고의 특징점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에게 그들이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과 일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연방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적인 것이다.

연방적 해결책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상황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미연준비제도이사회는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도산한 월스트리트 은행들에게서 불량한 모기지담보증권 1조 달러이상과 함께 국채 2조7천억 달러를 매입했다; 연준의 장부에 은행지급준비금의 형식으로 단순히 새 화폐를 만든 것이었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이를 따랐다. 일본은행은 은행장부에서 창출한 돈으로 일본의 연방부채의 거의 50퍼센트를 매입했다. 사실상,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명목화폐로 정부에 자금을 대는 19세기의 관행으로 회귀한 것이었다; 하지만 통화팽창율은 2퍼센트 아래로 머물러 있다. 그사이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통화공급을 1800퍼센트 늘렸고 통화팽창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정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단순한 “돈 찍어내기”를 할 수 없다는 통화주의자들의 오랜 신조는 이러한 극적인 최근 상황에 의해 반증되었다.

일본은행, 스위스중앙은행과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단순한 국채 매입에서 더 나아갔다. 오늘날 이들은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시장에 개입한다. 한국 중앙은행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 단순히 그들의 장부에서 창출한 자금을 이용하여 대기업인 재벌의 지배적인 지분을 매입하여 파괴시키고자 하는 벌처펀드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재벌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금융법 하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법에서는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직접 팔거나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대기업 재벌의 지배적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는 경제의 전망 좋은 고지를 다시금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금이 아닌 중앙은행이 창출한 자금으로 다시금 재벌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재벌이 연구와 개발, 장기적인 사회책임투자 및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승진을 위한 더 나은 기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역의 자금공급 해결책

기업의 일자리를 회피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종종 용자를 받을 수 없어 창업하는 길이 막힌다.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특히나 신용시장에서 불리하다. 상업적인 은행들은 이들에게 융자해주는 것은 아주 위험하며 이들은 법인화하여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모으기에는 너무 작다고 여긴다.

용자를 받고자 애를 쓰는 중소기업들은 필요시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있는 국유은행들을 통해 국내에서 자금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단순히 자본을 빌려주고 돈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회전하는 자금에 대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기에 그 자본을 이 용해 융자금의 수배를 거둘 수 있다. 10퍼센트의 자본수요에 대하여 은행은 지방대출자본의 10배를 창출할 수 있다.

신교수와 장교수는 국제무역 거래를 하는 대형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국제 규제기관들이 시행하는 더 엄격하고 제한적인 자본 및 보고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방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방은행들은 그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3년 그들의 저서에서 그들은 그 시대의 개혁조치들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과도하게 죽이는 정도까지 시스템의 금융적 위험도를 낮추는 것에 주로 맞춰져 있었다” 고 말했다. 딱 들어맞는 사례는 BIS 자기자본비율 증가시켜 개발도상국 은행들이 급속도로 자본기반을 확대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심각한 신용경색을 야기시켰다. 신교수와 장교수는 다음과 같이 책에서 주장했다:

BIS규칙이 국제기준인 것을 볼 때, 한국정부가 규칙 자체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국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규칙을 모든 국내 상업은행들에게 적용시키기 보다는 국제금융시장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는 은행들에게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노출이 높은 은행들에게만 이를 의무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행할 수 있다. 지방의 공공은행들에게 자본과 다른 규제사항들을 감해주어 운영권을 주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낮은 이자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 공공은행들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팔 수 있다. 오늘날 국민연금공단(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보유)을 비롯한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은 환경적, 사회적 및 지배구조적 고려사항을 통합하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격차문제를 다루는 사회책임투자금을 찾고 있다. 이러한 공익의 의무를 가진 공공 소유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이러한 투자에 적합할 수 있다.

지방의 공공은행들은 밀레니얼 세대 사업가들을 좋은 아이디어로 도울 수 있지만 자금공급의 부재로 인해 창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신중한 보증기준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지만; 몇몇 융자금들이 잘못된다 해도 은행이나 지역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 부실채권(NPL)으로 은행장부에 남아질 수도 있다. 잉글랜드 은행이 확인했듯이 융자금은 우선 단순히 은행 장부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탕감해 버리면 돈을 잃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폐업하게 된다면 해가 될 것이나 이는 하나의 회계적인 관례일 뿐이며 지방은행을 위해 그 지역의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사실 이는 중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관행이다. 중국의 국유은행들은 상당한 NPL을 장부에 떠안고 있지만 중국경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번영하고 있다.

NPL을 탕감해주거나 장부에 떠안은 것은 값지 않은 융자금으로부터의 화폐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이

거나 장부에 떠안는 것은 갚지 않은 융자금으로부터의 화폐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이 또한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 새 화폐의 정기적인 수혈은 사실상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빛과 갚은 돈 사이의 격차를 메꾸어 준다. 빛은 항상 공급되는 돈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돈이 존재하게 된 방식 때문이다. 은행은 이자가 아닌 원금을 만들어낸다. 이는 전형적으로 어딘가에서 더 많은 대출을 하는 누군가가 가져간다. 대출금으로만 들어지는 원금의 상당부분조차도 지역의 회전하는 화폐공급에 제공되지 못하고 투기적인 금융카지노, 역외 조세도피처나 단순히 금고나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간다. 빛은 갚지 못하게 될 때까지 증가하고 경기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저점으로 빠지게 된다. 고대의 지배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빚문제를 단순히 빚탕감을 해주는 주기적 채무기념일을 마련해서 해결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채권자가 정부가 아닌 개인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대안은 새로운 화폐를 정기적으로 수혈함으로써 빛과 지역의 회전하는 화폐공급 사이의 격차를 메꾸는 것이다. 부실채권들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될 수 있다.

규제기관들이 지방 공공은행들이 장부에 부실채권을 떠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융자금을 매입해서 그들의 장부로 옮길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크게 성공한 선례가 있다. 리처드 베르너 영국 교수의 2012년 논문에 따르면 영국은 1차 대전 초기에,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연준은 2008년 위기 이후에 (당시 시장성이 없는) “불량” 모기지담보증권을 파산한 미국은행들로부터 1조 달러 이상 사들였을 때 이러한 방법을 썼다. 참여하였다. 각각의 경우 모두 물가상승을 촉발하지 않고 성공적이었다.

이제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파괴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창의적인 자금공급을 위한 수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렸다. 여기에 제시한 문제들과 21세기에 대안이 될 자금공급 메커니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원한다면 엘렌 브라운의 달러(원제: The Web of Debt, 현재 한국에 번역본 판매중), The Public Bank Solution (2013), and Banking on the People: Democratizing Money in the Digital Age (2019); <http://EllenBrown.com>. 을 참고하시오

CHAPTER 4

주제강연

-
-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
아냐 링백(Ajna Lyngbaek)
 -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델라 던컨(Della Duncan)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

아냐링백

(Anja Lyngbaek)

건강한 음식과 농업은 우리의 생존과 웰빙의 열쇠다. 이것은 땅의 생명력을 잇고 식품 시스템의 취약성마저 잊어버린 고도로 도시화되고 디지털화 된 세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식품과 농업환경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량 구입에 사용된 지출 대비 사회가 건강, 환경 및 경제적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은 두 배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총 5.7조 달러에 달하는 특히 동 비용의 절반가량이 현대식 식품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 유한한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시키며, 자연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데 소모되고 있다"

사실 전혀 놀랄 것이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식량과 농업의 산업화와 기업화 현상을 목격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은 10개 기업에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오직 3개의 대기업만이 전 세계 종자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규모의 효율성"에 기인하여 이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보조금,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대기업에 부여된 혜택들이 드러나면서, 효율성에 대한 논리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것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패턴이며, 중소기업과 지역 기업은 과잉 규제와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시장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 규모의 다양한 농장 시스템에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대규모 단일재배 시스템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소매업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독립 상점은 거대한 체인 점포로 대체되었다.

정책이 불러온 변화는 환경적 재해와 기후 위기로 우리를 몰아갔다. 우리의 건강을 훼손하고, 토지 기반 산업 및 식량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생계를 박탈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주민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고 생태학적 한계 지역 내에서 식품 생산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반(反)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로컬푸드 이니셔티브(지역사회가 지지하는 농업, 농부 직거래 장터, 지역 농부에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신규 농부들에게 토지를 지원하는 토지 신탁, 로컬푸드 상점, 로컬푸드 기업에 대한 풀뿌리 투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재생농업(regenerative farming) 과 신 지역기반 경제모델을 위한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2017년 전주에서 열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참석할 당시 나는 고무적인 전 세계의 로컬푸드 이니셔티브 사례들을 공유한 바 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신 이니셔티브가 등장했다. 로컬퓨처스(Local Futures), 플래닛로컬(Planet Loca) 시리즈 등을 한 번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지역 시장에 집중한 재생농업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저버린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식품 생산과 관련된 나쁜 소식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 글로벌 종자 품종의 75 %가 손실되었고, 주요 화분(花粉) 매개자를 포함하여 생태계와 식량 생산을 뒷받침하는 곤충의 40 %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1/3은 농업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세계화된 식량 시스템으로 인해 과도한 운송거리, 식품 포장 및 냉장으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은 제외한 값이다.

인류와 행성을 위해 우리의 식량 시스템을 되찾거나 변화시키 않고 지구와 인류의 건강을 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현재 마련되고 있는 다양한 좋은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농업과 로컬푸드 시스템에 찬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전 세계의 진보적 정책과 정책적 전략의 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불량식품 금지법 제정

불량식품은 우리의 식생활에 침범하여 비만, 당뇨병을 비롯하여 심장 질환 및 암 등의 위협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불량식품의 광고 및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 런던, 인도, 바누아투 남태평양 섬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런던, 대중교통에서 불량식품 광고 금지

아동 비만(10-11세의 40%가 비만)과 당뇨병(아동 7,000여명)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런던시 지방정부는 식품 광고와 아동 비만 사이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2018년 영국 암연구소가 실시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불량식품 광고에 노출된 젊은 이들이 비만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런던의 대중교통 노선은 매일 3천만 회 운행되기 때문에 불량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런던 국민의 82%가 동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학교에서 불량식품 판매 금지

2015년 델리 고등법원은 학교 내부 및 인근 지역에서 감자칩, 튀긴 음식, 가당 음료 등 지방, 소금, 설탕이 많은 식품의 판매 제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법원의 명령은 교내 및 학교 인근에서 불량식품 판매를 막고자 하는 공익 청원에 의한 것으로, 법원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이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의 주요 원칙은 ‘균형 잡힌 신선하고 전통적인 음식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학교는 지방, 소금, 설탕이 많은 음식을 홍보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은 음식선택에 있어 다소 미숙하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누아투, 조종사는 수입 불량식품금지

2017년, 바누아투 남태평양 섬 체인의 북부에 위치한 토르바 주는 자국민의 건강과 웰빙을 자국 내에서 생산한 유기농 먹거리를 통해 지켜나가기위해 불량식품의 수입을 제한했다. 토르바의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관광위원회 루크 디니(Luc Dini)회장은 토르바의 인구 10,000여명(대부분 자급농)이 전통적인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양식 식단을 도입한 지방에서는 현대식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르바의 수입제한 조치는 관광객용 방갈로와 게스트 하우스를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대신 이곳에서는 현지에서 재배된 유기농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포트 빌라 소재의 중앙 정부는 동 정책의 진행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토르바는 바누아투 최초의 청정 유기농 지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몇 년 내에 외국 식품의 수입금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량 주권 및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입법

메인주(州) 식량 주권법

2017년, 미국 메인주정부는 자국 최초로 ‘메인주 식량 주권 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은 과거 연방 및 주 규정으로 손발이 묶여있었던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로컬푸드 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메인주의 지방 자치 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실시하는 소규모 및 지역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허가 및 검사 등을 면제함으로써 불공정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이 법은 식량 자급자족을 장려하고 지역에서 통제하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 및 지역민의 건강과 웰빙 강화 정책을 지원한다. 제정 이후 1년 만에, 메인 주에서 40개 이상의 식량 주권 조례가 통과되어, 소규모 농민 및 생산자를 위해 수많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였다.

온타리오주(州) 로컬푸드법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지 생산자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로컬푸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로컬푸드 전략을 수립하였다.

- 매년 6월에 열리는 로컬푸드주간(Local Food Week)
- 지역 사회 푸드뱅크에 농산물을 기부하는 농민에게 세금 공제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 온타리오 주 내 최고의 상점 홍보 및 상품 진열을 보여준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소매업 어워드(Retailer Award)**
- 로컬푸드 리더에게 수여하는 인증서, **로컬푸드 커뮤니티 챔피언스(Local Food Community Champions)**. 수여 후 지역언론을 통해 수상자 알림
- 온타리오 식품 생산자를 식별하기 쉽게 개발된 **푸드랜드 온타리오 로고(Foodland Ontario logo)**
- 라디오, TV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역/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 캠페인**
- 젊은이들이 식량과 농업에 관여하도록 장려하는 **식량 이해력 증진 프로그램**.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키트 제공

온타리오 주정부는 향후 3년 동안 로컬푸드전략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활용할 재원으로, 600만 달러의 로컬푸드 투자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로컬푸드 챔피언스 등 약 80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 **파머스 마켓 온타리오 (Farmers' Markets Ontario, FMO)**-온타리오의 농산물 생산자 시장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주(州) 차원의 협회로 소비자가 농민으로부터 직접 재배한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총 182개의 마켓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 **온타리오 팜 프레시 마케팅 협회(Ontario Farm Fresh Marketing Association)**-직접 수확하기 및 농장 내 과일 야채 마켓과 같은 농장 직접 판매를 육성. 약 300명의 농부들이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 **프레시 프롬 더 팜(Fresh from the Farm)**-농장과 어린이 및 청소년을 연계 프로그램. 학교는 지역 내에서 생산한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여 기금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에 시작된 이후 총 665개교가 참여했으며, 학부형들은 약 170만 달러 상당의 현지 농산물을 구입했다.
- **로컬라인 주식회사(Local Line Incorporated)**-레스토랑 및 기타 사업체들이 채소, 곡물, 육류, 유제품 등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주문을 하지 않고도 현지 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필라델피아의 로컬푸드 목표 및 로컬푸드 이니셔티브

2009년 필라델피아 시장실은 필라델피아를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인 '그린웍스 필라델피아'(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를 발표했다. 동 계획의 목표는 로컬푸드 접근성 향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시민 75%를 위한 로컬푸드를 10분 내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권장 조치로는 시 소유의 유희 경작지를 이용해 공용 밭, 도시 농장 및 농장 판매대를 만들고, 식량 생산을 위한 신규 밭, 농장, 생산자 직판 마켓을 개발하며, 농민들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품을 지역 상점에 유통시키며, 식량관련 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2011년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총 4개의 농산물 직판장을 열었고, 6개 직판장이 사업 개시를 준비중이며, 500개 이상의 기존 점포가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매장에 도입하여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 지역 내 유희토지는 마라단 농장이라는 이름의 유기농 농장으로 바뀌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했다. 짐 케니(Jim Kenney) 시장실 산하 지속가능성본부(Office For Sustainability)가 발행한 2016년 그린웍스 필라델피아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정부가 하는 일과 개인, 지역 사회 및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영국의 국민 식량 정책(PEOPLE'S FOOD POLICY)

영국에서는 80개 이상의 식품 및 농업 단체가 건강하고 공정한 국가 식량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풀뿌리 단체, NGO, 노동 조합, 지역사회 프로젝트, 중소기업 및 개인과 함께 1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협의를 실시했다.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거버넌스, 식량생산, 보건, 토지, 노동, 환경, 지식 및 기술, 무역 및 금융을 다루며 심층 분석 및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국민 식량 정책은 기존 정책이 크게 실패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영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식량과 농업 부문을 흡수하고 있다. 33,000개 이상의 중소 규모 농장은 지난 10년 동안 기업식 영농에 의해 내몰렸으며, 기초식품의 가격이 임금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품질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공중 보건, 독립 생산자 및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국민 식량 정책을 이끈 상기 연합체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또한 EU의) 대응은 기껏해야 단편적인 것으로, 식량공급불안 정도에 대응하는 수준이며 약 8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경제적으로 식량을 구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그 결과 '푸드뱅크'에 대한 의존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최근 보고서 '미래사회 구축(Building the Future)'에 따르면 영국 내 15세 미만 어린이 5명 중 1명은 식량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80개 단체의 연합은 정치인들에게 소득, 지위 또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품질이 좋은 충분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식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복지, 환경의 건강, 그리고 미래 세대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진보적인 국가 식량 정책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스코틀랜드, 굿푸드네이션(Good Food Nation)

영국의 국민 정책 보고서는 일부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매일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하고 구매하고 요리하고 판매하고 섭취하는 식품에 자부심을 느끼고 혜택을 얻는다'는 비전을 담은 국가 식음료 정책 지침을 통과시켰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개월간 시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요청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시민참여를 촉구했고 이는 매우 면밀하고 깊이있는 연구로 이어졌다. 이들 중 하나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35개의 그룹들이 더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스코틀랜드 환경 링크(Scottish Environment LINK)’ 다. 이들의 활동 결과는 2020년 통과될 예정인 굿푸드네이션 법안에 적용될 것이다.

공공 조달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 중 하나는 공공 조달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 세계 정부는 공공 기관의 식량 구매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 과정에서 식품 선택 기준은 가격 경쟁력과 구매 편의성이며, 식품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고려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공중 보건, 환경 보호, 식량 안보, 사회 정의, 동물 복지, 일자리 및 건강한 지역 경제는 공공 조달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다. 그 결과, 대규모 기업식 영농을 통해 생산된 가공식품을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대형 유통기업의 채널을 통해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고, 그렇게 구매한 식품은 병원, 학교, 노인 요양시설 및 기타 공공 기관으로 보내져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 돈이 건강한 식량과 농업, 지역 일자리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미국, 좋은 음식 구매 프로그램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공공 조달 정책을 재고하고 있다. 그 예로 로스앤젤레스 식품 정책 의회가 개발하고 로스앤젤레스 시 지방정부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에서 시험한 미국의 좋은 음식 구매 프로그램이 있다. 시와 교육구는 공공 조달을 통해 로컬상품 구매, 노동자의 권리, 동물 복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영양가 높은 식품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동 프로그램에서 로컬이란 로스앤젤레스에서 200마일 이내에 생산되는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위원회는 또한 교육구가 농산물을 구입 시 5%는 중소 규모의 농장에서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발이긴 하지만, 대규모 기업형 농장에 비해 지역의 중소규모 농장들이 제공하는 혜택(높은 다양성 및 단위 토지당 일자리 제공 등)에 비하면 5%는 사실 아주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레스 좋은 음식 구매 프로그램은 하루 750,000인분의 식사에 영향을 미치며 로스앤젤레스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공급업체는 수백만 달러의 혜택을 얻었다. 예를 들어, 연간 2천만 달러 규모로 배정된 과일 및 채소 구매 예산 중, 지역에서 생산한 과일과 채소의 구매 비중은 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2년 만에 예산의 9% 수준에서 75%까지 크게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교육구는 전체 1억 2,500만 달러의 식품 구매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생산 농산물에 지출한다. 결과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식품 가공, 제조 및 유통부문 등에서 급여 수준이 좋은 새로운 일자리 150여개가 창출되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2015년, 동 프로그램을 다른 주로 확장하기 위해 좋은 음식 구매센터가 만들어졌고, 2016년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오클랜드, 시카고, 쿡 카운티, 워싱턴 DC, 신시내티, 보스턴, 오스틴 등지에서 좋은 음식 구매 프로그램을 공식 채택하였다.

보스턴의 좋은 식품 구매 정책을 통해 거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갔던 수백만 달러는 지역 생산자에게 지불할 수 있고, 영양, 환경적 지속 가능성, 동물 복지를 개선하며 수십만 식량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스턴 좋은 음식 구매 조례는 가장 명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렉사 카츠마르스키(Alexa Kaczmarek)는 "보스턴은 학교를 비롯하여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밀라노, 로컬 유기농 식품에 초점을 둔 공공 조달 정책

공공 조달의 또 다른 예는 밀라노다. 밀라노의 경우 가격보다 건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공공조달 정책은 품질과 가격의 비율로 70:30이라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밀라노 지방정부 소유의 기업 '밀라노 리스토라지오네'는 밀라노 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 학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이동급식소 등을 위해 하루에 약 8만인분을 준비한다. 보육시설에 공급하는 음식은 100% 유기농이며 기타 시설의 경우 66%를 유기농 식품으로 준비하고, 이들의 25%는 지역 내에서 생산 한 것으로, 57%는 이동거리가 짧은 공급망으로 조달한다. 또한 수입 농산품은 공정 무역으로 조달된다.

농장에서 학교까지

미국, 팜투스쿨 프로그램

미국의 팜투스쿨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유제품, 과일, 채소, 계란, 고기, 콩 등의 식품을 신선한 로컬생산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신선한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농민들은 지역마켓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많은 학교가 텃밭을 보유하여 학생들이 직접 재배에 참여할 수 있고, 농업, 식품, 건강 또는 영양 및 농장 방문 등 추가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은 1995년 세계적인 레스토랑 셰즈 파니즈(Chez Panizze) 경영자이자 식품활동가 및 요리사인 앨리스 워터스(Alice Waters)에 의해 시작된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에더블 교육(The Edible Schoolyard)의 영향을 받았다. 워터스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농산물의 성장에 대해 가르치고 건강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른 몇 개의 프로젝트들이 함께 건강한 식품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학교에 건강한 식품과 로컬푸드를 조달하도록 법안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팜투스쿨'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들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2000년, 미국 농무성(USDA)은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이는 2004년 아동영양법의 일환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당시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학교는 22개 주 약 400여 개소였다. 2008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입법 변화가 있었다. 국가 농장법안은 학교 식품서비스 관리자들이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 대신) 로컬푸드 구매를 우선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이는 팜투스쿨 이니셔티브에 거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며, 2009년까지 약 2000여 개소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0년 결식아동지원법(Healthy Hunger-Free Kids Act)을 통해 팜투스쿨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서 또한 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1997년 당시 6개교에 불과하던 프로그램이 2014년 5,254개교로 증가하게 되었다. 2015년 연방 전체를 대상으로 팜투스쿨법(Farm to School Act)이 통과되면서 향후 동 프로그램이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팜투스쿨 프로그램은 모든 식품을 로컬푸드만으로 혹은 유기농만으로 조달하지는 않는다. 성골사례 중 하나인 아리조나의 경우, 교육구 전체의 식품 조달분 중 77%가 동지역 생산품이었다(2012). 포틀랜드는 학교에서 구매하는 식품의 30%가 로컬푸드였으며, 통곡물 빵은 100% 지역 내에서 조달했다. 캘리포니아 오كل랜드는 학교텃밭에서 학교 식당으로 농산물을 조달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80개 이상의 학교에서 캘리포니아 생산 식품 100%로 만든 음식을 공급하고 있다.

위 내용은 건강한 장소기반 식품공급과 농경 시스템의 확장을 위한 법안 변화 및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의 팜투스쿨 프로그램

미국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내 생산 농산품에서 확장하여 소규모 생산자 및 유기농 생산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기도 한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로마 학교 급식 2001년 이래로 로마에서는 점차적으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보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매일 144,000 인분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중 92%는 기초적인 재료부터 지역에서 공급하였고, 69%는 유기농 식품을 포함한다. 로마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과일과 채소의 경우 수확에서 섭취까지 3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신선도를 보장하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산 구입은 에티오피아,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세네갈의 지역 학교와 소규모 생산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범 단계 동안 420개 학교의 12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위해 1,000톤 이상의 현지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지역 농민들은 생산성을 100% 이상 향상시켰으며, 학교는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40%를 구매했다.

재생농업을 위한 입법

기업형 농장 금지

2018년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헌팅턴 카운티의 토드 타운십(Todd Township)은 기업형 농업으로 인해 주민의 식수 공급 위협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 가축의 비인도적 도축 등을 금지하기 위한 진보적 법안인 지역사회 권리장전 조례를 통과시켰다. 동 조례는 가축의 소유자가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농장 수익의 대부분이 마을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권 외부로 자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새는 양동이’ 신드롬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지주, 기업형 영농, 공장식 축산업 등의 문제를 다룬다.

타운십 주민들은 ‘지역사회 환경을 위한 법적보호기금(CELDF, 비영리 공익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여 마을의 식수 공급, 환경, 경관 및 가족 농경 문화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CELDF는 세일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파쇄법, 농약 살포 및 기타 유해한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 내 약 200 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자신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 수준의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4개 주의 시민들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권리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축산 및 기후 변화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공장식 축산업이 일반적 형태다. 미국 개발국(United States Development Agency, USDA)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 전역의 공장식 농장에서 2,850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가축단위 사육의 평균 규모는 돼지6,100, 육계166,000, 산란계 695,000, 젖소 2,000, 육우 4,300이었으나, 많은 공장식 농장은 이를 초과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공장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동물 복지 수준이 낮다. 또한, 이들은 기업형 농수산 공급업체로부터 원료를 입고 받아 국내외 대형 소매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축 사육(특히 소)이 아니라 공장식 축산업이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유기농의 소규모 농장에 있는 가축들이 생산한 분뇨가 경작을 위해 비료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게 공장식 축산업은 경작과 분리된 단일재배로, 분뇨는 폐기물이 되고 오염의 근원의 근원일 뿐이다. 따라서 기후 논쟁에서 가축과 육류생산 및 소비에 책임을 지우는 대신 공장식 축산업을 지적할 때다.

인도 시킴주(Sikkim), 세계 최초 100% 유기농 달성지역

시킴 주는 인도의 히말라야에 위치여 부탄, 티베트, 네팔과 인접한 지역이다. 2003년 파완 챔링(Pawan Chamling) 국무장관은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시킴을 유기농 지역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듬해 ‘유기농 재배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화학 비료와 농약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연간 합성물 첨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10% 감소)하고 건강한 토양 관리를 위해 연간 4만회의 토양 시험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법 교육 자금이 투입되었다. 교육에는 100개 이상의 마을에서 약 10,000명의 농민이 참가했다.

2010년에는 주 전체를 유기농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계획인 '시킴 유기농 미션(Sikkim Organic Mission)'이 출범했다. 유기농 인증이 변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예산의 80%가 투입되었다. 동시에 농부들은 유기농 종자를 공급받았고, 유기농 종자 생산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2015년 시킴주의 모든 농지가 100% 유기농으로 선포되었다. 이를 통해 농민 66,0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Sikkim의 접근법은 유기농 생산방식 이외에도, 소비, 시장확장, 보건, 교육, 농촌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기농 전략에는 지역, 전국, 국제 시장을 순차적으로 타겟팅하는 '시킴 유기농 브랜드' 또한 포함되어 있다. 2012~2016년 기간 동안 시킴을 방문한 인도 관광객의 수가 40% 증가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두 배로 늘어났다. 이것은 시킴의 경제에 긍정적인 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시킴의 식품 시스템에 부담을 보태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킴이 유기농을 향해 향해하기 시작할 때, 주정부는 젊은이들이 농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학교 교육과정과 직업학교에 유기농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유기농 훈련센터 또한 설립하였다. 오늘날 시킴은 인도에서 젊은이들이 농업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2016년 국립 유기농 연구소(National Organic Farming Research Institute)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시킴뿐만 아니라 인도의 북동부 산간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유기농 생산자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유기농로의 전환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주 정부가 유기농 비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거나, 유기농 농산물 시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결과, 수율이 너무 낮고, 유기농 제품의 프리미엄 가격이 부적절한 수준이다. 시킴의 유기농 생산자 중 다수가 서벵골 지역을 통해 수입한 비 유기농 작물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경쟁압박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3월, 26개(비유기농) 농산물 및 원예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시위가 있었고, 시킴지역이 (특히 관광 시즌에)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초기 문제점들이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킴의 종합적이고 선구적인 유기농 식품 정책은 2018년 국제적 권위가 있는 '미래 정책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바이오 지역

바이오/에코 지역은 농부, 시민, NGO 관광 사업자 및 공공 기관이 유기농 생산 및 소비를 기반으로 토지의 지속가능한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지리적 개념이다. 바이오 지역은 유통거리가 짧은 로컬푸드체인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산자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구매 그룹, 지역 공공기관의 유기농 농산물 조달 등 직접적인 로컬 마케팅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바이오 지역은 식량과 농업의 세계화와 기업화, 농촌의 생계 손실, 농촌 포기 현상, 생물 다양성, 문화 및 전해 내려온 관련 지식의 손실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되었다.

이탈리아 실렌토 바이오 지구

최초의 바이오 지구 재단은 2004년 이탈리아 실렌토에서 시작되었다. 재단은 로컬마케팅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기농 농장, 생산자 협회, 기관, 식품접객업 종사자, 생태관광 사업자 및 소비자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캄파니아 지역이 인근 3,000 평방킬로미터 내에서 농업, 환경, 사회, 생태 관광, 음식 및 와인 등이 포함된 첫번째 유럽 다중직업 바이오 지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2009년 당시, 실렌토는 공식적으로 바이오 지구로 첫 발을 내딛었다. 동 지구는 32개의 지방자치단체, 합계 2,300 헥타르의 면적을 보유한 450개의 유기농 농장과 다양한 식당 및 관광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다. 실렌토 바이오 지구는 배울 점이 많은 모범사례다.

2011년, 비영리 단체인 ‘바이오 디스트레토 실렌토(Bio-distretto Cilento)’가 설립되어 이탈리아 유기농 농업 협회(AIAB)가 조직화되었으며, 그 이후 바이오 지구 컨셉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이탈리아에만 32개의 바이오 지구가 있다. 바이오 지구의 국제 네트워크(IN.N.E.R)이 설립되면서 동 개념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일부지역에 ‘수출’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중국, 알바니아, 세네갈, 모로코, 브라질, 일본에서도 바이오 지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바이오 지역 및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바이오 지역 구축은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7월,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관련국 국제 포럼은 포르투갈에서 ‘생태지역에 대한 세계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틀 내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방법을 구축하고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실천 및 정책

다음은 2015년 밀라노 도시 식량 정책 협정 보고서에 언급된 지속 가능한 도시 식량 정책의 사례다. 전 세계 다양한 도시의 시장들이 동 협정에 서명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식량 안보, 기아, 비만, 쓰레기 감소 및 청소년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행동 계획 개발을 공약했다.

물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농

파리시 당국과 파리 식수 위원회 오 드 파리(Eau de Paris)는 깨끗한 식수와 건강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는 방법임. 육우 한 마리는 젖소 약 2/3마리나, 돼지 8마리, 닭 400마리에 해당함

Cities and Circular Economies for Food (2019)

Ellen MacArthur Foundation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assets/downloads/Cities-and-Circular-Economy-for-Food_280119.pdf

Agropoly: a handful of corporations control the world food production, 2013

EcoNexus and Berne Declaration

https://www.econexus.info/sites/econexus/files/Agropoly_Econexus_BerneDeclaration.pdf

가. The world's top 10 seed companies: who owns Nature? 31 January, 2009

GM Watch

<https://www.gmwatch.org/en/gm-firms/10558-the-worlds-top-ten-seed-companies-who-owns-nature>.

Planet Local Short Film Series on Food and Farming

<https://www.localfutures.org/programs/global-to-local/planet-local/short-film-series-food-farming/>

나. Small farmers hold the key to seed diversity: researchers, 16 February, 2015

3.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food-aid-climate/small-farmers-hold-the-key-to-seed-diversity-researchers-idUSKBN0LK1PO20150216>

Damian Carrington, 10 February, 2019

Plummeting insect numbers 'threaten collapse of natur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feb/10/plummeting-insect-numbers-threaten-collapse-of-nature>

Natasha Gilbert, 31 October 2012

One-third of our greenhouse gas emissions come from agriculture

Nature, International Weekly Journal of Science

<https://www.nature.com/news/one-third-of-our-greenhouse-gas-emissions-come-from-agriculture-1.11708>

London Government, UK

"TfL junk food ads ban will tackle child obesity "

<https://www.london.gov.uk/what-we-do/business-and-economy/food/tfl-junk-food-ads-ban-will-tackle-child-obesity>

(1) Down to Earth, 4 July 2015

(2) Delhi High Court orders curb on junk food sale in schools across India.

<https://www.downtoearth.org.in/news/delhi-high-court-orders-curb-on-junk-food-sale-in-schools-across-india-49038>

Eleanor Ainge Roy, 3 Feb 2017

"South Pacific islands ban western junk food and go organic"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feb/03/south-pacific-islands-vanuatu-torba-ban-western-junk-food-health-organic>

Jula Bayly, 26 November, 2018

"One Year After Becoming Law, Food Sovereignty in Maine has Taken Hold,"

Bangor Daily News

text from "The Maine Food Sovereignty Act," Maine Legislature, 2017, c. 314, § 1.

<https://localfoodrules.org/ordinance-template/>

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ntario's Local Food Report 2016/2017 Edition: Tastes of Home

http://www.omafr.gov.on.ca/english/about/local_food_rpt17.htm#OntariosLocalFoodStrategy

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나. The Faces of Ontario Local Food: 2018-2019 Local Food Report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http://www.omafra.gov.on.ca/english/about/local_food_rpt18.htm

Greenworks, 2011

City of Philadelphia

https://archive.epa.gov/international/jius/web/pdf/greenworks_prgssrprt_2011.pdf

Greenworks – a vision for a sustainable Philadelphia, 2016

City of Philadelphia, Office for Sustainability

Mayor Kim Jenney

https://www.phila.gov/media/20161101174249/2016-Greenworks-Vision_Office-of-Sustainability.pdf

Butterly D, Fitzpatrick I, et al. June 2017

A Peoples Food Policy – Transforming our Food System,

<https://drive.google.com/file/d/0B00GeyvZdIaJQXF5X0tpUHB4Yjg/view>

Scottish Government

Good Food Nation Policy

<https://www.gov.scot/policies/food-and-drink/good-food-nation/>

Scottish Environment LINK Food and Farming, 17 April 2019

Response to Good Food Nation proposals for Legislation

LINK Consultation Response March 2019

<http://www.scotlink.org/wp/files/documents/LINK-Good-Food-Nation-Consultation-response-April-2019.pdf>

1) Scottish Government commits to introducing the Good Food Nation Bill in the next year

<http://www.nourishscotland.org/campaigns/good-food-nation-bill/>

가. The Los Angeles Food Policy Council

<https://www.goodfoodla.org/>

Teresa Watanabe, 24 November, 2013

L.A. Unified's local food push is healthy for area economy too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local/la-xpm-2013-nov-24-la-me-laupd-food-20131124-story.html>

(1) Good Food Purchasing Program explored in multiple cities

(2) <https://goodfoodpurchasing.org/stories/>

Andrea Germanos, 20 March, 2019

Boston City Council Passes Groundbreaking Food Justice Ordinance

Commondreams

<https://www.commondreams.org/news/2019/03/20/boston-city-council-passes-groundbreaking-food-justice-ordinance>

<https://edibleschoolyard.org/>

<https://en.wikipedia.org/wiki/Farm-to-school>

Morgan Bulge, July 3, 2014

10 Successful Farm-to-School Programs Across the U.S.A.

5. Seedstock

<http://seedstock.com/2014/07/03/10-successful-farm-to-school-programs-across-the-u-s-a/>

Sustainable food procurement for Schools in Rome

Green Public Procurement

https://ec.europa.eu/environment/gpp/pdf/news_alert/Issue14_Case_Study34_Rome_food.pdf

Scaling up purchase from African for Africa, 2014

Fao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http://www.fao.org/3/a-i4291e.pdf>

6. Press Release: Pennsylvania Township Bans Corporate Industrial Farming, Jul 10, 2018

7. Community Environmental Legal Defense Fund

<https://celdf.org/2018/07/press-release-pennsylvania-township-bans-corporate-industrial-farming/>

<https://celdf.org/how-we-work/>

8. Factory Farm Nation: 2015 Edition

9. Food and Water Watch

10. <https://www.foodandwaterwatch.org/insight/factory-farm-nation-2015-edition>

Organic without Boundaries, October 17, 2018

Sikkim – The First 100% Organic State in the World!

<https://www.organicwithoutboundaries.bio/2018/10/17/sikkim/>

Marc Brazeau, August 15, 2018

How is India's organic-only farming experiment in Sikkim going? Peering past the propaganda, not so sustainably

<https://geneticliteracyproject.org/2018/08/15/how-is-indias-organic-only-farming-experiment-in-sikkim-going-peering-past-the-propaganda-not-so-sustainably/>

The Cilento Bio-District

https://kipschool.org/usr_files/generic_pdf/BrochureCilento-ENG.pdf

11. Bio-district/Eco-Region's Portal

<http://www.ecoregion.info/>

12. 17-21 July 2019 – Idanha a Nova – Portugal: Eco-Regions World Congress at FISAS

<http://www.ecoregion.info/2019/05/10/18-of-july-2019international-congress-of-eco-regions/>

Thomas Forster, Florence Egal, Henk Renting, Marielle Dubbeling and Arthur Getz (ed) 2015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Selected Good Practices from Cities

Fondazione Giangiacomo Feltrinelli

Fondazione Giangiacomo Feltrinelli

https://www.ruaf.org/sites/default/files/MUFPP_SelectedGoodPracticesfromCities.pdf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약력:

델라 던컨 (Della Duncan)

www.dellazduncan.com/ / www.upstreampodcast.org / della@upstreampodcast.org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대한민국 전주)

델라 던컨은 개인 및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생동감 있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던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본거지로 하여, 런던 경제 학교 산하 국제 불평등 연구소 소속 대서양지부 사회적·경제적 공평함 부문 연구원, 라이트 라이블리후드 재단(Right Livelihood) 소속 코치, 팟캐스트 채널 업스트림(Upstream) 진행자, 유라시아 배움 연구소(Eurasia Learning Institute) 소속 국민 총 행복지수 트레이너, 워크 댓 리커넥츠 네트워크(Work that Reconnects) 소속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파이프 엘리먼트스 댄스(Five Elements Dance) 소속 강사, 레니게이드 경제학 컨설턴트(Renegade Economics Consultant)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던컨은 현재 제임스 바라즈(James Baraz)와 함께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다. 던컨은 슈마허 칼리지(Schumacher College)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국제관계 및 사회학 학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나로파 대학교의 리더십과정 졸업(Davis)하고, 조애나 메이시의 워크 댓 리커넥츠(Work that Reconnects) 심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바 있다.

개요

대한민국 전주의 지방정부와 지역 공동체 리더가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작업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운동 및 이니셔티브의 성공사례와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시(市)와 샌프란시스코만(灣) 인근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동 지역은 포용적이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곳으로, 반문화 운동의 온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안정적인 로컬푸드 공급망, 풍부한 문화사, 독특한 자연 풍광과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은 동 지역의 노숙자 인구수, 미국 내에서도 비싼 축에 속하는 주거비, 직업군 간의 양극화된 소득 수준 차이에 놀라곤 한다.

동 지역은 불평등이 산재하고, 사회분열을 유발하는 요소 또한 많으나, 기업 규제완화, 신자유주의 및 무정부자본주의를 근간으로 발생한 ‘세계화’ 흐름 이후, 지역 특화되어 있고 연대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지역 내부적 불화 요인을 잠재우고 있다. 지역 운동가, 지방정부, 다양한 산업 및 지역의 유관기관 및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에너지, 은행, 식량

생산 및 유통, 첨단기술 등 다양한 산업과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공동체 소유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프로젝트

‘민중의 힘 태양광 협동조합(People Power Solar Cooperative)’은 캘리포니아주(州) 최초의 지역 공동체 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샌프란시스코만 동쪽 연안 도시 오클랜드에 소재한 동 조합은 2019년에 활동을 개시하여 지역공동체 조합원으로부터 소규모 투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조합은 미국 전력업체 PG&E사(社)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체 내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고 프로젝트 재원마련에 기여한 조합원에게는 배당금도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후변화로 유발된 사상 최악의 가뭄과 산불을 겪은 이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왔으나,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금번 프로젝트의 경우 더욱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공동체의 에너지 공유에 주목하고 있다. 조합은 각 공동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동 프로젝트는 지역 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이기도 한데, 이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과 다르게, 임차인들 또한 녹색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고 에너지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힘 태양광 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역 사회활동가 사무소에 최초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

조합은 다른 공동체들이 자신만의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내부 규칙과 발생 행위를 공개하고 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역 내 공동체 중 한 곳에서 민중의 힘 태양광 협동조합의 멘토링을 받으며 선례를 이어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미국 전역을 보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다. 단,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메사추세츠, 콜로라도 주(州) 등지에서 새로운 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임대한다거나, 사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보다는 태양광 패널 발전단지에서 일부

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대권주자들이 지지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대두된 이후 대중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도입된다면 민중의 힘 태양광 협동조합의 것과 같은 신개념 에너지 프로그램들이 민간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태양광 패널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이니셔티브

기업형 은행은 가장 은밀한 주체 중 하나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기업형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공공의 자금을 운용하는 민간 은행의 중앙집중식 처리방식은 투명하지도 신뢰할 만 하지도 않다. 또한 샌프란시스코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로, 기업형 은행은 도시의 재원을 활용하여 화석연료, 무기제조, 민영 교도소, 강제 수용소, 악성 학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등의 산업에 대출지원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형 은행과 거래를 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의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새어나가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해야 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형 은행은 지역기반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자금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은행의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이니셔티브는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성이 있는(resilient) 지역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도시 정부, 주정부, 중앙정부와 같은 공공 단체 소유의 은행으로, 샌프란시스코가 공공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지역에서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투명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은행에 공적자금을 맡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적정 가격의 주택자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역량 확대를 위한 자금, 소규모 지역사업체 지원자금, 저금리 학자금 등 샌프란시스코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은행은 공동체 재투자를 위한 재원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재원을 분배하고 도시의 재원을 지키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집회 중인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연합 회원들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캠페인은 주민협회, 노동 조합, 시민단체 등을 아우른 연합체가 주도한다. 연합체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와 함께 2020년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은행은 샌프란시스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전세계 500개 이상의 공공은행이 출범하여 36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특히 노스다코다 공공은행은 14년 연속 수익을 내고 있으며, 2008년 경제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기준 총 5,800만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수익을 낸 은행은 노스다코다 공공은행이 유일하다. 노스다코다 은행은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며 신용조합에 대한 대출규모를 늘려왔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조합들이 노스다코다 주에 포진해 있다.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도시나 미국정부도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공공은행 연합(California Public Banking Alliance)에서 주의회에 지방정부의 공공은행 출범을 지원하는 법안(AB 857)을 상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은행 설립운동은 지방정부가 기업권력으로부터 자금을 되찾아 오고, 공공의 자금을 지역 공동체의 손에 되돌려 주는 등 지역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로컬푸드 공급망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탄탄한 로컬푸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소규모 식당이더라도, 제철 식재료를 인근의 지속 가능한 독립형 농장에서 공급받는 팜투테이블(farm-to-table) 식당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중 버클리(샌프란시스코만 동쪽 연안 오كل랜드시 인근 도시)에 위치한 셰즈 파니스가 가장 유명하다. 셰즈 파니스는 작가이자 식량 관련 사회활동가인 앨리스 워터스(Alice Waters)가 1971년 개업한 식당으로, '캘리포니아식 요리법으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데, 같은 지역내의 농부, 목장주, 낙동장주 등 직접적인 공급망을 활용하여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셰즈 파니스 레스토랑(Chez Panisse)

도시의 소비자들과 인근 교외의 생산자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분점 혹은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그 아일랜드 오이스터 컴퍼니(Hog Island Oyster Company)는 토말스만(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소재)에서 굴을 양식하며 식당도 운영한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번화가에 위치한 엠바카데로 페리빌딩에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페리빌딩에는 카우걸 크리머리(Cow Girl Creamery)도 위치해 있는데, 동 사업체는 마린 카운티에 본점을 두고 치즈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지역의 가족농장에서 키우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와 달걀을 판매하는 마린선팜즈(Marin Sun Farms)는 마린 카운티 소재로, 동물들을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육하고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마린선팜즈는 마린 카운티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오클랜드에서 식육점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은 교외에서 하고 판매는 도심지에서 하도록 분리한 새로운 판매방식은 도시 거주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품질을 가진 식료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신이 먹는 음식을 생산한 교외의 생산자들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게 한다. 또한 도시의 소비자들이 플래그십 농장이나 식당의 본점이 위치한 마을을 방문할 수 있게 유인하는 계기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로컬푸드 공급망의 또다른 사례는 ‘수제맥주 운동’으로, 이 또한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모델이다. 크래프트폭스, 리치몬드 리퍼블릭 드래프트 하우스, 오션에일 하우스, 줌프앤스위그, 올드데빌문, 다크호스인 등 많은 술집과 식당은 지역 내 100개소가 넘는 독립형 맥주 양조장에서 맥주를 공급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로컬 양조장이 에일 맥주를 생산할 때는 주로 지역의 재료를 사용한다. 어드미럴 몰팅(Admiral Malting)은 유기농 농장과 소규모 양조장을 운영하며 베이 지역의 다양한 맥주 양조장에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를 판매하던 베테랑 양조자 두 명이 시작한 회사다. 이들은 새크라멘토 계곡, 툴레이크 소재의 가족 농장과 계약을 맺고, 무경간 농법으로 재배한 유기농 보리를 가져다 알라메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시설에서 몰트화한다. 어드미럴 몰팅은 미국의 금주법 시대 이후 최초의 몰트화 시설이며, 이들은 지역의 맥주 생산과 독립형 유기농 농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먼훔 브루잉(Umunhum Brewing)은 캘리포니아 최초의 협동조합 소유 브루펍이다. 동 사업장은 지역의 독립형 상점에 자신들이 생산한 맥주를 공급하여 판매하고, 직원들과 공동체 회원들에 의해 집합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된다. 공동체가 소유와 운영을 함께하는 협동조합 판매 모델은 직장환경 및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민주화하고 브랜드에 대한 투자증대를 이끌어 낸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독립형 맥주 양조장은 더이상 독특한 사업모델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로컬푸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공동체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농산물 달력
(지역 예술가 Maria Schoettler 作)

로컬 푸드와 음료가 지역의 사업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각 지역에서 자라는 식자재 및 제철음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구입하는 음식과 구입시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한다. 한편, 대형 기업체에서 로컬 푸드 공급망을 모방하면서, 소비자들은 지역의 독립 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로컬푸드 가이드를 통해 식자재 생산지가 어디인지 소비자를 교육하고, 어떤 기업이 지역의 승수효과(지역 경제권 내에서 지출이 이뤄짐으로써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효과)에 기여하고 있는 지 알려줄 수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자재와 음식들의 가격이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식당 및 상점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끼는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격이 다소 비쌀 수는 있으나, 이들은 지속 가능한 지역생산 식품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대신 더욱 공정한 자본의 분배와 최저시급 인상 등 많은 사람들이 동 제품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한 첨단기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도시의 재탄생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실리콘밸리로 일컬어 지는 첨단기술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규모 스타트업, 코딩 교육기관에서부터 세일즈포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비앤비, 우버 등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의 경제학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주제다. 단,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에 국한해서 보면, 첨단기술 사업체의 리더나 그 곳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이 베이 지역의 소규모 독립 상점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첨단기술산업이 지역 내 빈부격차를 확장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베이 지역의 첨단기술산업은 디지털 골드러시를 경험하고,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예를 들어 유저들이 자신의 방이나 사유지를 단기임대하는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힐튼 및 하얏트 호텔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숙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수는 아주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는 전례없이 대단한 부를 축적하는 사업모델인 것이다.

기술 기업 내부적으로나 기술 기업 간에 발생하는 임금 차이 및 교육수준, 공공 서비스, 보건, 예술 등의 기타 요소들은 주택대란, 불평등 악화, 노숙인 현상 등에 대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행히도, 동 사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몇 가지 존재하긴 하나, 아직 어느 해결책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실정이다. 첨단기술 기업 사이의, 첨단기술산업 과 기타 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태스크래빗 등 플랫폼 기업을 대체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소규모 회원을 통해 플랫폼에 가치를 부여하는 회원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수익을 분배하고, 비영리 조합의 경우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유지한다.

영리목적의 첨단기술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연결하여 인류와 지구의 웰빙을 촉진하는 또 다른 해결책은 바로 비영리 사업모델이다.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기업 에코시아(Ecosia)는 이해

관계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을 비영리 단체에 전달하고 이들을 통해 전세계에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니 맥러렌(Donnie Macluran) 작가와 제니퍼 힌튼(Jennifer Hinton) 작가는 이와 같은 ‘완전한 순환경제의 대두’ 현상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비영리의 미래를 구축할 것인가(How on Earth: Our future is not for profit)’를 제목으로 단행본을 출간하여, 수익을 축적하는 방법이 아닌 경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윤이 순환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이윤을 활용하여 나무를 심고 해외 각지에서 영속농업을 시도하는 비영리 사업 에코시아의 좋은 사례를 본받아, 더욱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환경 구현을 위해 일하는 기관들에게 기술 산업의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지역의 도시의 재탄생을 위한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신경제연합의 대두

앞서 논한 기관 및 단체 중 다수가 ‘신경제연합(New Economy Coalition)’에 소속되어 있다. 신경제연합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권력을 시민의 손에 되돌려주며 과거의 나쁜 유산을 뿌리뽑음으로써 미국 경제와 정치에 깊은 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동 연합체의 회원들은 베이 지역 내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스템 변화 운동에 동참한다. 총 210여개 기관들(업스트림 팻캐스트, 로컬 퓨처스, 공공은행 등 포함)은 미국의 신경제 운동을 상징하며, 다양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탄압저항, 임팩트 투자, 케어이코노미, 공정무역, 정신적·신체적 웰빙 구상, 노동권, 지속가능하고 수용가능한 주거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경제연합 내부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도시 협력 프로젝트’다. 미시시피의 코퍼레이션 잭슨, 뉴욕의 코퍼레이션 버팔로, 캘리포니아의 코퍼레이션 리치몬드 등은 도시 전체의 경제를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로, 식량 생산, 첨단 기술 사용, 은행업무, 에너지 등 다양한 삶의 영역과 협력을 시도한다. 또한 인종적 정의실현을 위해 아프리카계 후손들처럼 사회적으로 억압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되돌려주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정의를 연계하여,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 프레임워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 론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평등이라는 요소가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을 위해 변화를 유도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트 피켓 박사(Dr. Kate Pickett) 및 리처드 윌킨슨 박사(Dr. Richard Wilkinson)는 공저한 ‘수평계, 평등을 통해 강해지는 사회(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를 통해 비교적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질병, 공동체 응집력 부재, 폭력, 약물남용, 비만, 10대 임신, 쓰레기 투기, 탄소 배출, 정신적 건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평등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소비지상주의에서 더욱 연대적이고 연계된 문화로 변모해 나가는 것이 인류와 지구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다 주고, 공동체 내부 및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복잡하면서 아름다운 곳이다. 살아 숨쉬는 문화, 포용적인 환경, 독창적인 사람들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높은 주거비, 노숙자 현상, 첨단기술 기업 불현상으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다. 이 글을 통해 제시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사례가 전주의 경제 시스템 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더욱 번영하는 지역공동체 및 생태계를 보존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People Power Solar Cooperative, www.peoplepowersolar.org

“Top Community Solar States: Minnesota vs California, Massachusetts Colorado Community Solar,” EnergySage, www.news.energysage.com/comparing-top-community-solar-states-minnesota-california-massachusetts-colorado/

San Francisco Public Bank, www.sfpUBLICbank.org

Chez Panisse, www.chezpanisse.com

Hog Island Oyster Company, www.hogislandoysters.com

Cow Girl Creamery, www.cowgirlcreamery.com

Marin Sun Farms, www.marinsunfarms.com

Admiral Maltings, www.admiralmaltings.com

Umunhum Brewing, www.umunhumbrewing.com

Maria Schoettler Art, www.mariaschoettler.com

Ecosia, www.ecosia.org

How on Earth, www.howonearth.us

The New Economy Coalition, <https://neweconomy.net/>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Dr. Kate Pickett and Dr. Richard Wilkinson

CHAPTER 5

워크숍 1세션 ‘공동체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워크숍 1세션

‘공동체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체 자산화의 다양한 사례를 듣는다. 공동체 자산화에 대한 개념과 해외사례, 국내외 주요사례, 전주의 노력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도시재생 현장의 전문가, 활동가,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해외전문가의 코멘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주형 도시재생의 전략과 방법을 모색한다.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05	5'	개회	개회인사, 발제 및 패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 안내
14:05 ~ 14:25	20'	발제 1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델라 던컨 영국 슈마허대학 교수
14:25 ~ 14:45	20'	발제 2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 전략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4:45 ~ 15:05	20'	발제 3	도시재생과 공동체 자산화 전은호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5:05 ~ 15:15	10'	휴식	
15:15 ~ 16:15	60'	이그나이트	공동체 자산화와 도시재생의 지속성 소영식 원도심 현장지원센터장 조 선 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센터장 고우리 도시재생 청년활동가 정재진 전주도시혁신센터 팀장 최태우 물왕말 공동체 대표 허나겸 여의주마을 현장지원센터 팀장
16:15 ~ 17:00	45'	자유토론 및 결과공유	소그룹토론 결과공유 및 자유토론

사회 및 좌장 김창환 (전주도시혁신센터 센터장)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 전략」

이태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방안 : 주거지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2019. 10. 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 차례 |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문헌고찰
03. 영국 도시재생 사례 연구
04. 국내 도시재생 사례연구
05. 결론 및 정책 제언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국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들 중
대부분 가보지 않은 길.. 하지만 모두가 곧 가야 할 길



1. 연구배경

**‘재개발’ → ‘재생’으로의 정책 변화는
더욱 정의롭고, 더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2018. 4. 20

본격 이모션

길음 뉴타운 원주민 입주율 10%에 불과

길음뉴타운 일주만 전주전세주택전시
원주민 90% 떠나고 가맹대입은 10%만

도시재생법, 전면철거 'NO' 지속가능한 개발 'YES'

가시성 13-05-06 14:34 오후 - 3.2015

+ 시정

+ 시정

+ 시정



부산-대전-광주-인천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지금의 세대는 삶의 터전을 가려가는 도시정비로 패러다임을 놓고 '노후의 이력'에 빠졌다. 전면철거 후 건축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일회사업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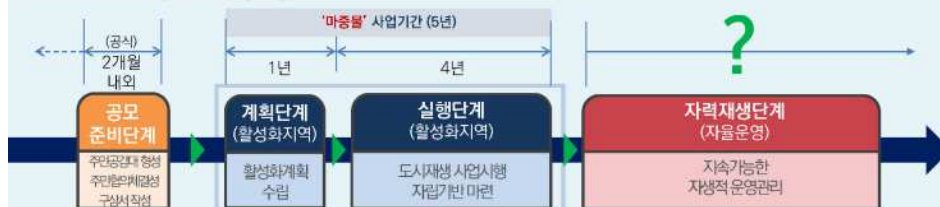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뭐냐고요? 글썽요. 그게 제일 모호한 말이죠” 《도시재생원장지원 세미나》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인가? (비전 & 지향점)
 - ‘공동이용시설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인가?
- 무엇을, 어떻게 지속시켜야 하는가? (구체적 실현방안)

〈2018년 까지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과정〉



1. 연구배경

8

現 국내 도시재생 제도설계 원리: '미중물'로서의 도시재생 사업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지속적, 자생적 활성화... But, 가능할까?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국가의 역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각 부처의 도시 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동일한 재원으로 예산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속적, 자생적 활성화
토대 마련

← 민간 투자, 기타 공공투자

'미중물' 예산
(100~500억원)



원 그림출처: 문화일보

[참고] 100 ~ 500억원 이 큰 금액처럼 보이나...

〈안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사업비 42억원
(리모델링)



〈인왕지 호계2동
주민센터〉
중 사업비 67억원
(중·경유차상 주차)

〈대구 도서관〉
중 사업비
430억원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현실에서의 어려움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영국 Sheffield의 Burngreave NDC 사례 : 10년간, £46m(700억 원) +α 가 투입

-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한 독립된 지역 조직 설립 → 자립적 운영 & 지역공헌활동을 목표
- 오랜 기간 체계적인 준비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



3. 연구목적 및 질문

❖ 연구목적

-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사업’의 모델을 정립해 보고, (기초자치체 단위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오늘 발제에서 주로 논의할 주제

1. (오늘 소개할) 2개 사례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속적인 재생 활동’을 하고 있나?
2.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인가?
3. (재생사업이 종료된 후) 무엇을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가?
4. 어떻게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가?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4. 사례연구 대상지

사업	지역 및 사업명		사업 기간	2차 검토 최종 심층 고찰 중점 소개 대상지	
국외사례 (영국 / 일본)		영국, Shoreditch NDC	2000-2010		
		영국, Bungee NDC	2001-2011		
		영국, Paddington Development Trust, SRB	1998-2004		
		영국, Community Links	-		
		영국, Local Trust, Big Local	2012-2022		
		일본, 나가하마시, 와쿠로카베 나가하마 마피즈쿠리, 타운메니지먼트			
	일본, 삿포로 러오오도리 마피즈쿠리, 타운메니지먼트	2009-			
사업	구분	지역명	사업 기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테스트베드	전주	2011-2014		
		창신·송인	2014-2017		
	선도 지역	국토부	군산		2014-2017
			영주		2014-2017
			천안		2014-2017
			창원		2014-2017
		서울형	신촌		2014-2017
			임사		2014-2017
			동작		2014-2017
			성수		2014-2017
	일반지역	수원 행궁동	2016-2020		
		전주	2016-2020		
		해남촌	2016-2020		
	사업		지역명		사업 기간
	주거환경관리사업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연남동		2011-2013
		박미사할마을	2011-2014		
		소리마을	2011-2013		
		정든마을	2012-2017		
		삼태기마을	2013-2017		
		초목및 휘경마을	2012-2017		
		창수마을	2012-2013		
		산골마을	2012-2016		
		삼덕마을	2013-2017		
		행촌	2017-		



1.2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장소기반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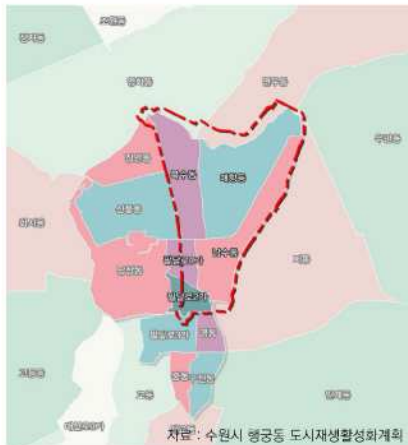
(Area-based Initiative; ABI)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1. 현 국내에서 채택한 '장소기반 도시재생' 사업시행 방식

장소기반 재생 (Area-based Initiative):

'특정 쇠퇴 지역'에 '한시적'으로 '특별한 추가 지원'

❖ 장소기반 재생 사업방식 특성

1. 기존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특정 사업구역**을 지정
2. **한시적으로 특별한 추가지원**이 제공됨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종료 후 구역 경계의 의미는 사라짐

❖ 장소기반 재생방식 실시 이유

(Bailey, 2012; Bailey and Pill, 2011; Lawless, 2004)

1. 우선순위가 높은 (소규모) 지역에 선별적 지원 가능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의 가시적 효과 상승
3.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용이함
4. 정책간 연계 & 이해당사자간 참여를 통한 협업이 이뤄지기에 용이
5. 장소 기반의 지역 공동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2. 마중물 사업의 제도디자인 원리

100억 원의 특별 지원 예산은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작용,
선제 투자를 통해 **향후 지속적 재생 기틀 마련**



02



영국의 '주거지재생 사업종료 후' 사례 연구

: Shoreditch NDC 사례

1. New Deal for Communities (NDC) 프로그램 : 1998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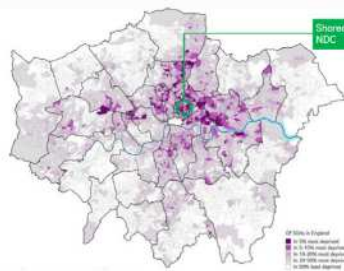


〈 NDC 사업 개요 〉

- ✓ 소수의 지역(39개 지역); 장기간(10년); 집중적(총 마중물예산 약 £2b, 1곳 당 평균 약 740억 원) 자원 투입
- 대상지역 : 39개 지역 ('동네' 규모, 평균인구 : 약 9,800명)
- 사업기간 : 10년 (+ 준비기간 약 2년)
- 마중물예산 : 지역당 평균 약 740억 원 (중앙정부)
- 총 재생사업 예산 (연계, 협력 예산 포함) : 평균 약 1,087억 원 / 대상지 (마중물 예산을 레버리지로 활용, 평균 약 47% 사업예산 추가 확보)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 Shoreditch NDC 대상지 개요



- 대상지 기본정보
 - 인구 : 약 2만 명
 - 총 면적 : 1.63km² (한국 행정동 평균면적과 유사)
 - 사업기간 : 2000-2010 (1998년 지정, 약 2년간 준비기간)
 - 마중물사업 예산 : 약 £60m (900억 원)
 - (레버리지 활용) 실질적 총 사업 예산 : 약 £120m (1,800억 원)
- 지정 당시 대상지 상황
 - 빈곤, 범죄, 실업 등 문제 심각 (최저 주거기준 미달 : 53.9%, 실업률 : 23%)
 - 지역주민 - Hackney 구청과의 관계 매우 좋지 않음

3. Shoreditch Trust : 파트너십 & 주민주도 재생의 제도화

18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추진 핵심 조직 : **Shoreditch Trust****‘파트너십’과 ‘주민 주도 재생’을 제도화**

❖ 법적지위: 보증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비영리법인: 자산양수 & 기부금 수령 가능, 세금공제혜택, 수익 지역재투자 의무화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4. '주체간 협력'을 통한 연차별 계획 수립 & 집행

19



5.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재생의 의의 1 : '마중물' 예산을 '지렛대'로 활용

20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추가 투자 유치

➡ 정책적 시너지 창조, 효과성 제고 (win-win)



21

(mainstrea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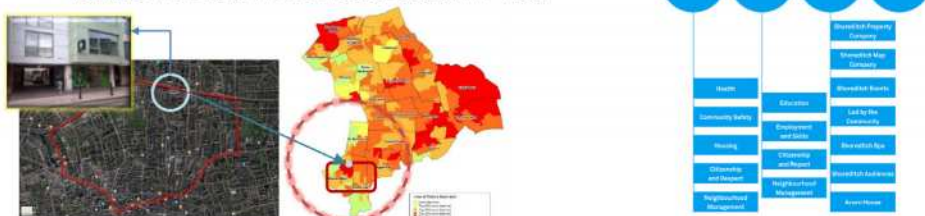


7. 재생 사업이 종료된 지 8년.. Shoreditch Trust는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모습은?

사업종료후 변화:

사업구역의 거점 → 지역생활권의 재생 거점으로

- **사업종료 5년 전부터 사업종료 후 대비 시작, 조직의 지속성 준비 :** 사업종료 후 조직 규모 ½ 축소, 해크니 자치구 내 주요 제3섹터 조직(비영리법인)으로 지금까지 지속
- **2017년 기준 법인의 주요 정보 :**
 - 보유자산 : 부동산 자산 등 고정자산 약 75억 원, 현금성 자산 포함 **총 117억 원**
 - 연간지출 : 약 £2.5m (**37.5억 원**)
 - 주요수입원 : 부동산 임대, 기부,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사업 추진 수입 등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8. 어떤 형태의 '재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 : 도시재생 - 사회복지 연계 모델

지역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중

❖ 지역공헌 프로그램 1 : Food for Life (안전먹거리 교육)



& **Hackney** (자치구청)

❖ 지역공헌 프로그램 2 : 취업 교육 프로그램




8. 어떤 형태의 '재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 : 도시재생 - 사회복지 연계 모델

❖ 지역공헌 프로그램 3 : Bump Buddies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임신한 여성 지원 프로그램)



❖ 지역공헌 프로그램 4 : Peace of Mind (지역 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 지원)



❖ 지역공헌 프로그램 5 : Affordable Workspace (중소규모 첨단기술 업종 기업에게 '안심오피스' 제공)



03

국내 '주거지재생 사업종료 후' 사례 연구

: 서울시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례

1.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요



◆ 개요

- 위치: 금천구 시흥3동
- 사업기간: 2011~2014.12
- 면적
 - 1단계: 49,282㎡
 - 2단계: 97,620㎡
-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물리적 환경 양호한 편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 중
박미사랑 마을회관

- 
- B1 다목적 공간**

마을회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

지역의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동체 지향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 공동체간의 협조체널 구축, 세대
교류, 동침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4. '주민협의체'를 계승, 발전한 '박미마을 운영위원회'

박미사랑 마을공동체 운영위원회:
마을회관의 관리와 운영의 책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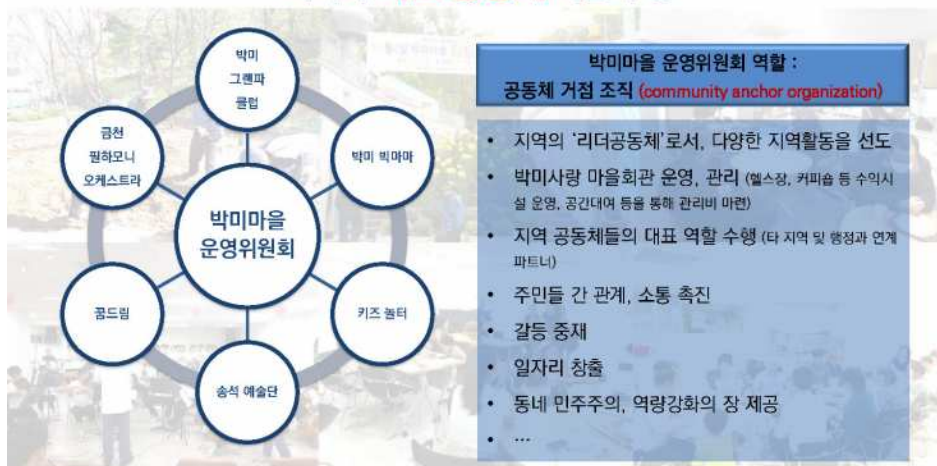
-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협의체** →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로 전환** (사업추진 중 사업종료 후 대비)



- 운영위원회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도정법 100조); 운영, 관리 권한 & 책임 부여 (**관리비 납부책임 : 운영위원회**)
- 사업종료 후 초기 심각한 갈등을 겪음 (뒤에서)
 - 갈등 핵심 원인 : **관리비, 리더십 스타일**
 - 리더**가 바뀐 후 갈등 완화, 공동체 활성화

4. 박미마을 운영위원회 역할

박미마을 운영위원회: 마을회관 관리·운영을 넘어
지역의 **거점 공동체** 역할 수행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5.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점공간**

마을 회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다양한 기관 /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 활용

❖ 사업 종료 후 완성되는 것이 아닌,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층별	용도	공간조성을 위해 활용한 공모사업				
		마을 자체 '마을회관 공간 활용 공모'	마을공동체 총합지원센터 '공간운영지원 자금 공모'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시설개량에 대한 지원사업'	서울시 여성정책과 '마을중심 여성 자조공간 공모사업'	서울시 조경과 '마을 정원 가꾸기 공모사업'
4층	협동조합 사무실					
3층	북트립영어도서관	●				
	박미행복학습센터					
2층	박미헬스클럽		●			
1층	마을카페 '카페화음'		●		●	
	박미마을 공유부엌			●	●	
지하1	다목적실, 공간대여					
외부	박미마을정원					●



6. 사업종료 후 : 민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재생 1

더욱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 - 주민 간 지속적인 협력

❖ 사업종료 후 : '경제'의 재구성 → '박미사랑마을'을 넘어, **시흥3동과 금천구의 민주 시민으로**

- 사업종료와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의미 (대부분) 상실

❖ (일부 적극적인 주민) **제도화된 직접민주주의 프로그램 참여**, 지역재생 & 지역 민주주의 실현 중

- 시흥3동 : **주민자치회**
 - 금천구 : **주민참여예산제도, 협치회의**
- 주민 주도적으로 지역문제 개선, '더욱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활동 지속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7. 사업종료 후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 재생 2

더욱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 - 주민 간 지속적인 협력

❖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개선, 확대 중

→ '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

- 평생학습 : 마을회관 내 박미행복학습센터 개소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 박미사랑마을 협력)
- 보육 : 공동육아 지원 (서울시 &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박미사랑마을 내 '빅마마' 동아리)
- 지역경제, 일자리, 참여확대 :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지역 (서울시 - 박미마을 운영회)
- 마을회관 관리비 절감 :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서울시 - 박미마을 운영회)



8. 핵심 지속가능 요소: 마을회장의 역량과 리더십

박미사랑마을 공동체 성공의 핵심요소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에 기반한 리더십



“공동육아를 시작할 때 회장님이 다른 운영위원들을 설득해 마을회관에서 공동육아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르신들과 마찰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해 주신 분이 000 회장님이셨죠.”

(박미사랑마을 육아공동체 관련자)

❖ 000 회장 :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사업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리더로 활동 중

- '소통'을 통한 의견 조정, 친목 향상, 다름의 이해 강조
-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존경을 얻고 있음
- 차기 리더를 기르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0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4.1 2개 사례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속적인 재생 활동'을 하고 있나?



1. Shoreditch NDC

Shoreditch Trust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중

- ❖ '지역공동체 거점조직'(community anchor organisation)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 재생활동 추진 중
 - 재생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재생 추진 조직 (Shoreditch Trust)**이,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 공간 (Waterhouse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공헌 활동 진행 중
- ❖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수익 확보(→조직의 안정성, 자주성 확보) → **지역에 재투자**
 -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수익을 반드시 지역공헌 활동에 재투자 하도록 제도화**
- ❖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특히 각종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등 **정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 자주재원 & 역량을 갖춘 조직 + 비영리법인 자격 + 지역사회로 부터의 인정 = **좋은 정책 파트너**
 - 특히 해크니 구청, NHS 등 **정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활발한 연계·협력** → **한시적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성 ↑**

2.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박미마을 운영위원회, 박미사랑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열린 공동체' 실천 중,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있음

- ❖ '지역공동체 거점조직'(community anchor organisation)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 재생활동 추진 중
 - 재생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민협의기구 (박미사랑 운영회)**가,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 공간 (박미사랑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공헌 활동 진행 중
- ❖ 남녀노소, 주민 모두를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 실현
 - 남녀노소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 이벤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 (예 : 트(로트) 클(래식) 앙상블)
 - '골수 회원' 외에도 누구나 와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 직접민주주의 프로그램 참여, 민관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협치회의 등 참여, 주민들이 자발적 & 주도적으로 지역문제 개선
 -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

4.2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인가?

(국내 도시재생사업 중심)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한가지 모델

국내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향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일까? (한가지 모델 but 어느 정도 일반화 가능)



1. '거점'을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의 지속적 지역개선 활동

- 출처
- 1.1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점공간**
 - 1.2 거점공간을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지역 공동체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점조직**

2.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직되고 활성화된 다양한 지역 공동체

: 다양한 형태의 지역결사체 조직, 각종 친목모임 등

3. (기 존재하는 직접민주주의 프로그램 & 주민참여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문제 개선,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 지속

4. 정규 공공서비스와 연계 (특히 사회복지, 교육, 사회서비스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 지속 (mainstreaming)

4.3 무엇을 지속할 것인가?



1. 무엇을 지속할 것인가?

재생사업 종료 후

지속시켜 나가야 할 핵심 요소



4.3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기초지자체 단위)

※ 매우 간략한 정리,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1.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1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준비는 **사업 시작 시점부터 꾸준히** (대상지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부터 꾸준히)

Q) 과거 10년간의 사업을 돌이켜 보면, 다시 사업 초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볼 것 같나요?

"(2006년 보다) 더 이전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종료 이후 지속적인 재생 추진을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Jacqui Roberts, Shoreditch Trust CEO)

- 거점공간 관리비 & 입지조건 고려 필요 → 경제적 독립 가능성 극대화, 지역주민 부담 경감 필요
 - 주민들의 최대 부담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효율 고려 설계 필요 (태양광, 단열 등)
 - 상업시설이나 생산시설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적절 입지, 용도, 업종, 사업성 등 고려 필요
- 지역을 이끌어 갈 리더 & 조직 발굴 필요
 - 지역 주민들로 부터 인정받는 리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
- 협력적 정책 과정, 특히 정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과의 협력 중요
 -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보건, 여성
 - 학교교육, 평생교육, 보육
 - 방법, 치안
 - 여가, 문화 등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2

2. 지속가능한 '거점' 조성

-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주인 의식**(psychological ownership)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립과정 - 운영과정 세심한 배려** 필요
 - 건립 과정에 지역주민들, 니즈 세심하게 담을 수 있게 (해당 내용이 시설물 조성 내용에 충분히 반영)
 - '거점조직'에게 '거점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폭넓은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부여
- 열린 운영 & 윤리적 운영을 위한 장치** 필요
 - 거점공간은 특정 계층이나 소수 해비유저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 누구나 남녀노소 어울릴 수 있도록; 특정인을 위한 공간, 지나치게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안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 및 처벌조항** 만들 필요
 - 거점조직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 계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 선거 등 조직운영 규약 조성 필요
-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 스스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 필요시 적절한 공공의 지원)
 - 지역주체 주도로 활용해보면서, 필요시 개선을 위한 적절한 공공의 지원 필요 (각종 공모사업)

3.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3

3. 기 제도화된 직접(참여) 민주주의 프로그램 활용, 지속적 지역개선 & 지역 민주주의 실현

- 주민자치회**(핵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동 단위)
- 주민참여예산, 협치회의** (기초, 광역 지자체)
- 기타 사업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예 : 도시재생 내 주민협의체 등)

4. 지역 거점 - 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계획수립단계 - 실행 - 사업종료 후 단계)

- (마중물사업 과정)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재생 단위사업 시행** → **사업 효과성·효율성 향상 가능, 협업문화 형성, 기관들과의 신뢰관계 형성, 주민조직 역량 강화**
 - 예) 지자체,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지역보건소,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건강가죽지원센터 등
- 조직이 일정한 역량 & (법적)자격을 갖추고, 지역주민들로 부터의 충분한 지지를 받을 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 직접제공** (예 : Shoreditch Trust)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공동체 자산화」

전은호 센터장 |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 자산화

사람이 살 맛 나는 도시 만들기

Civic Commoning

2019.10.16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은호
Center Manager of Mokpo City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시민자산화의 개념

- **개념** : 시민(주민, 지역공동체)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공유하는 일련의 행위
- 커먼즈를 생성하는 방식 중 하나로 지역을 기반으로 재산의 공(共)적 소유 및 관리·운용 전략으로 구체화 됨

제3의 소유권

The diagram illustrates the concept of Commons Ownership as a third form of ow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On the left, a box for '공공재산 (Public Ownership)' includes '임대-위탁-신탁' and '자산이전-구매'. On the right, a box for '사유재산 (Private Ownership)' includes '공간공유-신탁-전대' and '매각-경매'. In the center, a dashed box for '공유자산(Commons) 시민/사회적/공동체 Citizen/Social/Community Ownership' is connected to both by double-headed arrows labeled '공유자산 직접 확보'. A small number '2' is at the bottom right.

1. 시민이 주인이다

- 시민참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
- **지역별·기관별 파트너십의 도약** : 시민 오너쉽/스튜어드십 형성



2. 투기적 사유, 통제적 국유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 자산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 빈집 등 유희화 현상
- 시민 통제제 수단, 국공유재산 부실관리, 판트리피케이션 현상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시민자산화 추진 배경 및 필요

2. 투기적 사유, 통제적 국유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 추출적 소유에서 생성적 소유가 가능하기 위한 공유(共有)로의 전환
- 공유를 통한 공동창조 및 시민배당의 토대 마련

추출적 소유에서 생성적 소유로

추출적 소유	생성적 소유
1. 공익적 목적: (국가적 이익) 위해 공공 목적의 토지권 설정	2. 공익적 목적: (국가적 이익) 위해 공공 목적의 토지권 설정
3. 부패의 주범: 소유권 이득을 인간 활동의 참여가 필요	4. 부패의 주범: 소유권 이득을 인간 활동의 참여가 필요
5. 사회적 배당 불거: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6. 사회적 배당 불거: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7. 사회적 배당 불거: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8. 사회적 배당 불거: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자발적 헌신과 통제력의 회복이 가능한 소유



공동창조 시대에 필요한 공동소유로

공동창조 시대	공동소유
1. 공동창조 시대: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2. 공동창조 시대: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3. 공동창조 시대: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4. 공동창조 시대: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5. 공동창조 시대: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6. 공동창조 시대: (국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지출을 할지라도

시민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



5

시민자산화 추진 배경 및 필요

3. 자산기반 지역발전 전략

- 결핍을 채워주는 서비스 대상에서 역량이 있는 문제해결 주체로 관점의 변화
- 자산기반지역발전 전략에서 공동체자산의 공유(共有)는 주요한 전략적 토대

관점	Need Based Policy	Asset Based Policy
a. 정책의도	욕구에 대응	역량 강화
b. 지원이유	자선(charity)	투자(investment)
c. 목표	제도적 변화	공동체 형성
d. 분석	결핍요소 정량화	파트너십 분석
e. 대상	개인(고객)	커뮤니티/이웃(시민, 생산자)
f. 권한	정부 주도	지역 조직으로 권한이양
g. 관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h. 접근방식	프로그램 지향적	사람 지향적

자료 : Kretzman&Mcknight, (1993), 한상일, (2003)에서 재구성

6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시민자산화 추진 배경 및 필요

4. 지역공동체 부 형성(Community Wealth Building) 전략의 주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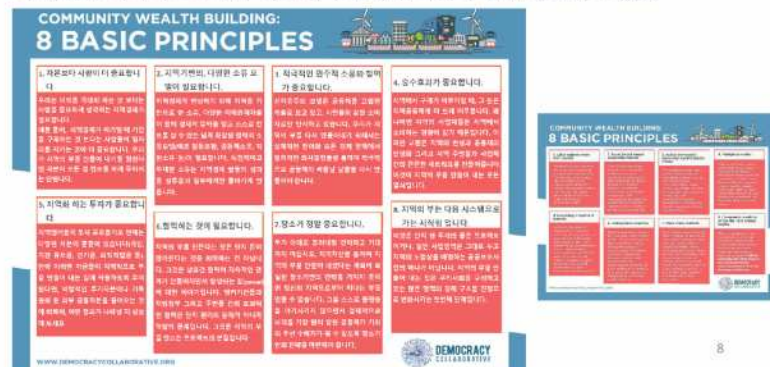
- 국가와 시장에 요구되는 사회가치공헌)가치공유창출 흐름은 장소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커뮤니티의 부를 만들어내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진화할 것



시민자산화 추진 배경 및 필요

4. 지역공동체 부 형성(Community Wealth Building) 전략의 주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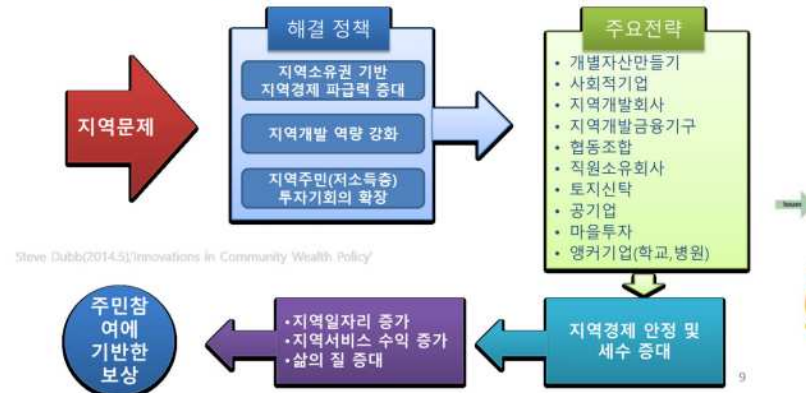
- CWB의 8대 원칙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기반의 다양한 공동소유 모델이 필요하며 시민은 적극적으로 민주적 소유구조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시민자산화 추진 배경 및 필요

4. 지역공동체 부 형성(Community Wealth Building) 전략의 주요 요소

- CWB 전략은 지역소유권과 시민의 역량 그리고 시민 투자가 주요한 솔루션



시민자산화 추진 배경 및 필요

5. 공유인으로서의 시민의 등장

- 시민자산을 공유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공유인으로서의 시민성
- 소속감 : 공동체, 마을, 도시에 속하는 시민
- 책임감 : 시민자산의 주인으로서 책임 지는 시민
- 거버넌스 : 지분공유자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시민
- 공동창조 : 서비스 소비자에서 문제해결자로 등장하는 시민
- 형평성 : 공평하게 공유되는 가치
- 지속성 :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 호혜성 : 공유자산을 토대로 형성되는 연대와 호혜



사례를 보면...

추진사례 및 전략

1. 민관협력에서 시민주도까지 다양한 자산화 사례(해외)



12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추진사례 및 전략

2. 공공주도에서 시민주도까지 다양한 자산화 사례 시도(국내)



규제하지 말고 구조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라(마조러렐리)

13

추진사례 및 전략

2. 공공주도에서 시민주도까지 다양한 자산화 사례 시도(국내)



14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추진사례 및 전략

3. 유형별, 단계별 접근(영국의 자산화 전략)으로부터의 교훈



국공유재산의 지역자산 이전(CAT:Community Asset Transfer)

공공/민간재산 소유권 이전(ACV:Community Right to Bid/Recla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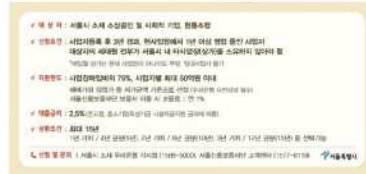


15

추진사례 및 전략

4. 시민자산화 관련 공공의 지원 움직임(초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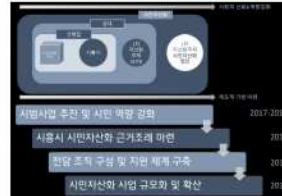
서울시 소상공인 자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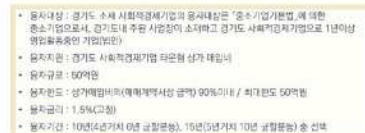
HUG 도시재생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자금



시흥시 시민자산화 시범사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타운형 상가 자산화



16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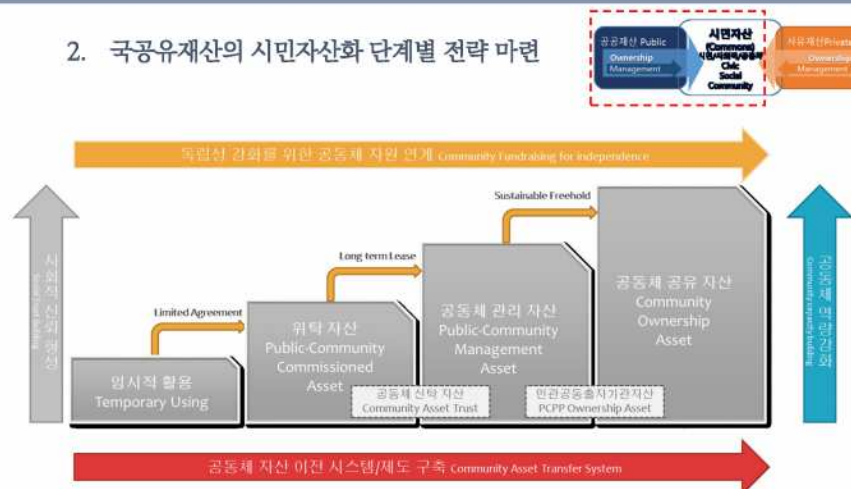
1. 시민자산화 유형별/단계별 전략 마련



17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국공유재산의 시민자산화 단계별 전략 마련



18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사유재산의 시민자산화 촉진 및 지원정책 추진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펀드레이징/모니터링/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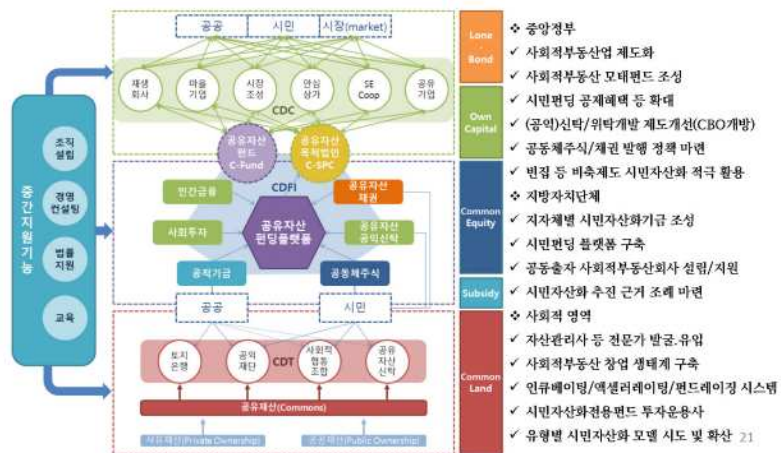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4. 시민자산화 펀딩 자원 확보(카테일 펀딩)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5.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이 주인이 되면
도시는 살 맛 납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6

워크숍 2세션

‘전주시푸드플랜〔전주푸드2025〕 방향과 과제’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19년 안)

- 민선 7기 우리 시의 주용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 전환 유도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좌장의 발제자·토론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 안내
14:10 ~ 14:40	30'	발제자 및 주제1	아냐 링백 (Anja Lyngbaek) 덴마크 - Local Futures 프로그램 디렉터, International Alliance for Localization 코디네이터, 멕시코 Veracruz지역 NGO인 “Microcuenca del Rio citlalapa” 공동창립자, 프로그램 디렉터
14:40 ~ 15:10	30'	발제자 및 주제2	전주시 푸드플랜 「전주푸드2025」의 방향과 과제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30	70'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박수영 원주친환경농업연합회 총무 최민영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장 김희연 전주푸드소비자모임 대표 김양우 전주푸드생산자회장 장순철 학교급식협의회회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좌장)
16:30 ~ 17:40			아냐링백 강성욱 참석자 전원
17:40 ~ 17:50	10'	폐 회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주시 푸드플랜 「전주푸드2025」의 방향과 과제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강성욱

■ 농정 틀의 변화 : 국민 모두의 의제

분 과	내 용
농어업	농업 재정구조 개편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 방안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방안
농어촌	농촌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방안
	농어촌 역량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농수산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기반 구축 방안
	먹거리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식·농교육 활성화 방안

자료출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핵심의제 목록

■ 푸드플랜의 특징 자료출처 '19.08.09. 푸드플랜관계기관 회의내용 요약(강성욱)

-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 ⇒ 한국 농업의 회생
- 행정중심(농업부서) ⇒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 주도(단체장 직속 기구)
- 생산·판매 중심 ⇒ 소비분석, 기획생산
- 농민·농업정책 ⇒ 국민·국가 식량정책

■ 전주푸드플랜의 목표

-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지역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일자리 보장
-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순환경제 구축

■ 전주푸드플랜은 **이다

- 농업의 경제성(성장, 효율성 등)을 포함한 공공성, 지역성, 관계성의 실현
-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 전주 시민먹거리의 통합관리 정책
- 행정·민간 협력 중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 생산, 유통, 소비자 등 관계자간의 신뢰성 회복

■ 전주푸드플랜 추진 경과 ('15년~' 19년)

구분	내용	일시
• 외부 전담인력 선발	- 전주푸드 담당 채용(민간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4. 3.
•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전주시농업농촌발전계획(전북연구원)	4. 20.~5. 20.
• 전주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 정책, 예산, 조례 준비 - 5대 정책과제, 10대 실행과제 제시 - 공공형 재단법인 설립 등 추진	5. 22.
• 출연기관 설립, 운영 타당성 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설립 전 타당성 사전 검토 완료(전주시, 전북도)	6. 4.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전 상임위 간담회 개최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담회 의원발의(8명)	6. 12.(1차) 6. 29.(2차)
• 전주푸드플랜 준비팀(TF) 가동	- 시간선택제 공무원(3), 기간제(1) 채용	7. 1.~9. 10.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제정	- 지원근거 마련, 조례 제정 공포	8. 18.
• 전주푸드 예산 반영 (1차 추경)	- 1호 직매장, 재단법인 운영	7. 24.
• 전주푸드 생산 및 가공 조직화, 출하자 교육	- 직매장 출하 농가기본교육700명 - 밀반찬 및 제과제빵 교육 40명 - 전주푸드 1호 협동조합 결성(경력단절 여성)	7. 1.~12.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창립 총회	- 창립총회(이사장 부시장 등 이사 5명, 감사 2명 참석) - 정관 및 제규정 검토 및 승인	8. 21.
• 재단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북도 비영리 법인 허가 - 전주지방법인 법인설립 등기	9. 1. 9. 3.
• 재단법인 임직원 채용	- 센터장 등 10명	9. 1.~9. 14.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입주 및 업무 개시	- 덕진구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내 160호)	9. 15.
• 전주푸드 출하농가 집합교육 (500여 명)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교육장	9. 17.~9. 23.
• 대도시먹거리전략 '전주푸드2025플랜' 선포	- 기자회견 : 시장, 소비자·생산자 대표(3명)	11. 17.
• 제후푸드 협약식	- 7개 군(완주,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임실) 및 유관기관(2개소)	11. 30.
• 전주푸드 송천점 개장식	- 전주푸드 출하농가 및 소비자 등 100명	12. 10.
• 2015 전주푸드생산자-소비자전진대회 (500여 명)	- 시청 강당 : 시장·의장 기념축사, 특강 등	12. 23.
• 공공급식 시범공급개시 (직매장 발주)	- 관내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 7개소 대상	4월
• 전주푸드 종합경기장점 개장	- 덕진구 전주시종합경기장 내	8. 12.
• 수원시 제후푸드 공급협약 체결	-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로컬푸드직매장	11. 8.
• 전주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식 (200여 명)	-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물류기능 수행 - 농민가공실 가동	2. 24.
• 2016 전주푸드생산자전진대회 (300여 명)	- 재단교육장 : 생산자 소감, 시장·의장 기념축사 등	2. 27.
• 전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 월드컵 경기장 공공급식지원센터	5. 1.
• 학교급식 공급개시	-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85개교(친환경농산물 부문)	9. 1.
• 2018 전주푸드생산자 다짐대회 (300여 명)	- 시청강당 : 시장·의장 기념축사 등	3. 24.
• 서울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대상 선정	- 총 390개소 대상 (보육시설 175개소, 복지시설 215개소)	4. 18.
• 서울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 체결	- 전주시청(시장실)	8. 2.
• (사)전주푸드 생산자회 결성	- 생산자회 결성 및 설립허가	8. 8.
•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시	- 서울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9. 1.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019	• 전주시먹거리보장조례 및 공공급식지원조례 준비	- 시민먹거리보장 및 공공급식 활성화 근거마련	1. 4.
	• 농식품부 복합직매장 공모 선정	-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내 예정	1. 28.
	• 2019 전주푸드다짐대회	- 전주먹거리 정의실현, 전주푸드광역화 실천	3. 9.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협약식	- 관내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3. 13.
	• 제5회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로컬푸드 세션)	-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 공통목표 실천 경험 공유	10.15~10.17.

■ 전주 푸드플랜 그간 성과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① 총매출	15,308	2,193	4,574	8,541
② 교육이수자	1,544	170	354	1,020
③ 품목수	892	135	223	534
④ 공공급식	1,153	-	571	582
⑤ 소비자수	884,619	115,800	309,300	459,519
⑥ 출하자	-	150	517	570
⑦ 학교급식	6,090	-	1,042	5,048



■ 전주푸드플랜의 추진 방향과 과제

구 분	목 표	내 용
1. 생산·가공 기반 조성	• 기획생산체계 구축	- 전주푸드생산력 복원 - 대내외 생산·소비조직화 전주푸드 광역화
	• 농민가공 활성화	- 국비 공모사업 연계 가공센터 설립 추진
	• 지역농식품 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 인증시스템 구축, 토종종자 관리 - 자연 농자재 지원센터 운영 -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2. 학교·공공급식 및 직매장 개설 등 공적조달 영역 확대	• 물류체계 안정화 도모	- 공공급식허브센터 건립 - 부지 및 사업비 등 공모사업 연계 모색
	• 관내·외 관계형 시장 확대	- 어린이집, 복지관, 혁신도시 지역농산물 공급 - 서대문구, 수원시, 기타 대도시 공급 확대
	• 복합형 직매장 순차 개설	- 생산·소비자 접근성 고려 4개소 설치 - 권역별 300농가 연결
3. 유통·소비 재편, 지역자원 선순환 조직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비자 연대 조직화	- 지역자본 및 중소 상공인 공생연대 - 식교육, 홍보 통한 음식시민 양성
	•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센터 연계 자원화 추진	- 용기 재활용 도시락 공급사업, 포장재 등 폐기물 줄이기 환경보호 캠페인 연중 추진
4. 행정재편, 정책 통합	• 법제도 정비, 민·관 협치 연대협력 강화	- 먹거리 보장 및 공공(학교)급식 조례 제·개정 - 행정 및 민간 관계자, 연대 회의체 결성 운영

CHAPTER 7

워크숍 3세션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워크숍 3세션

‘사회투자기금 활성화방안과 민간의 역할’

- 민선 7기 우리 시의 주용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 전환 유도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자·토론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 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반년의 실험, 전주형지역화폐 ‘꽃전’ 결과보고 황은주 학산복지관 과장
14:40 ~ 15:10	30'	발제 2	한국경제의 공공기관의 역할 엘렌브라운 미국공공은행 설립자, 대표
15:10 ~ 16:00	30'	발제 3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 및 민간의 역할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16:00 ~ 16:10	10'	휴식	
16:10 ~ 17:10	60'	종합토론	엘렌브라운 미국공공은행 설립자, 대표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 주세윤 동작신탁 과장 이동근 경제협동체 도토리회 회장
17:10 ~ 17:40	30'	자유토론 및 결과공유	발제·토론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40 ~ 17:5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손현주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전주형 지역화폐 꽃전 결과 보고」

전주형 지역화폐 꽃전 결과보고서

전주 학산복지관 | 황은주 과장

프로젝트 요약

○ 실험주제

- ▷ 전주형 지역화폐(공동체화폐 꽃전) 시범운영

○ 실험목표

- ▷ 지역정체성을 담은 “지역화폐” 로 인식전환, 비경제적 유인 강화(넛지)
- ▷ 네트워크 기반 지역단위 설계(연대화)
- ▷ 생필품 중심의 가맹점 밀집화
- ▷ 환전보다는 “상품권” 직접 거래가 더 유리하도록 유인 설계

○ 실험기간

- ▷ 2018. 11. ~ 2019. 06.

자료출처 '19.08.09. 푸드플랜관계기관 회의내용 요약(강성욱)

○ 실험대상

-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 참여인원

- ▷ 가맹점 77개
- ▷ 약정회원 82명
- ▷ 일반소비자 140명
- ▷ 주민조직 : 운영위원회 15명, 홍보팀 6명

○ 실험결과

- ▷ 공동체성(의식)제고로 자발적 사용증가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 월별 약정회원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신규(명)	32	40	9	1
누적(명)	32	72	81	82

▷ 지역의 중소상인 매출 증가(고객 확보)

* 월별 판매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월계(원)	4,457,000	6,639,000	8,782,000	10,892,500
기부(원)	77,900	89,450	181,600	156,125

▷ 도보 거리 내 생필품 가맹점이 밀집해서 사용자 편리성 제고

* 월별 가맹점 현황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신규	45	12	12	3	5
누적	45	57	69	72	77

▷ 환전을 저하, 회전을 증가로 유통비 현저히 하락(유통액 10% → 1% 이하)

* 월별 환전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환전 가맹점 수	3	6	3	2
환전 꽃전 금액	672,000	642,000	881,000	8,968,000
환전율(%) (누적환전금액 ÷ 누적 판매금액*100)	15.1	11.8	11.0	36.3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꽃전발행(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팀 소개

지역 및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현장경험과 연구경험이 풍부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의 도입에 대해 수년간의 학습과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로 행복의 경제학국제회의(2016, 2017)를 통해 전주시 지역화폐 도입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왔습니다.

박사연구원 2인(미래학자, 넛지 전문가)과 현장활동가 4인(자활, 의료사협, 복지, 사회적경제중간지원 조직)의 경험을 결합하여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의 필요에 효과적인 전주형 지역화폐 모델을 연구해 왔습니다.

팀을 소개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진

고은하 대표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화폐위원회



지역화폐 기획팀 워크숍



[리빙랩프로젝트 단계별 정리]



① 발견한 문제들 : 실험의 계기가 된 사회 문제

○ "고향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자체 주도형 지역화폐

-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고향사랑상품권”을 유통(2018년9월 현재)시키고 있으며, 행안부도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며 지원하고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적 접근으로, 공동체성회복에 대한 역할이 없고,
- 2~10% 할인판매 등 경제적 유인으로 소비자를 지원하거나, 공무원이나 복지수혜자들의 수당 등의 지급 등을 통해 강제로 유통시켜 거부감이 커져 있음
- 또한, 경제적 유인에 필요한 지자체의 운영비용이 거래금액의 10%정도를 차지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예, 2017년 포항시 1000억원 판매에 100억원 이상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 사용자들은 가맹점의 산재로 필수품 거래에 불편함으로 호소하며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복지수혜자들은 고향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불편함이 증가되고 있음
- 종합하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고향사랑상품권은 사용자 거부감이 크고, 경제적 유인에만 의존해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지 못하며, 유통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높이게 될 것임

○ "고향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자체 주도형 지역화폐 확산에 따른 사회현상?

- 강제유통으로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한 거부감 확산
- 소비자들이 지역경제활성화나 공동체보다는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춤
- 지역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지자체가 보조하는 셈
- 매년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부담 가중(유통량이 많아질수록 운영비용이 증가)
- 할인 등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면 유통이 정지됨
- 장기적으로 고향사랑상품권의 자율적 순환메카니즘을 정착시킬 가능성 낮아짐

② 문제 정의 : 문제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가설, 실험을 계획하며 재정의된 문제들.

{지자체} 어떻게 하면 지자체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상품권의 환전 (환전차액만큼 지자체예산이 소진됨)을 줄이고, 반복적 거래(환전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므로 지자체 부담 없음)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가맹점} 어떻게 하면 가맹점이 현금흐름의 애로도 느끼지 않으면서, 환전하지 않고 고향사랑상품권을 재유통하게 할 수 있을까?

{소비자}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고향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얻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고향사랑상품권에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까?

③ 창발 :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활동들(의견 및 수요 조사, 네트워크 등)

지역화폐 기획팀 : 지역화폐의 모형, 운영방향 등을 설계 및 기획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 마을활동가, 전문가, 가맹점대표, 소비자대표, 지역사회위원 등으로 구성, 지역화폐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결정

지역화폐 홍보팀 : 마을 주민, 지역화폐 활동가로 구성,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관련 논의

지역상가조사 및 가맹점 발굴 : 지역상가 911개 기초조사 시행, 학산종합사회복지관(거래소) 23명이 가맹점 집중 발굴

소비자 교육 : 소비자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위한 소비자 교육

약정회원 모집 : 약정회원 82명 모집

가맹점 모니터링 : 지역화폐 모형과 순환형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가맹점 모니터링 진행(5월 기준 71개 가맹점)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④ 실험 :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험(활동) 내용

● 실험(1) : 지역정체성을 담아 공동체형 지역화폐 모형 설계

- 실험 목적 : 지역에 맞는 공동체형 모형 설계
- 실험 내용
 - 가맹점 3% 수수료를 통해 가맹점도 지역화폐 운영에 기여하는 구조 마련
 - 소비자 5% 할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역을 위한 기부구조 마련
- 실험 결과

* 월별 환전 현황 및 기부금액

구분	3월	4월	5월	6월
환전 가맹점 수	3	6	3	2
환전 꽃전 금액	672,000	642,000	881,000	8,968,000
가맹점 수수료 (3%)	20,160	19,260	26,430	269,040
기부(원)	77,900	89,450	181,600	156,125

실험 활동 사진

모형의 변화(왼쪽에서 오른쪽)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 실험(2) : 생필품 중심의 가맹점 밀집화
- 실험 목적 : 생활권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맹점을 발굴하여 사용자 편리 제고
- 실험 내용 : 도보 거리내 가맹점 발굴, 거점구역별 가맹점 검토
- 실험 결과 :

* 월별 환전 현황 및 기부금액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신규	45	12	12	3	5
누적	45	57	69	72	77

실험 활동 사진

가맹점 지도



- 실험(3) :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 인식변화 활동
- 실험 목적 : 공동체형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
- 실험 내용 : 주민홍보활동, 주민(소비자)교육, 주민참여활동 구성(운영위원회, 홍보팀, 가맹점 온라인소통구조 등)
- 실험 결과
 - 소비자교육 : 13회 약 538명
 - 주민홍보활동 : 거리홍보, 평화마을장터, 우리마을장터 등 8회
 - 주민참여활동 : 운영위원회 5회
주민홍보팀 8회
가맹점 온라인 소통구조(가맹점 밴드 : 1개, 3월~6월 운영)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실험 활동 사진

소비자 교육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홍보 활동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운영위원회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홍보팀 회의



가맹점 온라인 소통 구조

BAND 밴드,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전체글 사진첩 일정 멤버

글 내용: #태그, @작성자 검색

새로운 소식을 남겨보세요

공지사항

[당요] ★간quil입니다. 더보가를 놀러 끝까지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

안내드립니다. 이 밴드는 전주공동체화폐 꽃전 가맹점 사장님들과의 소통...

학산복지관(김세혁)

안녕하세요 꽃전 담당자입니다^^
가맹점 책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채팅 새 채팅

성미

나무원 전주점

전주공동체화폐 꽃전
밴드 전체 멤버들과 함께 하는 ...

최근 사진 더보기

⑤ 종합 실험 평가

1. 지역화폐를 경제적 유인이 아닌, 지역 순환형으로 설계하여 지속성을 담보

- 소비자 5% 할인을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하되, 소비자 스스로 5%를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 실제 전체 5% 할인금액 중 32.1%는 기부금으로 적립되어 지역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됨.
- 가맹점 환전시 3% 수수료를 부담하되, 환전하지 않을 경우 지역 가맹점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 실제 시범사업기간 동안 가맹점 환전률은 판매금액 대비 환전금액 비율은 40.6%. 전체 가맹점 수 대비 환전율은 14.6%(6월 말 기준 전체 75개 가맹점 중 11곳이 환전)으로 나타냄. 이외 대부분 가맹점들은 가맹점 내 순환하여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음.

2. 지역화폐를 통해 공동체 기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

- 화폐이름 및 디자인 공모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화폐이름을 ‘꽃전’으로 결정. 지역의 특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아 디자인하여 화폐만으로도 지역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함.
- 지역화폐 사용의 주 타겟을 공동체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두고, 정기적으로 약정금액을 지역 화폐로 사용하는 ‘약정회원’ 방식을 도입함. 실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6월 말 기준 약정회원 77명 등록.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약정 금액을 사용하는 약정회원의 월 금액이 715만원에 도달함.
- 또한 6월 말 약정회원 모니터링결과 약정회원 중 모니터링 응답자 57명
약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를 취지나 목적이 좋아서(49.1%),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21.1%)라고 응답하여 70.2%가 공동체형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을 직접 참여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내가 꽃전을 사용함으로 우리 동네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96%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주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꽃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8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약정회원들은 일반 이용 회원들에 비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약정회원 중 모니터링 응답자 57명

⑥ 실험의 어려운 점

1. 실험규모에 비해 짧은 실험기간

- 마을 단위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 민간 주도형 모형을 설계하고, 그 모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실험규모에 비해 8개월의 실험기간은 매우 짧았음.
- 특히 8개월 중 초기 4개월(11월-2월)이 준비과정이었고, 실제 공동체화폐를 실험한 기간은 4개월(3월-6월) 밖에 되지 않아 실험의 목적인 지역적 특성에 맞는 모형의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음.

2. 공동체형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 부족

- 주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대부분 지자체형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높아, 공동체형 지역화폐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이에 3% 수수료를 내고 가맹점에 참여해야 하는 의도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가맹점을 발굴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음. 실제 평화2동을 중심으로 지역조사를 실시한 후, 911개 가맹점 전체를 직접 다니며 홍보하고 안내하였고, 그 중 5.5%인 55개가 위 내용에 동의함(3월 15일 기준).
- 하지만 가맹점 스스로 이런 활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동의하면서, 가게 사장님들이 이웃 가게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처럼 의식을 함께하는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감.

3.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가 각 참여주체들마다 상이함.

- 지역화폐에 함께 참여했던 주체들이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목적이 달랐음.
-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통해 고객확보와 화폐 유통량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소비자는 경제적 이익(할인)과 소비의 편리함을, 운영주체는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목적에 두고 사업이 시작되어 취지와 목적, 활동의 가치와 유익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고, 이 후에도 이를 하나의 목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함.

⑦ 향후 계획

1. 지역 중심의 추진주체 강화.

- 공동체형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 결정구조로 운영위원회를 강화. 이를 위한 운영규정 정비,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표할 신규 운영위원 보강 등이 필요.

2. 공동체화페 ‘꽃전’ 만의 가치와 의미 찾기

- 평화동 지역의 지역화페가 가지는 공동체의 의미를 찾고, 참여하는 가맹점들이 이 의미에 맞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표방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
- 또한 지역화페 운영의 토대가 되는 가맹점, 약정회원을 조직하여 별도의 온, 오프라인 모임을 강화하고, 마을단위에서 소속감(함께 할 수 있는)을 갖을 수 있는 활동 모색이 필요

3.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약정회원 이외에도 누구나 지역화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거점 거래소 확대
- 다양한 홍보나 이벤트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 강화

⑧ 후기

#실험자 총평

1. 지역화페를 통해 마을안에서 관계가 살아남

- 실험기간 동안 가맹점을 발굴하기 위해 평화동에 위치한 911여개의 가게를 직접 방문해보며 새롭게 지역을 알게되었고, 지역화페를 보는 가게들의 시각을 보게 됨.
- 공동체화페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가게들이 77곳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경험하며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고, 이 후 홍보와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체 가맹점을 2회 이상 만나며, 단순히 돈을 거래하는 거래소와 가맹점 관계가 아니라 필요와 목적을 함께 나누고 운영을 함께 의논하는 활동의 주체로 사장님들과 새로운 관계가 생김. 이를 통해 지역화페 운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을 지지해주는 가맹점을 만나게 되는 성과를 갖게 됨.

2. 지역화페를 통해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경험함

- 지역화페 약정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 소비를 넘어, 마을 안에서 지역화페를 통해 소비하며려는 의식을 가진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음. 그 중에서도 기존에 관계했지만 깊게 알지 못했던 주민들과도 더욱 신뢰관계가 강화됨. 특히 의식적으로 지역의 가맹점을 이용해보며 스스로 모니터링 역할을 해주는 주민들을 볼 때, 자신이 스스로 지역화페를 이용하며 이웃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단골가게를 꽃전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는 주민을 만날 때, 조금은 불편하지만 현금으로 지역화페를 사용해보며 자신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주민들을 볼 때 마을안에서 공동체의 경험을 실무자가 먼저 해 볼 수 있었음.

3. 공동체화페 ‘꽃전’ 만의 유익을 고민하게 됨.

- 공동체형 지역화페는 양적인 확장보다 관계 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음.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장기 목표보다는 참여하는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또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들의 소비형태와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여 후불결제하는 방식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현금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지역화폐 방식은 소비패턴을 변화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로 보여졌음. 이에 지역화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중에 하나로 소비에 대한 교육과 지역화폐 이용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짐.

#사용자 후기

1) 가맹점 후기

-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유통되진 않지만, 꾸준히 꽃전이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3% 수수료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정도 수준이면 제가 순환해서 쓰는데 큰 무리 없어요.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가맹점들이 있어서 저도 받은 꽃전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 가맹점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용 편차는 큰 것 같아요. 마트나 식당 같은 곳은 꼭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니 이용이 높은 것 같고, 의류나 판매업, 서비스업종은 아무래도 이용 빈도가 적은 것 같아요.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 가맹점에 참여하는 가게들이 업종은 다양하지만, 공통으로 구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꽃전 유통도 중요하지만, 가맹점 간의 만남과 모임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안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약정회원 후기

- 꽃전을 사용하니 5% 할인도 되고,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가맹점도 많아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 이동 편의시설이 매우 중요해요. 사용하다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편의시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나 가게가 참 잘 되어있어요. 우리 가맹점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역을 위해 이 일을 하지만, 소비자로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이런점들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 약정회원이 되고보니,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가맹점을 이용하게 되요. 장을 볼때도, 밖에서 식사를 할 때도 꽃전 가맹점이 어디인지 먼저 찾아보게 되요. 사실 한번도 가지고 않았던 곳고, 우리 동네에 있었는지 몰랐던 가맹점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꽃전 덕분에 처음 가보는 곳도 많았어요. 그런 과정이 이 화폐의 의미인 것 같아요.
- 가맹점에 가서 꽃전을 내고 식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꽃전으로 내도 돈 내는 것과 같을까? 서비스가 다르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더욱 신뢰가 생겼어요.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 꽃전 사러 처음으로 복지관을 가봤어요. 은행처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사러 오고싶어도 큰 마음을 먹어야해요.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거래소를 좀 더 확장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꽃전을 구입하려고 생각해보니, 현금이 없었어요. 그동안 카드로 생활하다보니 후불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소비패턴을 바꿀 엄두가 쉽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인 5만원부터 구입해서 써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네요.

⑨ 실험 결과물 *자료 목록 및 자료 또는 사진 첨부

번호	자료유형	결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도자료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38	
2	리플릿	평화동지역화폐	1,000	
3	리플릿	꽃전 소개 및 가맹점 소개	5,000	
4	전단지	꽃전 소개	1,000	
5	전단지	꽃전 선포식	100	
6	신청서	가맹점 신청서	1,000	
7	신청서	약정회원 신청서	1,000	
8	화폐	꽃전 발행	60,000	
9	봉투	민원 봉투	2,000	
10	봉투	약정회원 봉투	2,000	
11	SNS홍보채널	홈페이지 http://kkot-jeon.kr/	1	
12	SNS홍보채널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ksan9001	1	
13	SNS홍보채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kotjeon/	1	
14	SNS홍보채널	밴드 band.us/@kkotjeon	1	
15	행사사진첩	선포식	1	
16	행사사진첩	선진지견학	1	
17	행사사진첩	워크샵	1	
18	행사사진첩	꽃전과 함께하는 평화마을장터	1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1. 첨부파일 - 보도자료(총 38건)

1. 전주 MBC	‘지역화폐 주민이 만든다’	2019-02-04
2. KBS 전북	‘전주 지역화폐 발행.. 상권건인 시험대’	2019-03-14
3. 프레시안	‘당신이 꽃전을 내밀면, 이웃은 마음을 줍니다 ‘	2019-03-15
4. 노컷뉴스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5
5. 뉴스웨이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5
6. 뉴스프리존	‘전주시, 전주형 공동체화폐인 꽃전 유통’	2019-03-15
7. 시가매거진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5
8. 해피스토어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5
9. 전민일보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5
10. 전라일보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5
11. 국제뉴스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성공적 정착 참여를’	2019-03-16
12. 연합뉴스	‘전주시 평화 2동에 공동체 화폐 꽃전 시범 유통 ‘	2019-03-16
13. 한겨레	‘전주시, 대안화폐 꽃전 유통-지역주민 돕는 착한소비 시동’	2019-03-17
14. 전북중앙신문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으로 사세요” ‘	2019-03-17
15. 브레이크뉴스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발행’	2019-03-17
16. 뉴스메이커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7
17. 새전북신문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7
18. 전북도민일보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7
19. 전북일보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발행’	2019-03-17
20. 한국일보	‘전주에서는 꽃돈으로 물건 사세요’	2019-03-17
21. 국민일보	‘전주, 반복사용형 지역화폐 꽃전 유통’	2019-03-18
22. 세계일보	‘전주 공동체화폐 ’ 꽃전 ‘을 아시나요?’	2019-03-18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3. 공무원 저널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24. 제주교통복지신문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25. 광명지역신문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26. 농업인신문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27. 화이트페이퍼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28. 전라매일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29. 전주매일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30. 전주일보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8
31. 새만금일보	‘전주형 공동체 화폐 꽃전 첫선’	2019-03-18
32. 전북타임스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유통, 지역경제 꽃바람’	2019-03-18
33. 아시아투데이	‘전주,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4개월간 시범사업’	2019-03-19
34. 당진신문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2019-03-19
35. KBS 투데이전북		2019-03-20
36. 새전북신문	‘꽃전’	2019-03-21
37. 케이랜뉴스	‘전주시 공동체 지역화폐 연착륙 성공할까’	2019-05-29
38. 전주라이프	‘전주형 지역화폐 꽃전 사용하세요’	

보도자료정리

지역화폐 주민이 만든다

© 2019-02-04

▶ 480



f t i 링크복사

[선명한 화질 : 상단 ⚙ 클릭 > 품질 720p 선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화폐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화폐를
발행, 유통하고 있어 자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전주에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 화폐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처음 발행된
그것이 마을 화폐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재작년 발행한
강원상품권 480억 원의 90%를
자체 예산으로 되사들여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합중국 강원도의원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판단되는데"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절반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 지역화폐가 선보입니다.

'꽃전'으로 이름 붙여진 평화동
마을화폐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상품권 발행을 기획해 준비했고
최근에 상품권을 정기 구입할 약정회원과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고은하 전주시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평화동에)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 교육을 할거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약정 회원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도록)"

평화동 마을화폐 '꽃전'은 기존 지역화폐와 달리 은행이 아닌 지역복지기관이 거래소를 담당합니다.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전주시는
6개월간 시범운영을 지켜본 뒤 지원을 확대할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김종성 전주시 사회경제지원과장
"작은 마을 단위부터 공동체성 회복과 연계해서 이게 진짜 지역화폐다, 우리 지역을 위한 지역화폐다, 그것을 인식하게 됨으
로써"

정부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2조 원. 주민이 직접 만든 마을 화폐의
작은 도전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전주 지역화폐 발행.. 상권 견인 시험대

입력 2019.03.14 (22:58) : 수정 2019.03.14 (23:48)

뉴스9(전주)

□ ○ ♥ ◊ ✎ ◀

▶ 🔍 📄 📱



게시일: 2019. 3. 14.
[영커]

전주시가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지역 화폐 시범 사업에 나섰는데요.
지역 화폐가 제 역할을 하려면
홍보 부족과 낮은 활용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꽃전 좀 바꿔주시겠어요?"

전주시가 새롭게 도입한 지역 화폐, '꽃전'입니다.

이달부터 보급을 시작해 전주 평화동 일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와 식당, 학원 등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화폐 종류도 전 원과 오천 원, 만 원권으로 세분화돼 있고,
지역 화폐로 환전할 때 5퍼센트 할인도 받습니다.

황은주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위한 소비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발행 규모가 2억 6천만 원어치에 불과하고,
환전소도 한곳뿐이어서
현재로서는 지역 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또 활용율이 10%에 달하는 군산 등과 비교하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유인책도 미미합니다.

가맹점 수도 50여 개에 불과해
전주에만 3천 곳이 넘는 가맹점을 둔
전통시장 상품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김수은 / 전북연구원 연구부장
"가맹점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맹점 참여도를 높이고 환전소 분포도를 높여서 사용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전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과 연계해
지역 화폐 시장 규모를 키우고,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지역 화폐 유통 방안 등을 찾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주시, 대안화폐 ‘꽃전’ 유통…지역 주민 돕는 ‘착한소비’ 시동

등록: 2019-03-17 11:24 수정: 2019-03-17 11:31



전주시 평화2동, 공동체 대안화폐 ‘꽃전’ 시범 유통
지역경제 활성화...시민공모로 1만꽃전 등 3종류
성공은 착한 소비자와 가맹점 등의 건강한 참여



전주시 평화2동 지역공동체 대안화폐인 ‘꽃전’을 홍보하는 팸플릿 일부

당신이 꽃전을 내걸면 이웃은 마음을 줍니다.*

전북 전주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공동체 대안화폐인 ‘꽃전’을 유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경제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2공원에서 꽃전 발행 기념식을 열고 화폐 유통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 사회활산센터가 시행하는 전주형 공동체화폐 시범사업은 주민이 꾸린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18일부터 5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평화2동 가맹점에서 실시한다.



1만꽃전

전주시사회경제네트워크가 시민공모를 통해 만든 이 화폐는 ‘1꽃전=1원’으로 1000꽃전, 5000꽃전, 1만꽃전 등 3종류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운누리상품권과 비슷한 지폐이다. 1000꽃전에는 전주의 과거(남부시장), 5000꽃전에는 전주의 현재(합죽선), 1만꽃전에는 전주의 미래(전주역앞 꽃마중길)를 상징적으로 디자인해 전주다움을 표현했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액면가의 80% 이상을 보면 꽃전 또는 현금으로 잔금을 받을 수 있
 꽃전을 받은 가맹점은 거래소(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거래
 꽃전을 다시 사용자에게 적당액의 손분시킨다. 꽃전 사용자는 거래소에서 5%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1000꽃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음식점·방간·편의점 등 평점 2점의 상점 50여곳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유통업소
 (형마트, 일부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했다. 시는 유통주어를 거쳐온 뒤 가맹점을 돌려나갈 계획이다.

의 특징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다른 지방정부의 상품권형 화폐와 달리 현금처럼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다. 가
 (약과 발행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5% 할인 혜택을 받은 사용자가 그 액수만큼을 이웃에 기부할 수
 의미가 크다.

□ 꽃전 유통 조감도



지역 대안화폐인 꽃전의 유통 흐름도

와 전주사회경제연구소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지역주민들을 돕는 착한 소비를 위해 시도했
 꽃전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웃을 위한 지역봉사자와 지역을 위해 기부하는 착한 소비자, 운영수수료를 내놓은 가맹
 (의 건강한 참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등을 누리집(kkotjeon.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기자 alk007@hani.co.kr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전라매일

2019년 03월 18일 월요일 007면 사회

전주형 공동체화폐 ‘꽃전’ 첫 유통

사회혁신 리빙랩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범사업 추진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평화2동 일부지역 대상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는 지난 15일 평화2동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주민대표, 가맹점 대표,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공동체 화폐 시범사업 꽃전' 발행 기념식을 가졌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주형 공동체화폐인 '꽃전'이 유통된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센터장 조선희)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대표 고은하)는 지난 15일 평화2동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주민대표, 가맹점 대표,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공동체 화폐 시범사업 꽃전' 발행 기념식'을 가졌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사회혁신 리

빙랩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주형 공동체 화폐 시범사업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와 지역주민이 구성된 운영위원의 주관으로 18일부터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평화2동 일부지역에서 실시된다.

전주시 사회경제네트워크가 시민공모를 통해 제작한 '꽃전' 화폐는 1,000원과 5,000원, 10,000원(1꽃전=1원) 3종류로 발행되며, 각각 전주의 과거

(남부시장)와 현재(압록산), 미래(매곡강)를 상징적으로 담아 전주다움을 표현했다.

꽃전 사용자는 거래소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5%를 선 물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꽃전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80% 이상 사용 시 꽃전 혹은 현금으로 잔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원활한 유통을 위해 잔금을 돌려받기 보다는 꽃전으로 지불하고 남은 돈을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꽃전을 받은 가맹점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래소)에서 거래에 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물리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이 꽃전을 다시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순환시킨다. 타 지자체가 한번 사용하고 폐기처분하는 상품권 형태와 달리 현금처럼 반복 사용함으로써 발행비용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꽃전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가맹점은 평화2동 지역에 소재한 가게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지에 맞춰 유종업소와 대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시사회경제네트워크는 현재 거래소인 평화2동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도보거리 내에 5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상태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꽃전은 '당신이 꽃전을 내리면, 이웃은 마음을 흔든다'라는 표어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을 지역주민이 서로 보살피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월 10만원 이상의 약정회원을에게는 방문배달 등 혜택이 제공된다.

꽃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비자가 기부할 통해 지역과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아를 수 있다는 점이다. 꽃전 이용자들은 물인에 중 원하는 만큼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시에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

또한, 해당지역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부상을 문화상품권 대신 꽃전으로 활용할 경우 학한 소비교육의 방안도 될 수 있다. 또, 꽃전으로 기부한 금액을 하한 이웃에게 해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기부문화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전주시 사회경제네트워크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학산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삼기 좋은 평화2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꽃전을 유통시킬 계획이다.

공동체화폐 꽃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kotjeon.modoo.at/)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kkotjeon/)을 참조하거나, 학산종합사회복지관(063-222-9999, 063-222-90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윤호 기자

전라매일 외 4개 03-18

KBS 투데이전북



투데이전북

2019.03.20 수

4

조회 219

투데이전북 03-20

HOME > 사실칼럼 > 온누리

꽃 전

이종근 기자 | 승인 2019.03.21 15:54

지역공동체 화폐인 '꽃전'이 전주에 유통된다. 전주시는 6월 말까지 완산구 평화2동 가맹점 50여 곳을 대상으로 전주형 공동체 화폐 시범 사업을 갖는다. 해당 화폐는 1,000꽃전과 5,000꽃전, 1만꽃전 등 3종류로, 남부시장과 합죽선, 첫마중길 등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디자인이 도입됐다.

백제대로는 전주의 서남쪽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전주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온조가 세우고 견훤이 부활시켰던 백제의 땅을 상징하며 전주가 도움이었던 것을 기려서 백제대로라고 명명했다.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安德里) 와동(瓦洞)마을은 기와집이 많아 '기와와(瓦)자'를 써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1920년경 물레방앗간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육당 최남선이 심준순례를 하면서 들른 집이 있으니 바로 심농 조지석의 집이다.

조지석은 덕진연못에 있는 취향정 편액을 쓴 서화가다. 최남선은 모악산 등정을 위해 전주 꽃밭정이를 거쳐 문정리를 지나 와동마을에 머물렀다 전한다. 평화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꽃밭정(花田里, 화전리)'는 양지 등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느 효자가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 엄동설한에 꽃을 찾아다니다가 이 마을의 샘에서 이를 발견했으며, 이를 꽃샘이라고 한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병든 아버지와 효심이 깊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병환을 고쳐드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어떤 의원도 약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시름에 빠져 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으로 활짝 핀 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겨울이었지만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 아들은 꽃을 찾아 전국을 각지를 헤맸다. 이같은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어떤 도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도인은 자신이 알려주는 곳에 가면 우물이 있고 그 곁에 꽃이 피어있을 거라고 알려주었다. 아들은 그가 알려준 곳으로 곧 달려갔고, 정말 우물가에 예쁜 꽃이 피어있었다. 그 꽃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리자 기뻐했고, 거짓말 같이 아버지의 병환이 나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바로 그 우물이 지금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위치한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꽃이 있는 우물(井)이 있는 곳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꽃전은 전주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꽃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가운데 옛 화폐 단위인 '전'을 가져와 만든 합성어다. 꽃전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가맹점은 평화2동 지역에 소재한 가게들이다. 유흥업소와 대자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됐다. 꽃전으로 기부나 헌금을 하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문화형성에도 기여하게 되는 만큼 우리 모두를 위한 꽃전인 셈이다.

/이종근(문화교육부 부국장)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전주라이프

힐러리, 문화, 행사 등 융성하고 활찬 생활 정변을 맞이합니다.

888
생활

전주형 지역 화폐 '꽃전' 사용하세요

전주시 최초로 전주형 지역 화폐 '꽃전'이 3월 5일 발행된다. '꽃전'은 문화에서부터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지역 화폐다. '꽃전'은 지난해 12월 지역 화폐 이념 시민 공모를 통해 지어졌다. '꽃전'이 꽃전을 내리면 이웃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구호를 담은 '꽃전'은 한국조폐공사에 의해 발행된다. '꽃전'은 전주시와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천 원 오천 원 만 원 등으로 구별해 디자인했다. 또 종이 지폐 내에 QR코드를 삽입 휴대 폰을 통해 등록 가능한 등 지역 화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주형 지역 화폐 발행 사업은 2018 전주시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와 공동으로 주최로 운영된다. '꽃전' 교환 및 환전을 담당하는 가맹점 업체는 확산까지 관여하지 않는다. 발행 사업이 끝난 후에는 가맹점을 담당하고 있는 확산까지에서 사업을 이어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3월 5일부터 발행사업 기간인 4월까지 총 1억 원 규모의 화폐가 문화, 지역, 순환된다. 소지자는 5%의 할인된 금액으로 '꽃전'을 구입하여 명 화동 내 가맹점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지자는 5% 할인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할 수도 있는데, 가맹점은 문화용 주민들을 위한 자금으로 모아져 사용될 예정이다. 발행 기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 적립 예정이며, 약 장이행에서는 '꽃전'을 직접 가져다주는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맹점은 소지자와 동일하게 지역 화폐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전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에서 3%의 수수료를 제 하고 환전이 가능하다.

문의: 확산종합사회복지관 003-223-9000

투데이전북 03-20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전주시 '공동체 지역화폐' 연착륙 성공할까

평화동 '꽃전' 유동 두 달, 홍보·가맹점 늘려야...주민참여에 실패할까

작성일 : 2019-05-29 08:57 | 작성자 : 김경호 (kimk@kairan.kr)



전북 전주시에서 민간주도형 지역화폐 실험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시범사업 종료 후 자체 운영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지난 3월 전주시 평화동 지역에서 본격 유동을 시작한 '꽃전'. 행정 당국이 발행을 주도하는 일반 지역화폐와는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탄생한 전주시 첫 지역화폐다.

'공동체형 지역화폐'를 표방하는 꽃전은 민간조직인 전주시회경제네트워크가 화폐발행과 조직구성 등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리빙랩 프로젝트'의 하나로, 다음 달이면 3개월간의 시범사업기간이 끝난다.

이후 호지부지 사라져버릴지, 아니면 대안 화폐의 모델이 될지 여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꽃전 거래소인 혁신종합사회복지관이 발한 5월 현재 가맹점 수는 70곳, 화폐발행액은 2000만원 이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주민들 “지나가다 홍보 플랜카드 보기는 했는데...”
상인들 “취지는 좋지만 요새 다들 카드 쓰나...”

29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 일대 상가. 공동체형 지역화폐 ‘꽃전’ 가맹점을 둘러봤다.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아직 꽃전으로 인한 효과가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차마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 사용처가 더 많아져야 한다, 발행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쏟아냈다.

꽃전 결제 건수가 많지 않은 곳들은 아무래도 부정적 목소리가 높다. 매장 입구에 ‘꽃전’ 할증표를 배치하고 있는 내일상 사장은 장차 꽃전 실질을 본 적이 없다. 그는 “꽃전보다는 가맹점끼리 사용하라는 것이 권장사항이지만 꽃전이 들어와야 하는 말은 할 텐데 두 달이 넘도록 여태 구경도 못해봤다”며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몸에 낫지 않나”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식품판매업주는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곳 사장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보다 거래소도 없고 가맹점도 적은 꽃전을 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랜드본만 갖고 다니는 시대에 아무리 지역화폐 취지가 좋다고 한들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고 말했다.

다짜고짜 ‘명함’을 제가하는 가맹점도 있었다. 한 김밥집에서 3000원 김밥 한 줄을 산 손님에게 만 원짜리 꽃전을 받고 현금 7000원을 내줬다는 것이다. 역면가의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금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김밥집 측은 “꽃전 자체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할증표를 기재되어있는 걸 보고서야 알게 됐다”며 “한내나 표기가 일관되지 못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꽃밭집이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한 자갈매 한의원, 이곳 안내 데스크에도 꽃전 할증표와 유인물이 놓여져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다. “시민들이 잘 모를뿐더러 일부러 꽃전을 구매해서 사용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듯하다”는 설명이다.

명색이 꽃전 가맹점 1호·2호점인 이곳 직원들도 꽃전을 본 기억이 가물거울하다. 딱 한번 받은 적이 있기는 했다. 바깥에·약 처방 등만 꽃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잔료비를 잘못 받았던 일이다.

가맹점 수수료에 관한 언급도 나온다. 30년 넘게 평화동에 살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여성학 전문점 대표는 “웃 장서는 현금 할인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꽃전을 받아서 환전을 하려면 여기에 수수료 3%를 또 떼이는 것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상권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더 알려줘야 한다”며 “그동안 말리는 없었지만 손님에게 받은 꽃전을 주변 가맹점 가서 사용하고 거기 사장도 우리 가게 와서 뜻을 사가기도 했다”며 웃었다.

모악로 대로변에 위치한 식자재마트 앞에 ‘전주공동체화폐 꽃전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66번째 가맹점인 이곳에 그동안 들어온 꽃전은 300만 원 산. 한창 때에 비하면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

마트 관계자 역시 “여기 포럼에서 마트 세 곳에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줬는데도 아직 오르는 주민들이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종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등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평화주공아파트 단지 초입에 위치한 세탁소에 꽃전 수입은 30~40만원에 이른다. 앞서 찾았던 상점들과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아무래도 세탁소는 다른 지역에 가서 맡기지 않는 소비 패턴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세탁소 사장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전을 하는 것보다 같은 가맹점에 사용하는 편이 더욱”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청결 것들을 동네 마트 가서 사는 데 꽃전을 쓰는 것”이라며 “좀 전에도 갖고 있던 꽃전 10만원 중에 근방 마트에서 5만원 정도 쓰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시장이나 한옥마을 같은 곳까지 전주시 전체로 확대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며 “평화동 사람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쓰도록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와 단순 비교는 안 돼... 만경주도형 꽃전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회복'

'여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착한 소비 운동'.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내린 꽃전에 대한 정의다. 카드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기존 소비패턴을 우리지역 가맹점 구매로 유도, 변화시키는 '공동체형 소비운동' 형태라는 정의 다른 일반 지자체 지역화폐와 구별되는 정체성이라는 설명이다.

'관 주도형' 지역화폐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꽃전의 목표다.

지자체가 발행·유동하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월 같은 개념이라면 만경 주도의 꽃전은 재정개선을 위한 운동인 셈이다. 속도와 규모가 행정이 이끄는 것에 머지않아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복지관 관계자는 "단순히 상품권을 한번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상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넓혀가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패턴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매일 소비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10만원, 20만원씩 써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며 "꽃전은 일반 소비자들이 개별 구매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악성회원이 현재 83명"이라고 덧붙였다.

복지관은 "여적 이용자가 적은 것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지역 소비자로 형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가맹점 100곳, 약정회원 100명 정도가 구성되면 이 그룹 내에서 꽃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새로운 방안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 초기 1000곳이 넘는 상점들을 접촉했지만 화폐유통을 시작할 당시 가맹점은 50곳에 그쳤다. 상인들이 환전수수료 3%에 대한 부담을 느낀 탓이다.

이후 기존 가맹점이나 약정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단골들을 소개하고 설득하면서 시나브로 70곳까지 늘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바로 이런 형태가 앞으로 가맹점이 확장될 방식"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사이에서는 벌써 좋은 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상점들이 각자 개별 소비하고 있는 품목들을 공동으로 구매하자는 제안이 그 중 하나다.

꽃전 운영은 현재 거래소 중심에서 벗어나 가맹점에서도 품목발동, 약정회원 이벤트 구성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완전 시 공제되는 3% 수수료는 가맹점이 지역에 기부하는 형태로 배분 예정이다.

소비자가 꽃전 구매 시 5% 할인 대신 가부를 택할 수 있는 것과 밀착상동한다.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상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관은 유통량과 가맹점 확대 수에 등을 지켜본 후 현재 월화2% 중심에서 월화1%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내려갈 계획이다.

6월까지 운영을 받고 있는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상인과 지역민들이 서로 협상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네트워크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할인들과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 방식과 형태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플랫폼에는 명확한 꽃전을 하나로 모으고 전 지역화폐의 지속가능 방안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케이렌뉴스

http://www.klan.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10050000&gisa_idx=46970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 첨부파일

사업관련제작물

가맹점 신청서

가맹점명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폐기]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얻으려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사업주명, 가맹점주소, 가맹점명, 연락처 등 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정보
[수집(이용목적)] 지역화,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관련
[이용 및 보유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 거부 및 불응시]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가맹점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화페는 어떻게 순환될까?

가맹점 등록절차

- 가맹점 방문 및 상담
- 가맹점 신청서 작성
- 합격 진행
- 가맹점 등록 및 본인 전달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화페 담당자
063223-9999

평화동 사람들을 이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최 전주사회혁신센터 2018 리빙랩프로젝트
주관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화페 이용 방법

평화동 지역화페는

전주 지역화페 시범사업으로 <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발행한 **평화동 지역화페**입니다. <사회경제네트워크>와 협약을 맺은 평화동의 모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동 지역화페는 왜 발행하나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돈이 평화동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화페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지역의 주민들을 돕는 좋은 소비를 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성찰 = 소비라고 할 만큼 소비는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경제활동을 구실로 이웃과 관계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발행합니다.

소비자

- ① 소비자는 거래소(학산복지관)를 통해 지역화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페를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할인 대신 기부하여 지역공동체 기금 마련에 동참하실 수 있으며, 이 기금은 기부금 명수를 발행이 가능합니다.)
- ② 지역화페는 현금, 오천원, 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 ③ 구매하신 지역화페는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가맹점에서 사용 시 잔금을 지역화페로 받습니다. (단, 지역화페 20% 이하의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④ 소비자가 지역화페를 사용하시면 소비의 일부가 대가업이나 외부로 가지 않습니다. 지역 내에 머물며 이익이 순환되어 지역복지와 공동체경제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⑤ 소비자는 약정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회원은 약정기간동안 10만원이상 지역화페를 구입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약정회원이 되시면 약속된 시간과 장소로 지역화페를 배당해드립니다.)

가맹점

가맹점은 지역화페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합니다. 지역화페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수익이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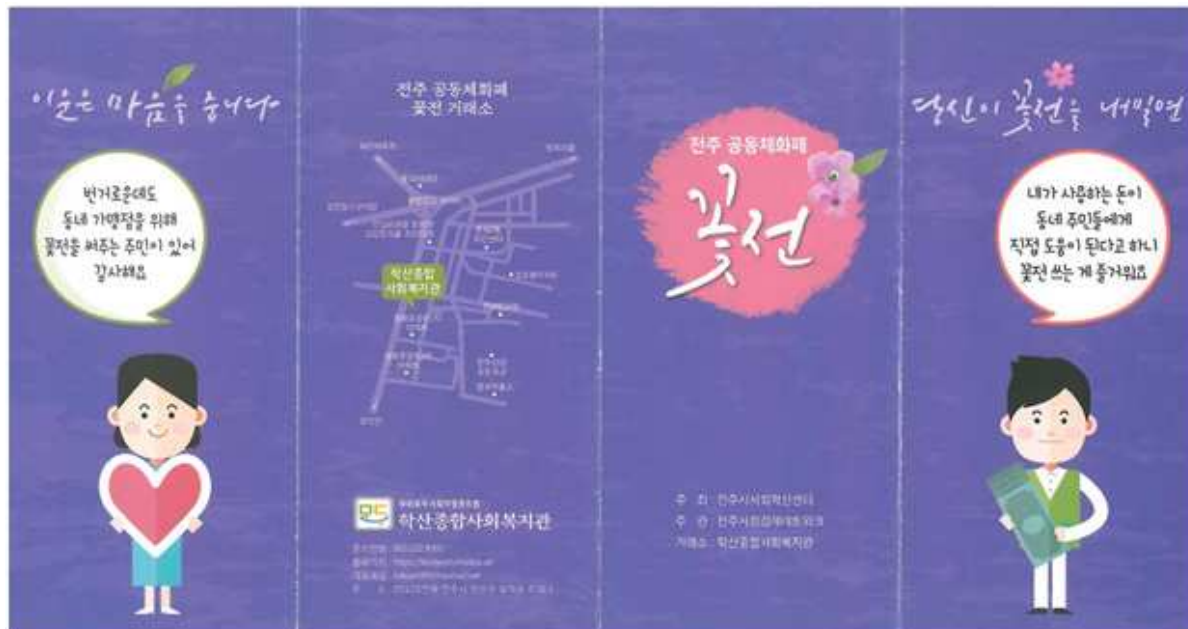
- ① 가맹점은 거래소(학산복지관)를 통해 화폐 대안이 가능합니다. 화폐는 3%가 공제된 금액으로 환전됩니다.
- ② 지역화페는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됩니다. 가맹점에서 지역화페를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할수록 지역을 위해 사용할 기금이 축적됩니다.
- ③ 가맹점은 지역화페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자연스럽게 매출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홍보 리플릿1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사업관련제작물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 첨부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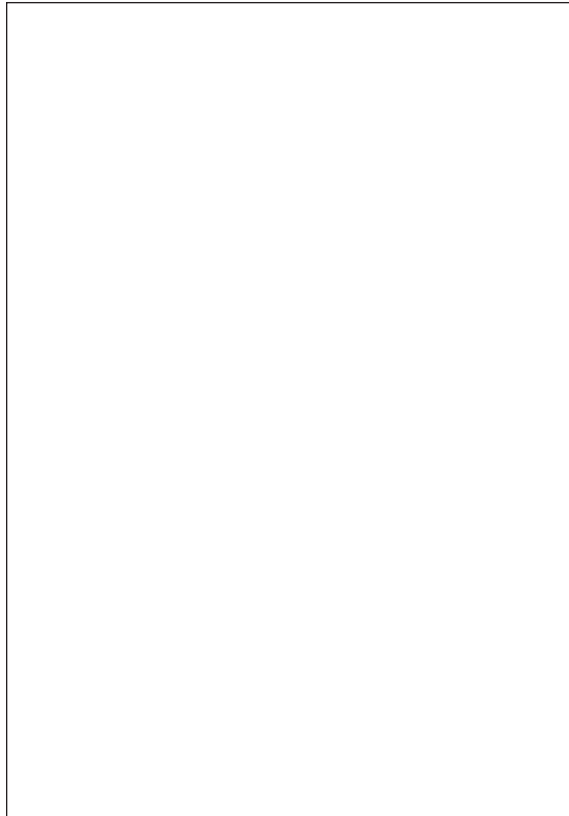
사업관련제작물



홍보 리플릿2 - 가맹점 지도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사업관련제작물



홍보 리플릿3



홍보 리플릿4 - 꽃전 선포식 홍보물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사업관련제작물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서

성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및 취급품목	
가맹점 주소	
연 락 처	가맹점 대표자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전주시지역화폐(꽃전)는 가맹점 개입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용역이 가능하며,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2020년 1월 1일부터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요구된 항목
[수집 이용 제공 용역] 가맹점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점사본

년 월 일

신청인 : 전주시회경제트윈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서

성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및 취급품목	
가맹점 주소	
연 락 처	가맹점 대표자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전주시지역화폐(꽃전)는 가맹점 개입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용역이 가능하며,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2020년 1월 1일부터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요구된 항목
[수집 이용 제공 용역] 가맹점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점사본

년 월 일

신청인 : 전주시회경제트윈

당신이 꽃전을 내리면
이웃은 마음을 줍니다

평화동 지역화폐 꽃전

경제+공동체
활성화

가맹점

소비자

QR 코드

가맹점을 통해 꽃전 가맹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 후원: 전주시회경제트윈
문의: 가맹점 확산지원 (063-222-9001)

꽃전 약정회원 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연 락 처	
결재방법	미결제(가맹) 미결제(가맹)
약정 금액	미 10만 꽃전, 미 20만 꽃전, 미 30만 꽃전, 미 40만 꽃전, 미 50만 꽃전, 미 60만 꽃전, 미 70만 꽃전
수령 장소	
수령 일	미 1월 1~3일, 미 4월 4~6일, 미 7월 7~9일, 미 10월 10~12일
약정 기간	미 1년, 미 2년, 미 3년, 미 4년, 미 5년, 미 6년, 미 7년, 미 8년, 미 9년, 미 10년
약정 유형	미 1년, 미 2년, 미 3년, 미 4년, 미 5년, 미 6년, 미 7년, 미 8년, 미 9년, 미 10년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전주시지역화폐(꽃전)는 가맹점 개입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용역이 가능하며,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2020년 1월 1일부터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요구된 항목
[수집 이용 제공 용역] 가맹점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점사본

년 월 일

신청인 : 전주시회경제트윈

꽃전 약정회원 신청서

이름	
생년월일	
연 락 처	
결재방법	미결제(가맹) 미결제(가맹)
약정 금액	미 10만 꽃전, 미 20만 꽃전, 미 30만 꽃전, 미 40만 꽃전, 미 50만 꽃전, 미 60만 꽃전, 미 70만 꽃전
수령 장소	
수령 일	미 1월 1~3일, 미 4월 4~6일, 미 7월 7~9일, 미 10월 10~12일
약정 기간	미 1년, 미 2년, 미 3년, 미 4년, 미 5년, 미 6년, 미 7년, 미 8년, 미 9년, 미 10년
약정 유형	미 1년, 미 2년, 미 3년, 미 4년, 미 5년, 미 6년, 미 7년, 미 8년, 미 9년, 미 10년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전주시지역화폐(꽃전)는 가맹점 개입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용역이 가능하며,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2020년 1월 1일부터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주소, 연락처 등 신청서에 요구된 항목
[수집 이용 제공 용역] 가맹점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제공 용역] 동의를 얻어 주시각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점별 수집 이용 제공 용역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동점사본

년 월 일

신청인 : 전주시회경제트윈

당신이 꽃전을 내리면
이웃은 마음을 줍니다

평화동 지역화폐 꽃전

경제+공동체
활성화

가맹점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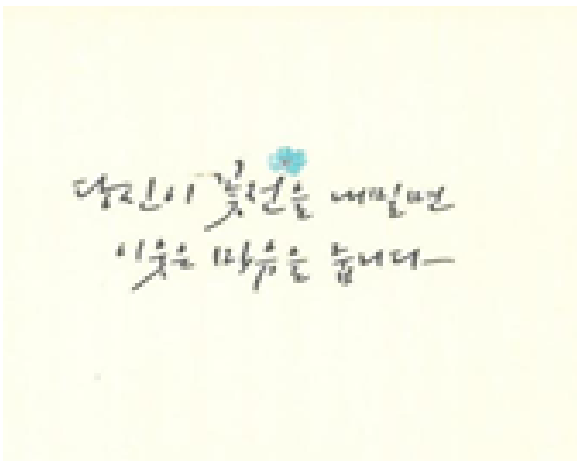
QR 코드

가맹점을 통해 꽃전 가맹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 후원: 전주시회경제트윈
문의: 가맹점 확산지원 (063-222-9001)

가맹점, 약정회원 신청서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사업관련제작물	
	
꽃전발행	
사업관련제작물	
	
약정회원봉투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첨부파일 - 행사사진첩

홍보 활동	
	
꽃전 선포식	꽃전 선포식
	
선진지견학(마포- 모아)	선진지견학(시흥-시루)
	
외부 자문	워크샵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이동식 거래소 운영(평화마을장터)



이동식 거래소 운영(우리동네장터)



소비자 교육



소비자 홍보



가맹점 모니터링



약정회원 모니터링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사업관련제작물



홈페이지 <http://kkot-jeon.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kot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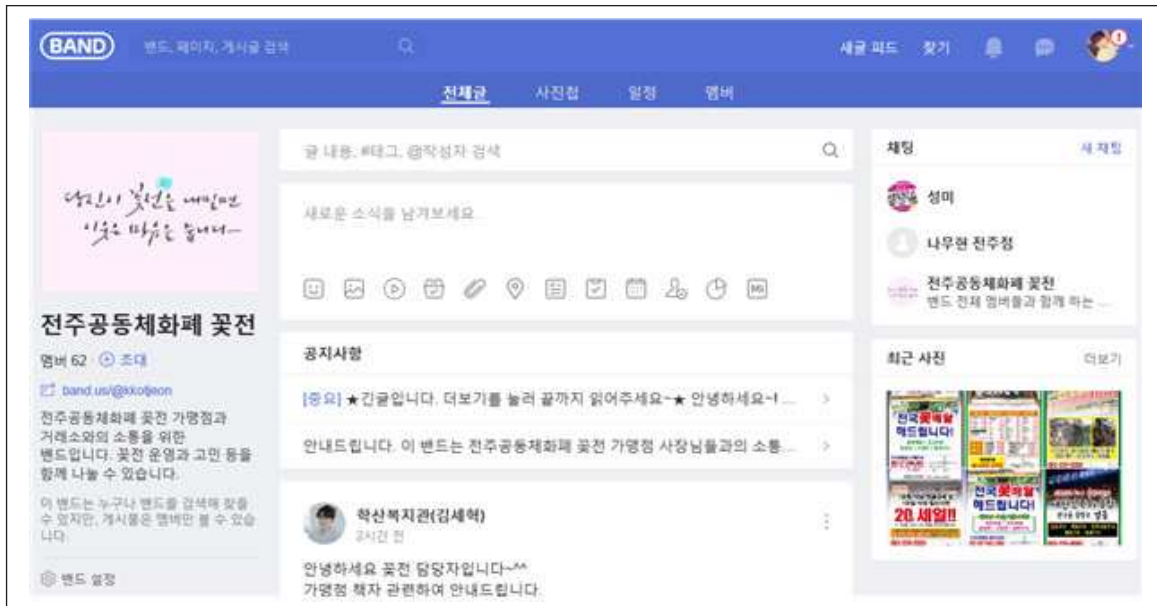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사업관련제작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ksan9001>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사업관련제작물



밴드 band.us/@kkotjeon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 및 민간의 역할」

이상진 |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 및 민간의 역할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2019.10.16.

Key Questions

1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의 성과 및 과제는 무엇인가?

2

사회적금융시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이를 위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부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분		기관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19년 6월말 집행액 (기업수)	운용형태
대출	공공	서민금융진흥원	교부액 41.4 기관 대출 304	50	19 (36개사)	간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85	500	241 (144개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	100	9 (20개사)	
	민간	신협	95	300	107 (194개사)	
		새마을금고		10	0 (2개사)	
보증	공공	신용보증기금	1,032	1,000	679 (411개사)	직접
		지역신용보증재단	135	150	66 (147개사)	
		기술보증기금		700	725 (167개사)	
투자		한국성장금융	141	200	104 (2개사)	
		한국벤처투자	63	220	152 (17개사)	
소계		-	1,937	3,230	2,102 (1,144개사)	

출처) 20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19.7.10)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 사회적경제 자금공급 현황 및 한계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에 비해 영세한 지역 기업들에게는 정책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어려움 (수요자 측면)

- 신용보증기금 등: 한도는 매출의 50% 이내로 제한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조업 중심, 운전자금은 1억 한도
- 모태펀드: 주식회사, 매출이 많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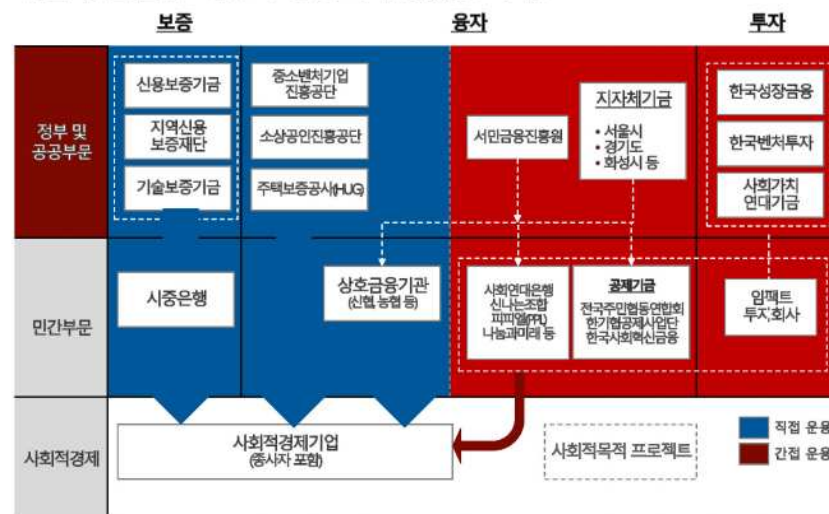
지역 내에 신뢰할만한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이 부재함 (공급자 측면)

- 사회적경제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정성적인 평가가 심사에 중요함 → B&A 지역 담당자의 의지와 관심 미흡
-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지역내 전문기관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4

2. 사회적경제 자금공급 현황 및 한계

또한,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파트너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5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3. 사회적금융 과제

현장과 밀착하여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유자)

구분	대출사업 수행기관	대출사업 회정기관	계(명)
기관수(개)	17	5	22
소재지(개)	수도권 13	1	14
	지방 4	4	8
기관형태(개)	비영리 14	5	19
	영리 3	-	3
업무수행 인력	평균인원 (명)	78	156
	평균연령 (세)	369	404
	평균자산 (억)	78	08
재무현황 (억원)	평균부채	16	06
	평균자본	62	02
	평균대출사업수행기간 (년)	5.2	
	평균누적대출액(억원)	120	

참고) 대출중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18년 실태조사 결과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sfcinfo.or.kr/Product>)

지역	기관명	지원분야	연락처	홈페이지
서울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금융	02-794-6503	www.psc.kr
	신나는조합	금융	02-365-0380	jo.kurion.kr
	(사)한국사회복지기업중앙협의회공제사업단	금융	070-5099-1672	www.sfcinfo.or.kr
	한국사회혁신금융(주)	금융	02-6408-0000	ksif.or.kr
	(재)함께일하는재단	금융	02-338-0019	hmkkeag.com
	동작신용협동조합	금융	02-836-6300	www.dongjak.co.kr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금융	02-310-8508	www.maynang.org
	㈜비올라스	금융	02-733-0703	www.biolass.kr
	(재)한국사회투자	금융	02-2277-7694	www.socoinvest.or.kr
	사단법인 함께안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금융	02-2274-9637	www.bscale.com
	사단법인 퍼파엘	금융	02-3789-0023	www.ppl.or.kr
	루트임팩트	금융	02-6465-0188	www.rootimpact.org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금융	042-229-8914	www.jecag.com
충남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금융	041-415-2012	www.schngnag.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금융	043-222-9001	www.cbep.com
제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금융	064-724-0165	www.jshub.org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비금융	053-251-3388	www.tbac.or.kr
경북	(사)지역사회경제어브센터	비금융	054-848-8532	-
인천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비금융	032-873-3800	www.inchark.or.kr
부산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비금융	051-839-8388	www.bznet.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실림	비금융	02-363-4047	www.socobanet.or.kr

6

3. 사회적금융 과제

지역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통해 시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 같은 도매기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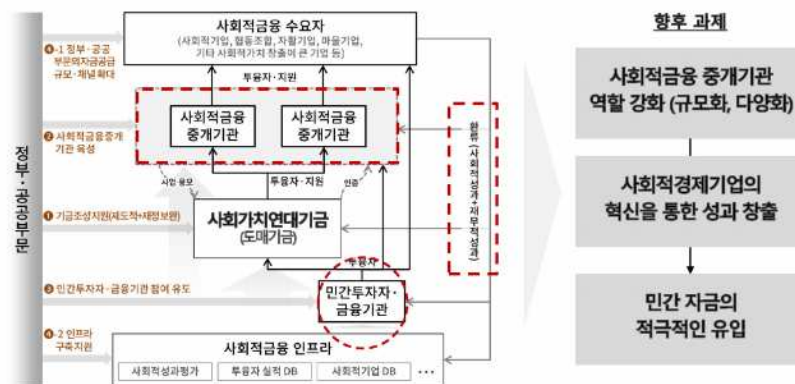


7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3. 사회적금융 과제

지역 기반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성장을 통해 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사회적금융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출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쪽)

8

Key Questions

1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의 성과 및 과제는 무엇인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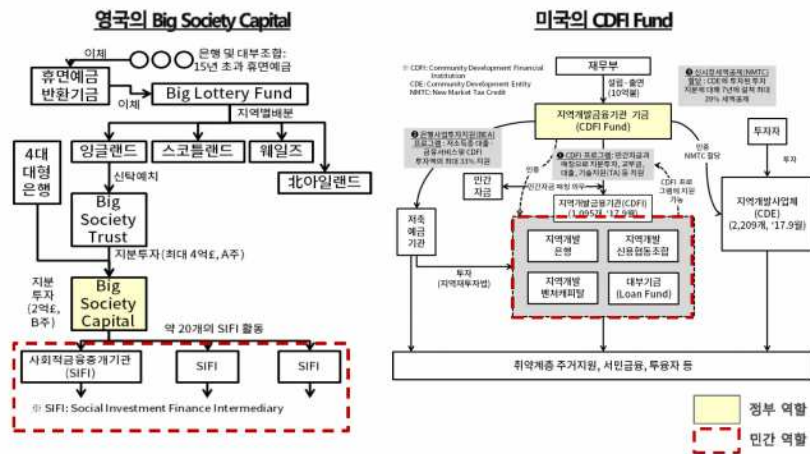
사회적금융시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이를 위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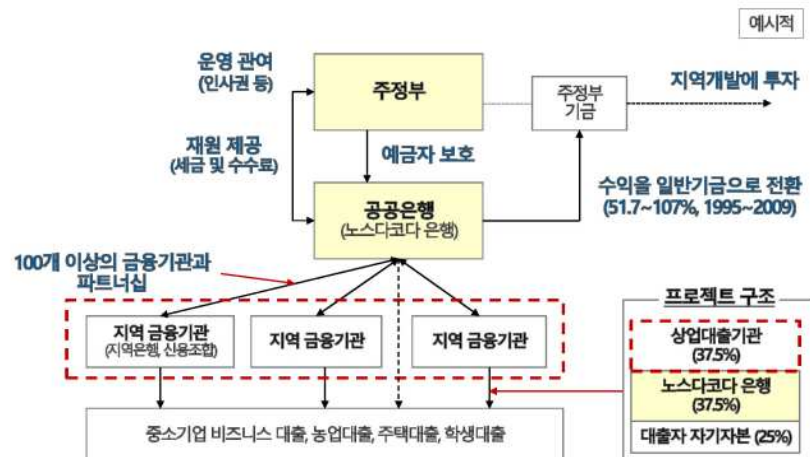
9

영국, 미국은 정부가 도매기금을 조성하여 초기 시장을 조성했습니다.



10

미국 노스다코다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립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금융기관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211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1. 해외사례 분석 - 3) 금융상품, 90/10기금

[참고2]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 파이낸솔(Finansol)과 90/10펀드



파이낸솔(Finansol)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대금융 기구로 연대입금저축상품 기준을 설정

- ① 연대기준: 예금상품의 매커니즘이 2개 조건 중 하나에 부합
 - 공모된 예금잔고의 최소 5%를 연대활동에 투자
 - 이자 또는 성과금의 최소 25%를 정기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기부
- ② 투명성과 정보의 기준: 연대저축의 책임자 임명
 - 라벨화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청자, 예금주 및 판매망에 제공
 - 매년 상품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예금주에게 완벽하게 통보

90/10 펀드

- 1) 사회적 책임 투자 (윤리적 금융에 속하는 펀드에 90% 강한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비공개 기업 (연대 금융의 주체)에 10% 투자
- 2) 가령 연대 기금(PFE, PERCO...)의 무추월 펀드는 모두 '90/10'기금
- 3) 연대 주주는 투자자가 전문 연대 기금 제공자를 통해 사회 또는 환경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투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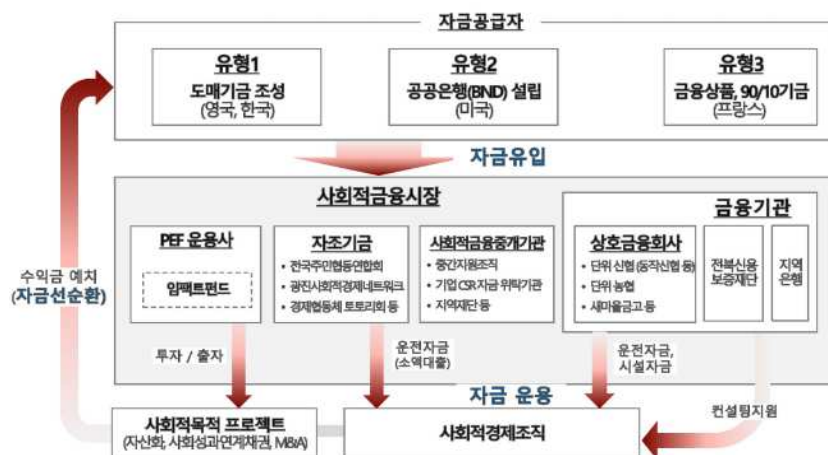
※ 파비우스 법(2001년 2월 17일)

PERCO (Collective Retirement Savings Plan)를 설정한 모든 회사가 선택한 모든 기금 중에서 연대 기금을 제공하도록 요구

14

2. 사회적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조건

민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15

건전한 사회적금융시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회투자기금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기금은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다양한 사업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민간은 사회적경제에 알맞은 금융상품(공제, 투·융자 등)을 개발하고,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16

Key Questions

1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의 성과 및 과제는 무엇인가?

2 사회적금융시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이를 위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7

지자체, 지방 공기업 등과 협업하여 지역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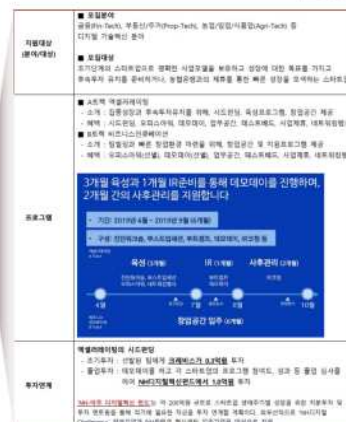
발굴 및 심사	상품 개발	사후 관리	네트워크 확대
• 무-통자 신청 접수 - 기업 모집 및 발굴 - 기업 정보 수집 • 무-통자 심사 - 기업평가 및 현장 실사 - 사업성 평가 및 심의위원회	• 금융상품 기획 및 관리 - 기업자금 수요 분석 - 상품 설계(연도, 기간, 이율 등) - 상품 수익성 예측 - 규정 및 필요서류 관리	• 위험 관리 - 부실률 관리 - 대손충당금 관리 • 사후 관리 - 상품 일정 및 연체 관리 - 교육 및 경영자문	• 기업간 연대를 통한 위험관리 - 대상 기업 상호 추천 - 자금 매칭 및 유동성 공급 - 사회적금융 인재육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당사자협의체 추천	도매금융과 연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자산담보) 연계	타 금융기관 연계

지역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액셀러레이팅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야	사업주체	투자	특징
소총	소총생태계	각자	서드투자	· 소총생태계전문 · 기술력(2차)
Y-온도비 Start-up MEET	사회적경제조직	다자간협력	사업자 회견(2회)	· 소총생태계특화제품 별도 운영 · 한화투자자그룹, 한디지 기술물류·대안 투자 · 기업가제
업소총	친환경생물산업 친화적농업생물산업	친환경농업기업 (농·농수업)	친환경농, 신농, 세드, 세드농업	· POC-MEET·소총 · 농가·농수·생물자원·생물
업소총	지속가능 소총생태계	다자간협력 (농·농수업)	지재비	· 에이비지·에이비지·에이비지 · 지재비출 · MEET 제출
D-CAMP	조각 스타트업	각자	회견 3회 투자	· 물산대방출 · 물산대방출(물산대방출)
Next지열 Challenge	기술혁신생태계	Next지열 포스트지열	시드 펀딩 (초기 7~8억원)	· 물산대방출·물산대방출 · 물산대방출·물산대방출
조각지열	(에너지)생태계	각자	투자(회견 5회)	· 국내 최초 지열 개발생태계
소총생태계	친환경/에너지 등	각자	투자(약 5,600만원)	· 세계최대 제로에너지
L-CAMP	조각 스타트업	물산대방출	투자(2~3억원)	· Seed container/Brenture Capital · 물산대방출·물산대방출
Make 기러기(지열)	에너지서비스	친환경농업 (농·농수업)	초기투자 2천만원	· 친환경농업 · 에너지서비스·지열·물산대방출 · 2019 지열·물산대방출·물산대방출
물산대방출·물산대방출	(에너지)사회적경제	친환경농업 (농·농수업)	창당생각 · 물산대방출(2019)	· 친환경농업 · 2019 지열·물산대방출·물산대방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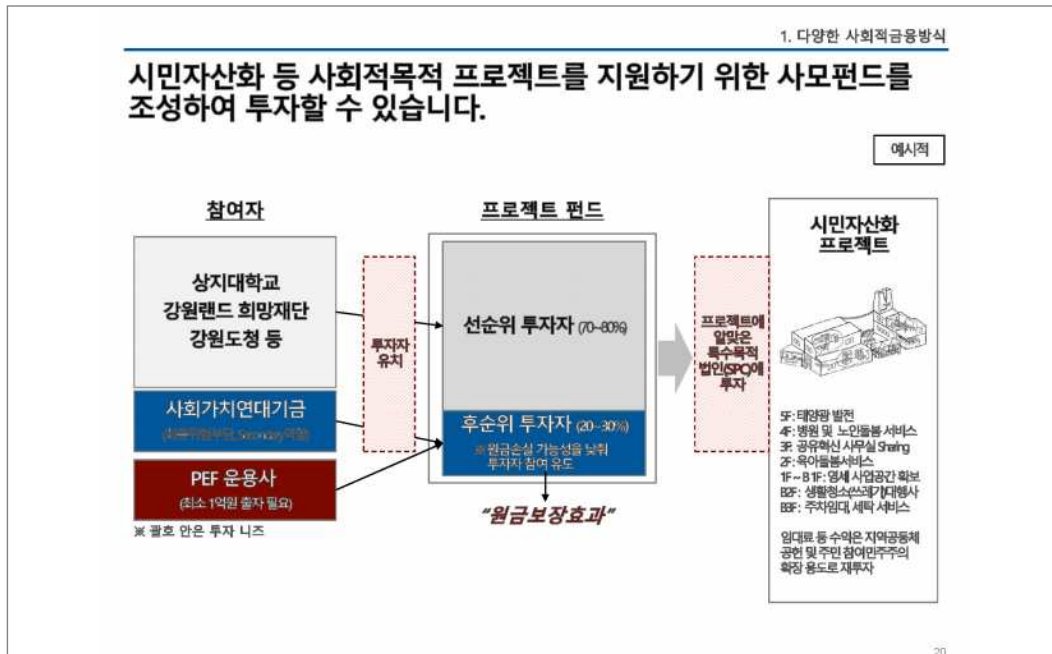
* 남그늘은 JDC와 MYSC의 MOU체결을 통해 진행 (주최) JDC / 기획운영 MYSC
* 언더독스/함께일하는재단은 민간협약사업 사례로 협의

주)창업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 소액 투자하고 맞춤형 컨설팅 사무공간 지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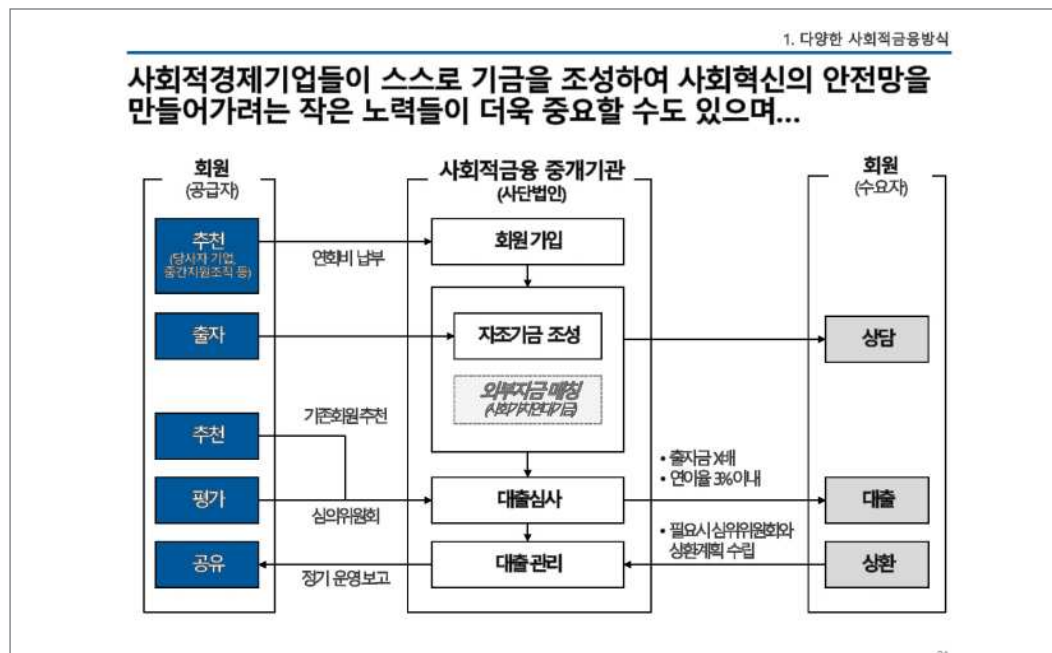


168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0



21

1. 다양한 사회적금융방식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제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협동조합보험) 이해

공제사업 형성과정

- 경제적 약자의 결속과정에서 자본력이 취약한 노동자, 소생산자의 자본력 확충 욕구, 개별경제주체의 자립화 등을 배경으로 민주성, 공정성, 자발성, 인간성, 사회성의 원리 등을 조직원리로 하여 형성되어 왔음

공제사업 특징

- 공유재산이라는 의식이 강함
- 사업비가 비교적 적게 들고, 보험계약의 보전이 완전히 이루어짐

공제사업 필요성

- 보험의 판매를 지속하여 취급량을 크게 하면 할수록 보험자금이 되고 불리는 자금이 거대화해지며, 이것을 사회적경제에 투·융자하여 여기서 생긴 이익으로 보험경역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음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사례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현재 221,325개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2,370,310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고 국내총생산 10%,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10.5%임
- 직원 10명 미만인 조직이 전체의 75%로 프랑스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규모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숫자가 월등하게 높음
-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300여개 이상의 공제조합이 사회적연대경제 조직과 종사자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임
-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국제연맹(ICMIF)에 따르면 2014년에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이 27.1%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사회가치연대자금 1차 회의자료

22

2. 인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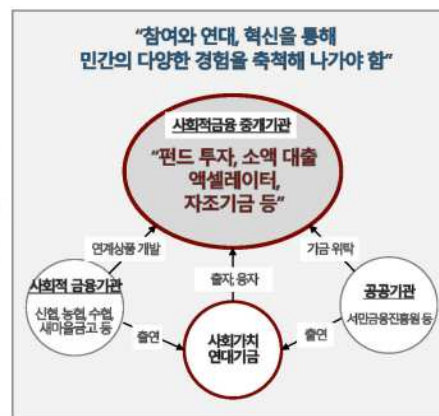
민간은 사회적금융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신뢰자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업 특성

“실물경제 성장을 뒤따라가는 경향”

- 금융거래는 투자(또는 대출) 대상에 대한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거래여부 및 거래 조건 등 투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며...
- ...이러한 위험평가에 있어, 투자 대상 (또는 차입자)에 대한 정보 축적이 필수 요소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금융의 선제적 지원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
- Risk-Return Profile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는 거래 실행이 어려움

“참여와 연대, 혁신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함”



23

감사합니다.

(04793)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6호, 607호(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

E-mail info@ksifinance.com

Website <http://www.ksifinan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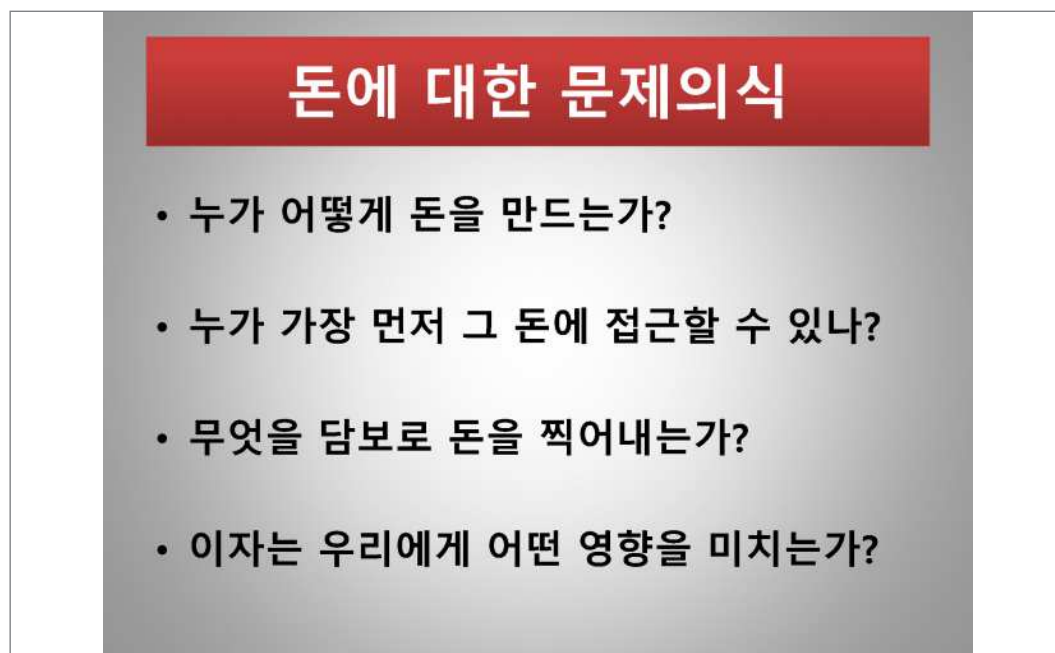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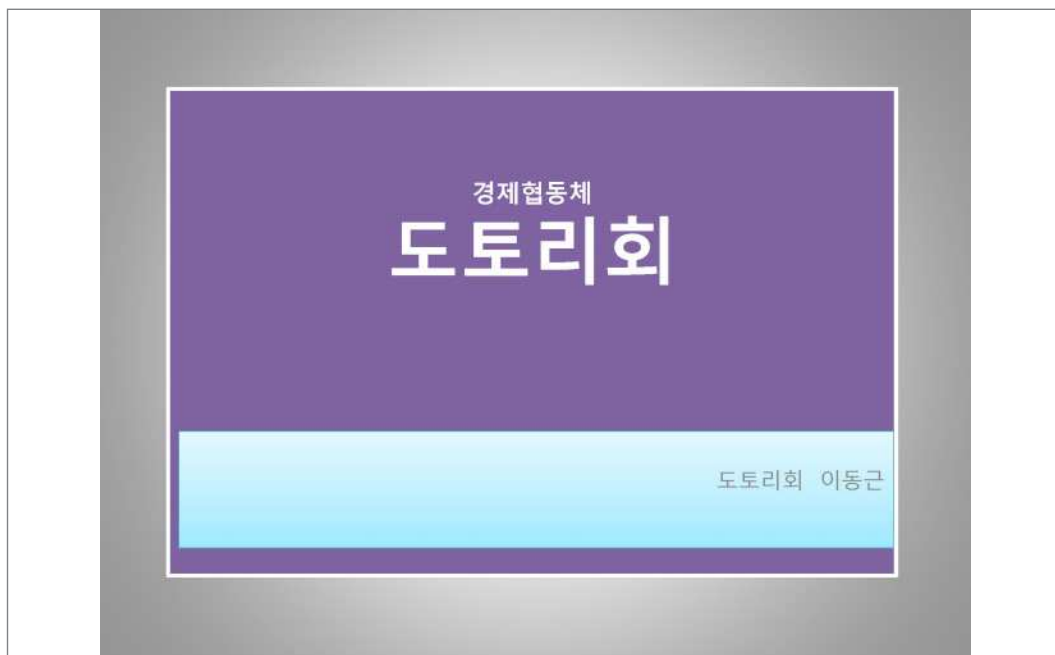
Facebook <http://www.facebook.com/ksifinance16>

Copyright © 2019 by 한국사회혁신금융원
본 리포트는 한국사회혁신금융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회람, 인용, 배포를 위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24

「경제협동체 도토리회」

경제협동체 도토리회회장 | 이동근



부채화폐시스템, 부채사회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너무나 간단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경제학자)

“기하급수적 성장이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광인이거나 경제학자일 것이다.” (케네스 보울딩, 경제학자)

“우리의 통화시스템은, 부채가 없을 때 어떠한 돈도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마리너 S. 에클스, 전(前)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부채사회의 이자비용

- 현재 시스템에서 하위 90%의 사람들은 이자지출이 더 많고, 상위 10% 사람들은 이자수입이 더 많다. 즉, 이자를 통해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 민간은행이 무에서 창조한 돈을 빌린 대가로 미국이 갚아야 할 이자비용은 2007년에 연간 **대략 4천6백5십억 달러**(약 500조원, 2018 한국정부예산은 429조원)에 이른다. 이 액수는 그 해 **미국 연방재정의 17%**에 해당된다. 즉, 이것은 마치 미국사회에 부과되는 세금과도 같은 것으로, 이 돈은 소수 은행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통화발행권과 통제권은 누구에게?

"은행이 대출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용이 창조되고,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지며, 완전히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다."
(그레엄 F. 타워프, 캐나다은행 총재)

"금융기관은 군대보다 더 위험하다. 만일 국민들이 민간은행에 통화 발행권을 넘겨주면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국민의 자녀가 거지가 될 때까지 그들의 재산을 강탈할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

"한 나라의 통화를 발행하고 통제하는 게 내게 허락된다면, 나는 누가 법률을 만들든 개의치 않겠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은행가)

정부의 정책결정은?

"나는 은행에 의해 돈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보통시민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 나라의 신용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며, 자신들의 손아귀에 국민의 운명을 쥐고 있다."

(레지널드 매킨나, 전(前) 영국 미들랜드은행 이사장)

돈의 본질

- 화폐시스템의 개혁은 화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돈(money)은 **상품(commodity)**이 아니다. 그리고 돈(money)과 **신용(credit)**은 구별해야 한다.
 - 1) 돈이 **상품**이라면, 그 사회는 **부유한 사람(the wealthy)**들이 지배한다.
 - 2) 돈이 **신용**이라면, 그 사회는 **지금처럼, 은행가(the bankers)**들이 지배한다.
 - 3) 돈이 **법률에 의한 추상적인 강제력(abstract legal power)**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법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 The nature of money is that it is a **legal invention**. Money is a **creature of the law**.
- Money is a **common resource**, which should be **created by Government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 *Money exists **not by nature but by law***

‘화폐시스템’은 바꿀 수 있는 것

- 화폐시스템은 **인간이 고안한** 제도!
- 다른 화폐시스템으로 **다른 세상은 가능** 하다!!

*화폐발행권을 장악하려는 세력은 소위 **경제학자들**을 내세워 **언어와 사고의 조작**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관점**을 관철시켜왔다. 현 화폐시스템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지속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화폐역사가, 알렉산더 델마(Alexander DelMar)는 **화폐시스템은 사회정의를 배분하는 가장 큰 장치(society's greatest dispenser of justice or injustice)라고 말했다.

도토리회 설립배경

- 현 화폐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시스템의 필요성
- 새로운 화폐시스템을 적용한 마을은행 구상
- 농촌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지역금융에 대한 필요성
- 지역화폐의 유통을 촉진하는 마을은행의 필요성
- 마을은행 간 지역금융 네트워크조직의 기초단위 역할

시노리지 (seigniorage)

- 화폐주조차익(화폐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그 화폐의 액면가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 프랑스어 seignior에서 유래
- 영국의 시노리지 효과(1998-2016 평균액) : 민간은행 약 35조원, 중앙은행 약 2조원
- 중앙은행이 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직접 발행한다면,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화폐공급의 30%를 CBDC형태로 발행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누적 시노리지는 약 277조원에 달한다.) 공공영역에서 더 많은 재정확보 가능
- 일종의 보조금일 수 있는 시노리지 특권을 민간은행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화폐민주화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

유럽 4개국 민간은행 시노리지

TABLE 1. COMMERCIAL BANK SEIGNIORAGE ACROSS FOUR COUNTRIES

COUNTRY	PERIOD STUDIED	AVERAGE ANNUAL COMMERCIAL BANK SEIGNIORAGE	AS % OF GDP	CUMULATIVE COMMERCIAL BANK SEIGNIORAGE
UK	1998-2016	£23.3 billion	1.23%	£443 billion
Denmark	1991-2015	DKK11.7 billion	0.7%	DKK293.4 billion
Switzerland	2007-2015	CHF2.8 billion	0.6%	CHF34.8 billion
Iceland	2004-2015	ISK14.1 billion	0.9%	ISK169.7 billion

[주권화폐] 시스템

- **주권화폐(Sovereign Money)**는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로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
-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는 시중은행 계좌에 숫자로 기입되는 화폐로서, 요구되어질 때 현금으로 내준다는 은행의 지불 약속과도 같다. 대체로 유통화폐의 **97%**가 **시중은행이 창조한 전자화폐**로 구성
- 스위스는 1891년에 스위스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은 이를 금지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전자화폐의 출현으로 시중은행은 또다시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이제는 전자화폐도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기에 옴. 즉 **전자화폐도 주권화폐의 하나로 취급해야 함**

마을은행 설립구상

새로운 화폐시스템(Sovereign Money, SM)에서 작동하는 마을은행을 설계

현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 착한 은행, 착한 금융은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SM시스템을 도입**

국가차원에서 이행하기 어렵다면, 지역에서 먼저 시도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접근

마을은행 설립구상

- 현 화폐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주권화폐시스템을 적용한 마을은행 설계**(국가의 축소판인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화폐형태로 주권화폐를 발행**하여 공급하는 주권화폐시스템 설계 고려)
- 마을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은행이 아니라, **지역민 소유의 비영리은행**을 목적으로 함
- 마을은행은 **마을기금**을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저장소** 역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토리회>를 **주권화폐시스템의 실험형 마을은행**으로 전환

마을은행 네트워크 구상

*네트워크의 목적

마을은행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마을은행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은행 네트워크를 조직

*네트워크의 설립

지역별로 마을은행연합회를 구성하고, 이 연합회를 <00지역 자치은행>으로 명명하여 네트워크조직 설립추진

<00지역 자치은행>은 각 마을은행의 금융안전망을 형성해주는 역할 담당

더 나아가, <00지역 자치은행>을 연결해서 광역, 또는 국가 단위에서 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

통합적&단계적 접근

주권화폐시스템

마을은행 네트워크

마을은행

지역화폐 + 대안화폐 +
블록체인 + 기본소득

병행 과제

공론화

- 현행 화폐시스템의 불안전성과 주권화폐시스템의 장점 등 여러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형성**
- 연구조사활동, 토론회, 학습강좌 등 **교육홍보활동** 기획

병행 과제

주체 발굴

- 화폐시스템 개혁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조사할 수 있는 **담당주체 육성**(시민단체, 방송언론계, 학계, 출판계, 금융계, 공공기관 등)
- 화폐시스템 개혁을 **정치의제화**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연대**

병행 과제

관련법 제정과 정비

- 마을은행 설립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관련법의 제정과 정비**(은행법, 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병행 과제

기본소득 연계방안

- 마을은행에서 취급하는 지역화폐를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이를 **기본소득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병행 과제

국제연대

- 전 세계적으로 화폐개혁에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긴밀한 교류 추진
- 더 나은 화폐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위한 민주시민의 국제연대는 무엇보다도 중요!

도토리회 간략소개(2015~2018)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개요

- 도토리회는 **회원의 출자와 갯돈의 납입**을 통해 풀뿌리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의 공동체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역구성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
- 지역의 **공익적 마을사업**을 위한 **무이자** 자금을 지원
- 회원(개인 또는 단체)의 **창업 또는 지역경제사업**을 위한 **무이자** 자금을 지원
- 마을활동가를 위한 초기 정착금, 지역농민을 위한 농업활동자금, 사고에 따른 급전, 경조사비 등 꼭 필요한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지원

지나온 길

- 2014년 11월 ~ 2월 도토리회 준비모임(총 6회, 격주마다 진행)
- 2015년 2월 25일 창립총회 개최 (창립회원 50명)
- 2015년 4월 총 협동기금 1억여원을 모아 첫 대출 시작
- 2015년 7월 1차 통화위원회 개최
- 2015년 10월 지역언론 홍성신문에 도토리회 소개
- 2015년 12월 협동기금 1억 5천여만원, 회원 65명, 대출 22건, 상환 6건
- 2016년 2월 협동기금 1억 4천여만원, 회원 67명, 누적대출 24건, 누적상환 9건
- 2017년 12월 협동기금 2억원, 누적대출액 6억5천만원(누적건수 70건), 회원 98
- 2018년 12월 협동기금 2억 3천여만원, 누적대출액 7억5천만원(누적건수 90건) 회원 105(11개단체)

참고자료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앞]을 소개합니다
도토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화폐 운영주체



창립총회 2017.06.27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의 지속 가능성

2019 정기 총회



2019 신권 디자인



신권발행액

- 총 123,200,000원
- 1만원권 8,800장 = 88,000,000원
- 5천원권 4,400장 = 22,000,000원
- 1천원권 13,200장 = 13,200,000원

유통현황

[기간 : 2017년 5월 ~ 2019년 2월 10일]

원화를 원으로 환전

: 총 환전액 12,003,500원

원을 원화로 환전

: 총 환전액 6,282,000원

도토리회 예금

: 4,000,000원

유통현황

[기간 : 2017년 5월 ~ 2019년 2월 10일]

총 창출액 : **8,850,000원**

- 2017년 기본소득(7월~12월) : 600만원

- 2018년 사무국 운영비 : 285만원

가맹점 지도





‘다른 돈’은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CHAPTER 8

주제강연 2

-
- 공동체의 회복이 행복의 열쇠다 / 조현 한겨레 논설위원

〈한겨레〉 논설위원 & 종교전문기자 &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 저자

공동체 회복이 행복의 열쇠다

조 현

한겨레 논설위원

혼자 살자니 외롭고, 함께 살자니 괴롭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함께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의 부담을 피해서 자유롭게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자 살자니 너무 외로워서’ 나 좀 봐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마라고, 제발 나를 왕따시키지 말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 애씁니다. 동지를 날아올라서 멀리 비상하는 새도, 동지를 찾아오는 새도 모두 새인 것처럼, 타인들이 지겹다면서 공동체의 대열을 떠나는 사람들도, 다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 그리다며 공동체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모두 인간입니다. 혼삶을 살려 가는 사람도,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혼자 살면 외로워서 불행하고, 함께 살면 괴로워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1. 높은 자살율과 저출산의 원인은

자살율이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고,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한 번도 상승으로 전환된 적이 없이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과 학자들, 전문가들, 매스컴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저출산민국의 원인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높은 집값, 육아 복지 부족, 교육비 부담, 직장내 직장맘에 대한 차별과 인식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외적인 복지만이 전부라면 지금보다 가난하고 복지정책이 없었고, 1인당 소득이 76달러에 불과했던 1960년엔 어떻게 여성 1인당 평균 6.1명의 아이를 낳았을까요? 1960년엔 한국의 청년층이 쉽게 취업하고, 집을 사기 쉬웠고, 육아 복지가 잘 됐고, 교육비 부담이 적었고, 남녀 성차별은 없었나요? 1960년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품 외에 복지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그럴 듯한 직장은 가뭄에 콩 나듯했고, 생계를 잇기 어려웠기에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성 평등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차별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복지가 잘 갖춰진 선진국보다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 네팔 등 저개발국가들의 출산율이 훨씬 더 높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가 좋아진다고 출산율이 무조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진단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돈만 쏟아붓는다고 효과를 거둘리 만무합니다. 가난하더라도 공동체가 살아있던 시대와 살아있는 곳은 결혼과 출산이 당연시되지 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더라도 공동체가 붕괴되는 곳에선 결혼과 출산도 함께 붕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세대 어른들은 높은 자살율과 청년들의 3포에 대해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도대체 뭐가 부족 해서?’ 라고 힐난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은 청년층에 대해 이해가 없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다 같은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42.195미터를 달리는 마라톤이나 지리산을 종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리산 5부능선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3만달러의 소득이라도 시속 70~80킬로미터의 주행 속도로 완만히 달려온 유럽 사람들과 시속 200~300킬로의 케이티엑스 속도로 광폭 질주해온 사람의 부담이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5부 능선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200년간 서서히 오른 유럽 사람들과 70년만에 오른 한국인들의 피로도가 같을 수 없습니다. 또한 30년을 달려온 같은 한국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금수저로 태어나 이미 태어날때부터 능선이나 고지에 있었던 사람과 죽도록 기어서 그 곳까지 온 청년의 상처나 피로감과 에너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치고 불행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원인 분석은 초고속 질주 과정에서 마모되고 상처 받고 고갈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때문입니다.

2. 도시화와 핵가족화, 혼잡화로 인해 공동체에서 홀로로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도 못말리는 교육열과 에너지로 한국의 발전과 성장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와 문화 면에서 한국은 희망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고픔에서 벗어나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고, 편리해진 대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1960년 서울시 인구는 250만명이 채 되지않았습니다. 현재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지만, 그 때는 채 40%가 되지않았습니다. 실은 그 때는 도시에대 대가족과 마을이 살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절반 이상의 가구가 아파트지만, 그 때는 아파트가 전무하다시피했고,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었습니다.

도시화만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산업화로 생긴 일터에 나가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여성의 취업율도 급증했습니다. 핵가족화하고 마을공동체는 붕괴됐습니다.

3. 아이들의 충격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이들은 누굴까요. 가장 무력한 아기들이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일터에 빼앗겼습니다. 또한 엄마를 대신해줄 수 있는 대가족과 마당과 마을이 사라짐으로써 제2, 제3의 안전망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일뿐 아니라 취미, 쇼핑,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핸드폰의 발전은 아기에게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현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수백만년동안 포유류로서 어미의 절대적 돌봄을 받던 인간 아기로서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해야했습니다.

아기가 어미와 공동체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삶의 안정감이 없고, 인간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아기에게 엄마를 잃는다는 것은 딛고 설 땅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생물학적 엄마만이 아니라 엄마를 대신할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아기 원숭이 격리 실험을 통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때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 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애착 형성이 되지않아 ‘회피형 인간’ 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더구나 부모들은 일에 정신이 팔려 살면서도 자식교육열을 불태웠습니다. 놀곳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파한 뒤에도 밤 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모처럼 얼굴을 대하면서 “공부 제대로 했어?”, “시험 제대로 봤어?” 라고 압력을 행사했지요. 아이들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큰 상처를 입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인간관계가 힘든 인간형이 되어갔습니다. 지금의 3포, 5포, 7포 세대 현상, 높은 자살율,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급증하는 고독사, 가장 높은 존속살해율 등의 문제는 초고속 성장의 그늘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 돌봄과 같은 개별 복지를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저소득 가정, 즉 흙수저, 무수저들이 돌봄을 더 받지 못해 더 큰 상처를 갖게 되면서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결혼 출산도 더 어렵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경제성장과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 공동체 붕괴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관계를 포기한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 가 심각합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3월 40~64세 히키코모리가 무려 61만3천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 히키코모리 54만1천명보다 많은 수입입니다. 일본에선 히키코모리들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 빈번해지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겪은 한국에서는 그 부작용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적지않을 것입니다.

4.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공동체의 위기

경제성장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니, 19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초고속성장의 빛만 큼이나 어둠이 짙었고, 그로 인해 수천년간 유지되던 마을과 대가족 공동체가 불과 몇십년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큰 상실과 외로움과 충격 속에서 자라면서 지치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런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는 현실을 인식해야합니다. 오직 3만달러라는 외적인 면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 상태도 정확히 알아야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돌봄을 받지 못한 세대들은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자란 세대보다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대로 떨어지면서 국가 붕괴 위험까지 제기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반면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2067년엔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민의 46.5%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 되는 셈입니다. 인구는 3900만명대로 줄어든다고,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인구는 올해 72.7%에서 45.4%로 줄어들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나 급증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데, 2067년이 되면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노년 부양비가 14명에서 30.2명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부양비 증가 속도가 5배 빠른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 버거운 청년세대들은 이 나라를 벗어나는 탈출 도미노를 낳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 욕망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작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것이 곧 국가 공동체의 붕괴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5. 혼삶 부추기는 사회

2016년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이 27.9%로 2,3,4인 가구보다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전국민의 11%가 혼자사는데 2047년이 되면 전국민의 37%가 혼자 살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사는 가구는 21.5%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2047년엔 58.5%가 1인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열집중 6집은 1~2인 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47년엔 혼자 사람의 40.5%가 7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1인가구 증가를 경험했기에, 혼삶과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 연구를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영국 ‘조콕스 고독위원회’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며 고독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영국은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두고 있습니다. 또 영국 러프버러대학의 에프 호헤르보르스트 생물심리학교수팀은 연구 결과 치매발생율이 독신은 35~44%로 높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은 사람은 이들보다 60% 가량이나 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혼삶은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염증에서 해방되려는 욕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자본이 부추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그 해 당장 이익을 내지못하면 도태될 수 있는 자본은 혼삶을 부추깁니다. 대도시의 주택을 보십시오. 인구는 줄지만 집은 갈수록 부족합니다. 투기수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1인가구가 늘기 때문에 집은 지어도 지어도 부족합니다. 건축업자는 당신이 집을 나와 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4명이 한 집에 살 때는 텔레비전도, 냉장고도, 세

탁기도, 가스레인지도, 청소기도 한 대면 됐지만 혼자씩 살면 모두 네 대씩 필요합니다. 기업이 어느 쪽을 원할지 자명한 일입니다.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6.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부부라하더라도 한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먼저 죽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홀로 산다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립된 채 홀로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혼살로 사는 이들은 30~40대는 만족율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60대부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가 되면 혼자 사는 이들의 만족율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고령화시대입니다. 일본에선 200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07세까지 살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살게 된다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60세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이상을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독 속에 지낸다면 그 삶이 결코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0~20년 뒤의 모습을 앞서 보여주는 일본에선 교도소에 들어오는 65세 이상 여성수감자가 2001년 전체 10%에서 2016년 34%로 세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200엔 짜리 물건만 훔쳐도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오려는 노인들이 줄 서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주고 치료로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7.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다.

하버드대학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습니다. 하버드대학이 1938년부터 무려 79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 연구한 결과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이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외로움’ 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월딩거 박사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로움은 흡연이나 알코올중독만큼 위해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심경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2014~2015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19세 이상 성인 9424명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여럿이 사는 다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소득과 건강 상황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1인가구 60세 이상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여성의 3.2배에 달했습니다. 혼자 사는 19~39세 청년이나 노년 여성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실 확률도 같은 연령대 다인 가구의 1.7배였습니다. 또 혼자 사는 40~59세 청중장년의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년배 남성보다 대사증후군을 앓을 확률이 1.8~1.9배 높았습니다. 소득수준도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삶을 살게 되면 질제력이 약화돼 건강과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컨설팅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첫번째는 가족생활이었습니다. 기혼자의 행복지수는 58.59점으로 미혼자의 51.72점보다 높았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사람(58.76점)과 자녀가 한 명인 사람(56.92점)보다 자녀가 2명인 사람의 행복지수(59.03점)가 높았고, 자녀가 3명이면 행복지수는 62.31점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47.1점인데, 1명을 계획한 경험(54.63), 2명을 계획한 경우(54.14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8.공동체를 회복할 기회는 있다.

우리는 이미 수백년전부터 도시화와 산업화, 경제성장으로 공동체 붕괴를 경험한 서구사회와 달리 그 시점이 오래되지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강합니다. 이미 마을공동체와 대가족은 거의 붕괴되기에 이르렀음에도 명절 때가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되풀이 되어 고향마을과 대가족을 찾아가는 향수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디엔에이는 공동체적 삶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인가구와 고령사회에 공동체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혼삶 고령화시대의 고독을 상쇄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할 대안공동체 운동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발적으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독박육아 등의 고통을 줄이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욱 행복할 길을 여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도 강북구 수유동 밝은누리나 도봉구 도봉동 은혜공동체에 가면 아이들이 많은데 놀라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보다는 행복한 웃음을 볼 수 있어 놀라게 됩니다.

9.도시인들의 공동체, 공유주택

작은 돈으로 훨씬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요즘은 도시에 공유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전 국민의 5분의1이 공유주택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공유주택은 보통 10가구 정도가 모여 집 설계 때부터 집을 짓고 함께 삽니다. 서울 마포구 성미산 소행주의 경우는 커뮤니티룸을 두고 저녁 한끼 정도만 같이 합니다. 반면 은혜공동체는 좀 더 밀접하게 한집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서로 이모 삼촌이 되어 아이들을 함께 키워 집을 털어줍니다. 3~4인 한집당 20만원 정도로 공동밥상에서 저녁을 해결해 각자 부엌에서 해방돼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라면 각자 사야 될 물건들과 함께 사고, 나눠쓰고, 돌려 쓰기 때문에 각자 살 때보다 적은 생활비로 훨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쇼핑이나 불금, 여행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 공동체에 들어와 달라진 삶

덴마크대사관에서 일하며 밝은누리에서 사는 심지연씨는 “결혼을 꿈도 꾸지않았던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을 뭔지를 알았다.” 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살아봤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예전엔 스트레스를 불금이나 해외여행, 쇼핑으로 풀려고 했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밝은누리에 들어와 저녁에 공동밥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어울려 얘기하고 함께 공부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어려서 동생에게 양보 안하고 내 욕심만 챙겨 별명이 팔쥐였는데 부모님이 지금은 콩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지않았다면 결혼은 꿈도 꾸지않았을텐데 이곳에 와서 함께 사는게 행복해지니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 1년간 휴직하고 아기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황홀했어요.”

11. 공동체 유대를 강화한 평범한 마을들의 변화

밝은누리나 은혜공동체, 소행주같은 공동체만 그런 삶을 누리는건 아닙니다. 보통의 마을도 서로 함께 모여 공동체처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 문발동 28통 공방마을이 그렇습니다. 현 탁구대 하나를 놓고 탁구를 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지금은 시모임, 달리기모임, 영화보기 모임, 독서모임, 대화치유모임, 합창단 등 온갖 모임이 만들어져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문발동에 함께 어울리는 한귀영씨는 부인과질환으로 자궁을 도려내라는 병원의 권고를 받았는데 휴직을 하고 8개월간 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지내다보니 병이 싹 나아버렸다고 하며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상념이 너무 많아 주말엔 텔레비전만 봤는데 지금은 이웃들과 노는게 즐거워 드라마같은 것 보고 있을 틈이 없다. 예전엔 노후불안이 컸는데, 마을사람들과 어울리면 돈을 별로 들이지않고도 너무나 행복해, 국민연금만 받아도 살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어 편안해졌어요.”

이들은 “이웃들과 어울려 기쁘게 지내다보니 병이 낫고, 노후불안이 사라졌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12.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마을공동체에 있다.

자본주의의 돈에 부모의 돌봄을 빼앗겨버려 무의식적 안정감과 인간 신뢰감을 상실해버리고, 영혼의 에너지를 빼앗겨버린 이들조차 마을공동체의 삶 속에선 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을 벗고 웃음을 되찾고, 마침내 인간 귀찮이즘에서 벗어나 인간이 주는 기쁨, 조직의 단맛을 알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출산도 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않는 저출산 등의 복지와 행복을 가져오는 답이 바로 마을공동체에 있습니다. 특히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물질문명의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편리만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해도 좋다면, 만약 인간이 모두 사라진 지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만을 추구하면서 일상적으로 환경오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급변하고 지구별공동체 자체가 파괴되면 다른 행성에 인류의 피난처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않았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에 인류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보다 이 지구별에서 나와 가족 혹은 친구들과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행복하고,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도 다행일 것입니다.

13.약자들일수록 연대해 사랑의 시스템, 공동체를 만들어야한다.

구글과 아마존같은 초거대기업, 신의 위치를 대신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하고, 욕망을 부채질해 소비를 유도해 고혈을 빼기 위해 우리를 홀어지게 하는 초거대자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식민지 국가들이 제국주의에게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기엔 동물보다 훨씬 취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훨씬 고독을 견디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실은 인간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데서 나오는 신음입니다. 나도 사랑 받고 싶었다고, 나도 사랑하고 싶었다고, 외로웠다고, 슬펐다고, 아팠다는 비명인 것입니다.

그 비명을 경청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고통을 극복하기 어렵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사랑 받고, 사랑하고, 나눌 때입니다. 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가족과 마을과 조합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쟁사회는 이기적 욕망을 부채질 해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경쟁으로 타인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적에게 둘러싸여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용을 쓰고 긴장하고 에너지를 뺏기고,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혼자 살고, 고령이고, 가난하고, 장애나 병이 있고, 의지할 데가 없는 약자들일수록 더욱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자들일수록 저출산시대일수록,

고령화사회일수록, 혼핍사회일수록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찾아가야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우리를 산산이 쪼개는 거대자본에게 맡기는것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의지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시스템인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합니다.



지역화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localization
